

용역보고서 2023-3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569-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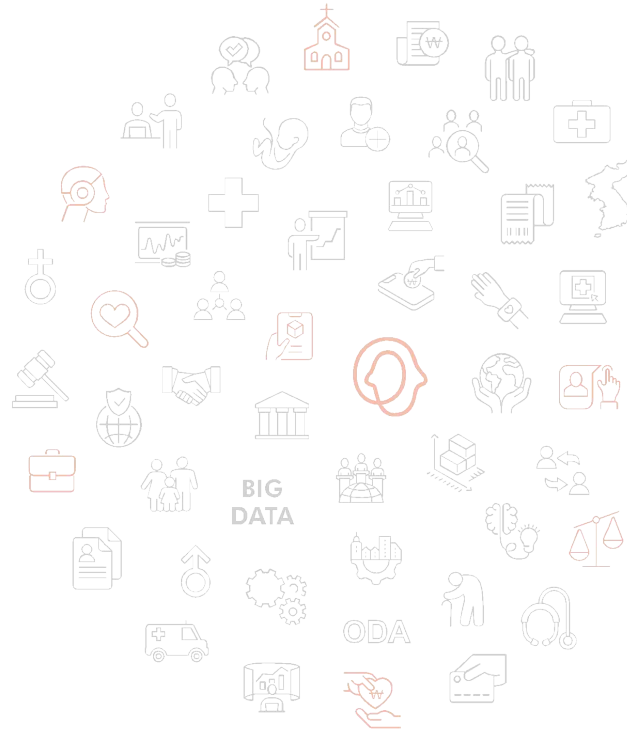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고속자

안 영·황남희·이아영·최현수



## ■ 연구진

연구책임자	고속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는 통계청 승인 통계 외에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목적으로 산출한 통계청 미승인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4. 15.)한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17
<b>제2장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발생 현황 .....</b>	<b>21</b>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원 .....	23
제2절 2021년도 고독사 발생 현황 분석 결과 .....	27
제3절 2017년~2021년 동안의 고독사 추이 .....	38
<b>제3장 고독사 발생 이전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b>	<b>51</b>
제1절 고독사 사망 전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53
제2절 고독사 사망 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76
<b>제4장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b>	<b>109</b>
제1절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개요 .....	111
제2절 고독사 위험군 판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120
제3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	126
<b>제5장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b>	<b>157</b>
제1절 고독사 인식조사 개요 .....	159
제2절 고독사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	164

---

<b>제6장 결론</b> .....	<b>203</b>
제1절 정책과제 .....	205
제2절 기대효과 .....	211
<b>참고문헌</b> .....	<b>213</b>
<b>부록</b> .....	<b>215</b>
[부록 1] 설문지: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	215
[부록 2] 설문지: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225
[부록 3]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설문 문항관련 참고자료 .....	233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2021년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현황	11
〈표 1-2〉 중장년의 고독사 위험 요인	14
〈표 2-1〉 경찰청 행정자료의 주요 레이아웃	24
〈표 2-2〉 고독사 정의에 따른 키워드 예시	25
〈표 2-3〉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황과 관련한 키워드 예시	26
〈표 2-4〉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28
〈표 2-5〉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0
〈표 2-6〉 시도별·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수 현황: 2021년	31
〈표 2-7〉 시도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2
〈표 2-8〉 특광역시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3
〈표 2-9〉 도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4
〈표 2-10〉 발생 장소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4
〈표 2-11〉 발생장소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35
〈표 2-12〉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현황: 2021년	36
〈표 2-13〉 고독사 중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 현황: 2021년	36
〈표 2-14〉 동일 연령대 대비 자살 사망 고독사 비중: 2021년	37
〈표 2-15〉 연도별 고독사 사망자 수 추이: 2017년~2021년	38
〈표 2-16〉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39
〈표 2-17〉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39
〈표 2-18〉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40
〈표 2-19〉 최근 5년간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41
〈표 2-20〉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현황: 2017년~2021년	41
〈표 2-21〉 최근 5년간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43
〈표 2-22〉 최근 5년간 지역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44
〈표 2-23〉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46
〈표 2-24〉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 현황: 2017년~2021년	47
〈표 2-25〉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장소 현황: 2017년~2021년	47
〈표 2-26〉 최근 5년간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현황: 2017년~2021년	48
〈표 2-27〉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수: 2017년~2021년	49
〈표 2-28〉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2017년~2021년	49
〈표 2-29〉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보험DB와의 미연계율: 2019년~2021년	55

〈표 3-1〉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21년 기준 .....	56
〈표 3-2〉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21년 기준 .....	57
〈표 3-3〉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21년 기준 .....	57
〈표 3-4〉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21년 기준 .....	58
〈표 3-5〉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21년 기준 .....	59
〈표 3-6〉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21년 기준 .....	60
〈표 3-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21년 기준 .....	60
〈표 3-8〉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21년 기준 .....	61
〈표 3-9〉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중증 질환 현황: 2021년 기준 .....	62
〈표 3-10〉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21년 기준 .....	62
〈표 3-11〉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20년 기준 .....	63
〈표 3-12〉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20년 기준 .....	64
〈표 3-13〉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20년 기준 .....	64
〈표 3-14〉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20년 기준 .....	65
〈표 3-15〉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간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20년 기준 .....	66
〈표 3-16〉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간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20년 기준 .....	67
〈표 3-1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20년 기준 .....	67
〈표 3-18〉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20년 기준 .....	68
〈표 3-19〉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20년 기준 .....	69
〈표 3-20〉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19년 기준 .....	70
〈표 3-21〉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19년 기준 .....	71
〈표 3-22〉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19년 기준 .....	71
〈표 3-23〉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19년 기준 .....	72
〈표 3-24〉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19년 기준 .....	73
〈표 3-25〉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19년 기준 .....	73
〈표 3-26〉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19년 기준 .....	74
〈표 3-2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19년 기준 .....	75
〈표 3-28〉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19년 기준 .....	75
〈표 3-29〉 고독사 데이터 연계 현황 .....	77
〈표 3-30〉 사회보장서비스의 유형 분류 .....	78
〈표 3-31〉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21년 .....	79





〈표 3-3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21년 .....	80
〈표 3-3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21년 .....	80
〈표 3-34〉 고독사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1년 .....	81
〈표 3-3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1
〈표 3-3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2
〈표 3-3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3
〈표 3-3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3
〈표 3-3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4
〈표 3-4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5
〈표 3-4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5
〈표 3-4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6
〈표 3-4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7
〈표 3-4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및 감면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	87
〈표 3-45〉 고독사 사망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1년 .....	88
〈표 3-46〉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20년 .....	89
〈표 3-4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20년 .....	89
〈표 3-4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20년 .....	90
〈표 3-49〉 고독사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성별·연령별, 2020년 .....	90
〈표 3-5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1
〈표 3-5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2
〈표 3-5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2
〈표 3-5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3
〈표 3-5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4
〈표 3-5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4
〈표 3-5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5
〈표 3-5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6
〈표 3-5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6
〈표 3-5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	97
〈표 3-60〉 고독사 사망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0년 .....	98
〈표 3-61〉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19년 .....	98
〈표 3-6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19년 .....	99

〈표 3-6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19년 .....	99
〈표 3-6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성별·연령별, 2019년 .....	100
〈표 3-6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0
〈표 3-6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1
〈표 3-6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2
〈표 3-6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2
〈표 3-6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3
〈표 3-7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4
〈표 3-7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4
〈표 3-7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5
〈표 3-7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6
〈표 3-7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	106
〈표 3-7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19년 .....	107
〈표 4-1〉 표본설계 내역 .....	112
〈표 4-2〉 목표 모집단 현황 .....	114
〈표 4-3〉 표본 배분 현황 .....	115
〈표 4-4〉 목표 대비 완료율 .....	117
〈표 4-5〉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의 주요 설문내용 .....	118
〈표 4-6〉 위험군 판별을 위한 조사 대상자 및 위험군 심층조사 대상자 .....	119
〈표 4-7〉 고독사 위험군 판단 지표 및 판단 기준 .....	121
〈표 4-8〉 고독사 위험군의 구분 .....	123
〈표 4-9〉 고독사 위험군별 실패와 상실감(복수응답) .....	124
〈표 4-10〉 고독사 위험군별 고립적 일상(복수응답) .....	125
〈표 4-11〉 고독사 위험군별 사회적 고립(복수응답) .....	125
〈표 4-12〉 고독사 위험군별 이동성 높은 생애(복수응답) .....	126
〈표 4-13〉 고독사 위험군별 돌봄 및 지원 중단 경험(복수응답) .....	126
〈표 4-14〉 고독사 위험군 판별점수 분포 .....	127
〈표 4-15〉 고독사 위험군 심층조사의 조사항목 .....	127
〈표 4-16〉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	128
〈표 4-17〉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성별·연령별 .....	130
〈표 4-18〉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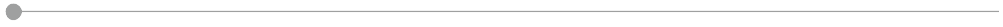


〈표 4-19〉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지역별 .....	131
〈표 4-20〉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성별·연령별 .....	132
〈표 4-21〉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3
〈표 4-22〉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지역별 .....	133
〈표 4-23〉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성별·연령별 .....	134
〈표 4-24〉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4
〈표 4-25〉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지역별 .....	135
〈표 4-26〉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성별·연령별 .....	135
〈표 4-27〉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6
〈표 4-28〉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지역별 .....	136
〈표 4-29〉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성별·연령별 .....	137
〈표 4-30〉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7
〈표 4-31〉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지역별 .....	137
〈표 4-32〉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성별·연령별 .....	138
〈표 4-33〉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	138
〈표 4-34〉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지역별 .....	139
〈표 4-3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성별·연령별 .....	139
〈표 4-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	140
〈표 4-3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지역별 .....	140
〈표 4-38〉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성별·연령별 .....	140
〈표 4-39〉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	141
〈표 4-40〉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지역별 .....	141
〈표 4-41〉 장애 유무: 성별·연령별 .....	141
〈표 4-42〉 장애 유무: 위험군 판정점수별 .....	142
〈표 4-43〉 장애 유무: 지역별 .....	142
〈표 4-44〉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성별·연령별 .....	142
〈표 4-45〉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위험군 판정점수별 .....	142
〈표 4-46〉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지역별 .....	143
〈표 4-47〉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성별·연령별 .....	143
〈표 4-48〉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위험군 판정점수별 .....	144
〈표 4-49〉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지역별 .....	144

〈표 4-50〉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성별·연령별	145
〈표 4-51〉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145
〈표 4-52〉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지역별	145
〈표 4-53〉	활동제한: 성별·연령별	146
〈표 4-54〉	활동제한: 위험군 판정점수별	146
〈표 4-55〉	활동제한: 지역별	146
〈표 4-56〉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성별·연령별	147
〈표 4-57〉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148
〈표 4-58〉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지역별	149
〈표 4-59〉	지난 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성별·연령별	150
〈표 4-60〉	지난 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150
〈표 4-61〉	지난 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지역별	150
〈표 4-62〉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성별·연령별	150
〈표 4-63〉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151
〈표 4-64〉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지역별	151
〈표 4-65〉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 시도 경험: 성별·연령별	151
〈표 4-66〉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 시도 경험: 위험군 판정점수별	152
〈표 4-67〉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 시도 경험: 지역별	152
〈표 4-68〉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성별·연령별	153
〈표 4-69〉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위험군 판정점수별	153
〈표 4-70〉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지역별	153
〈표 4-71〉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성별·연령별	154
〈표 4-72〉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위험군 판정점수별	154
〈표 4-73〉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지역별	154
〈표 4-74〉	부채상환 가능성: 성별·연령별	155
〈표 4-75〉	부채상환 가능성: 위험군 판정점수별	155
〈표 4-76〉	부채상환 가능성: 지역별	155
〈표 4-77〉	공과금 연체 현황: 성별·연령별	156
〈표 4-78〉	공과금 연체 현황: 위험군 판정점수별	156
〈표 4-79〉	공과금 연체 현황: 지역별	156
〈표 5-1〉	고독사 인식조사 개요	160



〈표 5-2〉 지역 및 성·연령별 할당 결과 .....	160
〈표 5-3〉 고독사 인식조사의 주요 설문내용 .....	161
〈표 5-4〉 고독사 인식조사 응답자 분포: 일반현황 .....	163
〈표 5-5〉 주관적 외로움 수준 .....	165
〈표 5-6〉 혼자 살게 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166
〈표 5-7〉 혼자 살게 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1순위+2순위 .....	166
〈표 5-8〉 혼자 살 때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	167
〈표 5-9〉 혼자 살 때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 1순위+2순위 .....	167
〈표 5-10〉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	169
〈표 5-11〉 가족이 있는 경우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 .....	171
〈표 5-12〉 1인가구에서만 고독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 .....	172
〈표 5-13〉 고독사 정의에 대한 주관적 인식 .....	174
〈표 5-14〉 고독사의 모든 연령대 발생 가능성 .....	175
〈표 5-15〉 고독사의 개인적 문제 vs.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	177
〈표 5-16〉 고독사의 경제적 취약계층 문제 vs. 소득에 관계없는 문제로의 인식 .....	179
〈표 5-17〉 고독사로 인해 주변 이웃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 .....	180
〈표 5-18〉 고독사 발생 예방의 이웃에 대한 관심의 역할 .....	182
〈표 5-19〉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183
〈표 5-20〉 고독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 .....	185
〈표 5-21〉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충분성 .....	187
〈표 5-22〉 고독사 예방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 연령층 .....	189
〈표 5-23〉 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	191
〈표 5-24〉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향 .....	192
〈표 5-25〉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 .....	194
〈표 5-2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순위 .....	195
〈표 5-2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순위+2순위 .....	197
〈표 5-28〉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랫폼의 효과성 인식 .....	198
〈표 5-29〉 고독사 발생시 우선적 지원 정책 .....	200
〈표 5-30〉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	201
〈부표 1〉 사회적 관계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234
〈부표 2〉 사회적 관계망: 일평균 교류 .....	234



〈부표 3〉 사회적 고립 척도 .....	236
〈부표 4〉 외로움 척도 .....	239
〈부표 5〉 우울감 척도 .....	243



[그림 1-1]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 .....	9
[그림 1-2] 사회적 고립의 국제 비교 .....	12
[그림 1-3] 사회적 고립 발생의 생애사적 특성 및 원인 .....	12
[그림 1-4] 경제적 빈곤과 관계성 빈곤의 상관성 .....	13
[그림 1-5]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지체계의 어려움 .....	13
[그림 1-6] 고독사의 개념적 정의 및 연구 목적 .....	16
[그림 2-1]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	29
[그림 2-2]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인구 십만명당 .....	30
[그림 2-3]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사망자수 대비(%) .....	31
[그림 2-4] 고독사 사망자 수 추이: 2017~2021년 .....	39
[그림 2-5]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2017년~2021년 .....	42
[그림 2-6]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2017년~2021년 .....	45
[그림 3-1] 외로움이 질병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	53
[그림 3-2] 고독사 사망전 의료서비스 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방법 .....	54
[그림 3-3] 사회보장서비스 DB 연계 .....	76
[그림 4-1] 조사 흐름도 .....	116
[그림 5-1] 본인 고독사 가능성 .....	170
[그림 6-1] 신취약계층의 발생 .....	205
[그림 6-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	206
[그림 6-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	208
[부그림 1] 고독사 위험요인 영역 체계 .....	242







## 요약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 2019년 30.2%, 2021년 33.4%임.
  - 사회적 지지체계 문제의 산출 결과에 의하면, 2021년 34.1%로 2019년 27.7%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체계 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독사 통계가 없어, 고독사 통계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독사 지표 생산이 필요함.
  - 고독사에 대한 통계 부재로, 무연고사망자 수를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활용함.
  - 따라서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독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고독사 위험군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독사 관련 현황 지표 생산
  -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 고독사 위험군 및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수행
  -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조사
  
-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활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에 2,412명, 2018년에 3,048명, 2019년에 2,949명, 2020년에 3,279명, 2021년에 3,378명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연평균 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60대에서 18.5%로 가장 빠른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80대 이상에서 14.1%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지역별로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0%이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발생자 수가 많지 않다가 2021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에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된 3,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자는 911명으로 전체의 30.1%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2,040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함.
  - 고독사 사망자(2021년 기준)가 보유하고 있는 질환을 21대 질환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순환기계 질환이 2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3.7%, 소화기계의 질환 22.2%, 정신 및 행동장애 19.6%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독사 사망자 중에 고혈압 20.1%, 당뇨병 18.0%, 알코올질환 12.3%이었음.
- 고독사 사망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DB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함.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378명 중에 사회보장정보원의 DB와 연계한 2,932명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4.3%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5.1%이며, 여성은 40.5%에 해당됨.
  -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이 가장 높은 52.4%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50대 47.9%, 70대가 46.3%의 순이었음.
  
- 고독사 위험군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
  -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는 9,471명이며, 이 중에 남성은 4,742명, 여성은 4,729명에 해당됨.
    - 연령층으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19-29세는 1,815명, 30대는 1,631명, 40대는 1,266명, 50대는 1,465명, 60대는 1,568명, 70대 이상은 1,726명임.
  - 고독사 위험군은 고위험군의 경우 70-100점, 중위험군의 경우 40-60점, 저위험군의 경우 10-30점으로 분류하였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는 2.6%, 중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19.8%, 저위험군 56.4%,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21.2%이었음.
  - 고독사 위험군 중에 50대에서 고위험군의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험군도 29.6%로 가장 높은 연령층에 해당되며, 그다음 순으로는 40대 연령층에서 고위험군이 4.5%로 높았으며, 중위험군은 60대 28.1%로 높았음.
  - 고독사 위험군 중에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의 어려움이 32.7%이었음.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4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 본인이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0.21%, 여성은 34.35%로 여성의 주관적 고독사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 동거가족 여부에 따른 고독사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57.7%로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인식(28.8%)보다 높음.
  -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8.2%이며, 남성(78.0%)과 여성(78.4%)의 인식이 유사함.
  -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생각한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86.0%이며, 고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여성(87.7%)의 비율이 남성(84.3%)보다 높았음.
  - 동네 주민 중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민센터 등에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2%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89.9% 여성은 88.5%로 나타남.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 정책 1순위로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가 31.3%로 가장 많았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25.8%,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19.1% 순으로 높았음.
- 앞서 살펴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함.
- 요구도 기반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소득 및 자산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험 계층을 서비스 요구도(필요도)를 기반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누락되어 있는 서비스 및 대상 범위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 위험군 판별 지표 개발

- 고독사 위험군 판별지표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 고독사 예방정책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미래생산성 손실, 질병(치매,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후 대응보다는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발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적시 대응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및 지원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

○ 지역사회에서의 포괄적 지원 체제의 추진

- 지역에서 연결하는 지원 (종합 상담, 취업 지원, 보호종료아동지원, 출소자 지원 등)이나 커뮤니티(직장·가구)간 이동의 지원(전직 지원, 직업 훈련, 피해자 지원, 여성 지원 등) 등을 실시

○ 연결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사회적 처방 필요

-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고 비제도권에 있는 고립·은둔 계층의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주요 용어 : 고독사, 사회적 고립, 고립사, 1인 가구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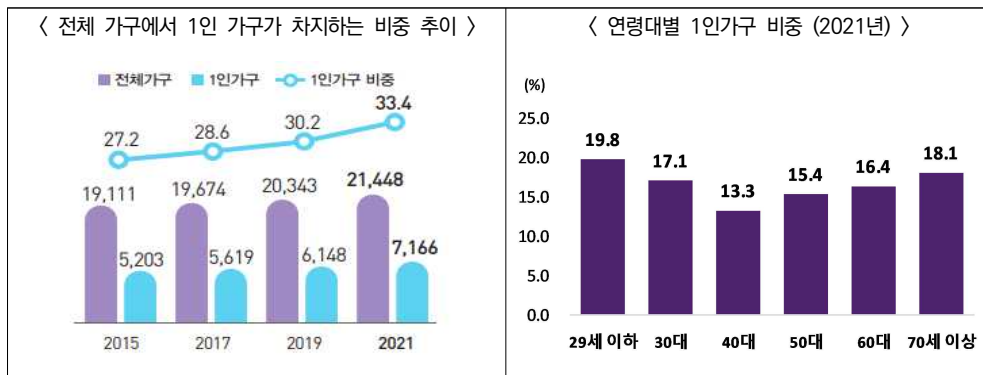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가구 구성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7.2%, 2016년 27.9%, 2017년 28.6%, 2018년 29.3%, 2019년 30.2%, 2021년 33.4%임(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2: 7에서 재인용).
- 2021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1인 가구는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임(통계청, 2022: 8).

[그림 1-1]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중

(단위: 천가구, %)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 다(多)인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높은 취약성<sup>1)</sup>.

- (주거 취약) 30세 이상 남성 가구주로 구성된 가구에서 다인 가구보다 남성 1인 가구의 반지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3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반지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남.
- (고용 취약)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미취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고용의 질이 열악
- (소득 취약) 1인 가구의 가계소득은 평균 170만 3,378원으로, 균등화 소득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1인 가구소득이 다인 가구에 비해 가장 낮음.
- (관계성 취약) 1인 가구의 고립성과 관계성의 부재 혹은 약화

## 2. 사회적 고립도의 증가

□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고립은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증가하였음.

-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지지체계가 모두 없는 경우로 정의할 경우에 사회적 고립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증가하였음.
  - 사회적 고립 증가: 4.7%(2019년)→6.0%(2021년)
  - \*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2019년, 2021년)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의 조작적 정의를 적용함.
    - ① 사회적 관계: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중에서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임.
    - ② 사회적 지지체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1) 김석호, 변미리, 정병은, 구서정. (2018).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 사회적 고립 경험자는 노년층(65세 이상)과 장년층(50~64세)의 사회적 고립 비중이 각각 9.2%, 6.6%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1-1〉 2021년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21년						2019년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전체	전체
	13~18세	19~34세	35~49세	50~64세	65세이상	13세이상	13세이상
사회적 관계 없음(A)	242	1,045	1,419	1,834	1,805	6,345	7,108
사회적 지지체계 없음(B)	-	1,059	1,351	1,817	1,535	5,762	4,046
사회적 고립(A∩B)	-	526	639	827	787	2,779	2,159
해당 연령대 대비 비중(%)		5.0%	5.4%	6.6%	9.2%	6.0%	4.7%

주: 사회적 고립 경험자는 13세 이상 인구의 6.0%(2021년 기준)를 차지함.

- ① 사회적 관계는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중에서 대면, 인터넷(SNS등), 전화 등으로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없다고 응답한 사람임.
- ② 사회적 지지체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갑자기 큰 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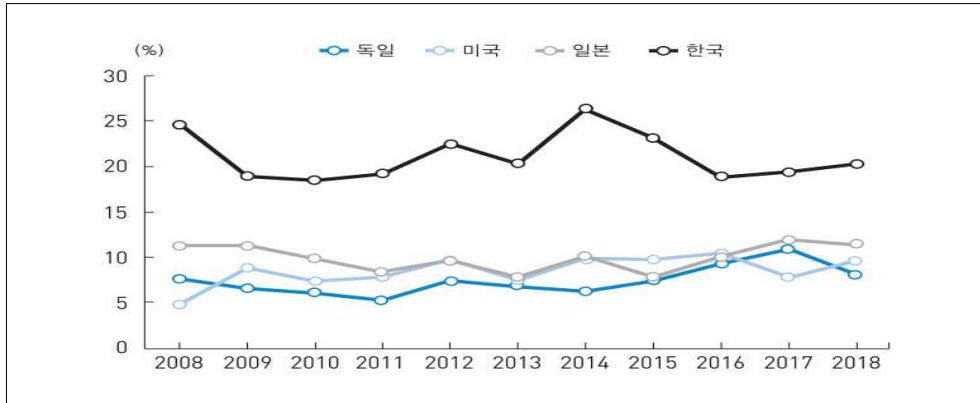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의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분석.

## □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와의 사회적 관계 비교

- 우리나라의 사회적 관계 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비율: 「갤럽세계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  
“만약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 지난 10년간 독일, 미국, 일본에서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5~12%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계 문제 정도가 높은 편임.

[그림 1-2] 사회적 고립의 국제 비교



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은 “만약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100%에서 차감한 수치임.  
 자료: Gallup, Gallup world poll, 2008-2018; 한준. (2019). 한국의 사회동향: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p. 341에서 재인용

□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한 사회적 고립 발생

-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  
 → 고립의 만성화 및 은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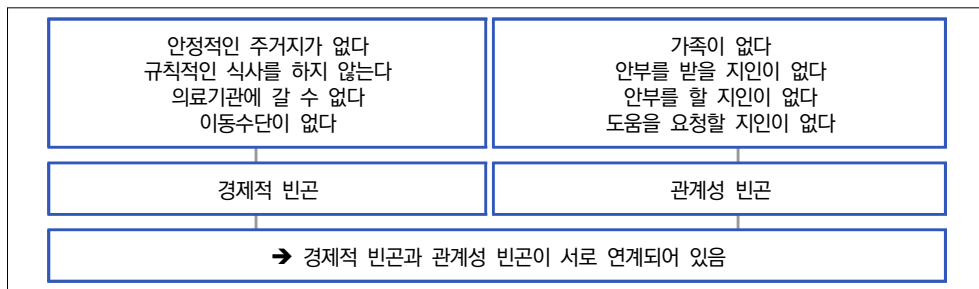
[그림 1-3] 사회적 고립 발생의 생애사적 특성 및 원인

구분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고립 발생 원인	정서적 문제 ADHD, 심리정서요인	경제적 문제 가계부담, 빈곤, 미취업, 실업	경제활동 문제 생계유지부담, 부채	경제적 문제 노인빈곤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학업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대학입시실패, 군대폭력, 친구불화, 직장따돌림	이행실패 취업실패, 창업실패	건강문제 만성질환, 활동제한, 치매 우울, 불안, 미충족의료
	가족문제 가정불화, 가정폭력	가족돌봄 영케어, 돌봄	가족갈등 이혼, 사별, 관계불화	지지체계 부재 은퇴후 부적응 자녀 및 배우자 갈등 도움지원 부재

###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요인의 탐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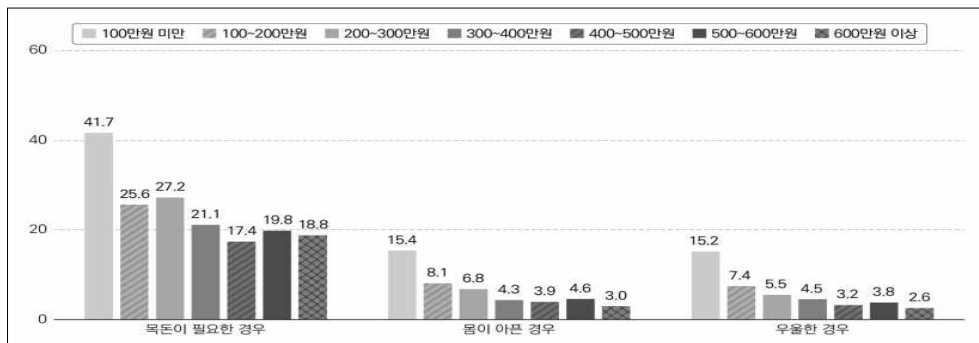
□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하여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립이 만성화 →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그림 1-4] 경제적 빈곤과 관계성 빈곤의 상관성



□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많음.

[그림 1-5] 가구소득별 사회적 지지체계의 어려움



주: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의 응답 비율(%)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 61.

□ 청년의 고독사 위험요인

-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생애 사건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입시 실패, 가족 간 불화, 직장 내 따돌림 등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서 관계 단절 및 고립이 고독사로 진행될 위험이 높음.

□ 중장년의 고독사 위험요인

- 중장년 남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고립을 선택하거나 혹은 고립 상황에 놓여짐으로 인해 고독사로 이어짐.
  - 중장년의 경우 실직 및 은퇴로 인한 상실감과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계 단절, 고립으로 이어져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표 1-2〉 중장년의 고독사 위험 요인

- 
- 실직/은퇴(조기퇴직, 실직, 파산)
  - 실직/은퇴로 인한 생활고
  - 실직/은퇴 및 경제 관련 소외감 및 우울감
  -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단절
  - 간질환/당뇨/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
  - 관계기피 및 거부
  - 알코올 의존 및 영양 불균형
  - 자살 관련 행동
- 

□ 노년의 고독사 위험요인

- 노년기에는 경제적 문제(노인빈곤), 건강문제(만성질환, 활동제한, 치매, 우울 및 불안, 미충족의료), 사회적 지지체계 부재(은퇴후 부적응, 사별, 자녀 및 배우자 갈등, 도움지원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 4. 근거기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위한 고독사 통계 산출 필요

-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독사 통계가 없어, 고독사 통계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고독사 지표 생산이 필요함.

- 고독사에 대한 통계 부재로, 무연고사망자 수를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활용함.

- 따라서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필요함.

## 5. 고독사 예방법의 제정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0.3.31., 시행 2021.4.1.)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3.6.1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3.>
-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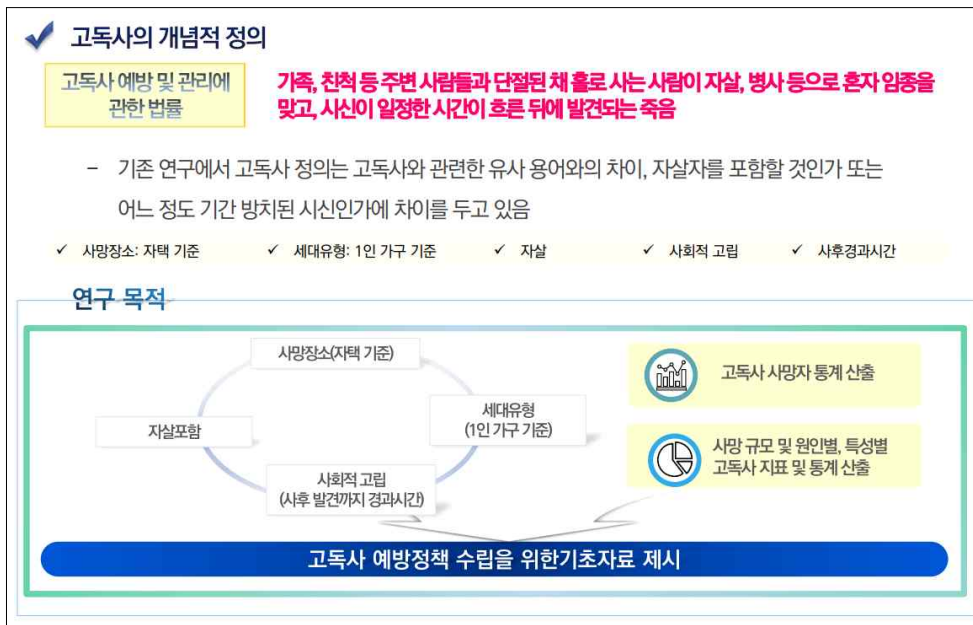
- 제4조(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주거·생활 여건,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급증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고독사 통계의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독사 통계(이하 “고독사 통계”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 ② 고독사 통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1.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 설문조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가 2023.6.13. 개정되면서, “홀로 사는 사람”(개정이전)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그리고 “혼자 임종”(개정이전)에서 “혼자”라는 용어가 삭제됨.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이전의 법적 정의를 기준하여 고독사를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함.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6월 20일 인출.

## 6. 연구 목적

-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독사 관련 지표 산출
-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 관련 주요 통계 산출
- 고독사 위험계층 및 잠재적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조사

[그림 1-6] 고독사의 개념적 정의 및 연구 목적



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가 2023.6.13.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정 이전의 법적 정의에 기준하여 고독사를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함. 따라서 위 그림에 제시한 법적 정의는 개정되기 이전의 고독사 정의(제2조)임.



##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1. 고독사 관련 지표 산출

- 고독사 정의에 대한 이슈가 있어 고독사 통계 생산을 위한 개념적 정의를 설정하고 지표 개발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 정의: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가 2023.6.13.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정 이전의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고독사를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함.
  - 기존 연구<sup>2)</sup>에서 고독사 정의는 고독사와 관련한 유사 용어와의 차이, 자살자를 포함할 것인가 또는 어느 정도 기간 방치된 시신인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고독사 판단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 사망장소: 자택 기준
    - 세대유형: 1인 가구 기준
    - 자살 포함
    - 사회적 고립
    - 사후경과시간
- 주요 통계 작성 내용(1): 고독사 사망자의 경우
  - 성별,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
  - 지역별 고독사 사망자 수
  - 최초 발견자 유형

2)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고숙자 등.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pp. 23-40을 참고하기 바람.

- 고독사 사망자의 경제·사회적 특성
- 사망 이전의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현황
- 사망 이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주요 통계 작성 내용(2): 고독사 위험군의 경우
  - 사회적 고립 수준
  - 고독 위험계층의 인구, 경제, 사회적 특성
  
- 주요 통계 작성 내용(3): 고독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
  -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대응 방안

## 2.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에서 고독사 정의에 부합하는 요건을 추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자료와 연계
    - 경찰청의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에서 고독사 사망자 추출(5개년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DB와 고독사 사망자 연계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DB와 고독사 사망자 연계
  - 연계된 자료를 활용하여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이전 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산출

## 3. 고독사 위험군 파악을 위한 조사 설계 및 실태조사

- 고독사 위험군 판단 기준 및 심층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방법 및 조사 내용 마련

□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서비스 욕구, 건강 수준 등에 대한 통계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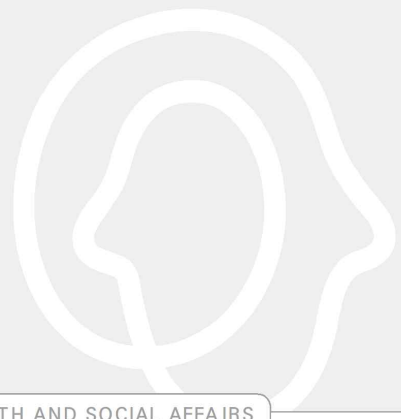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 **4.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조사 설계**

□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문항 설계 및 통계 산출

○ 일반 국민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단





## 제2장

###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발생 현황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원

제2절 2021년도 고독사 발생 현황 분석 결과

제3절 2017년~2021년 동안의 고독사 추이



## 제 2 장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독사 발생 현황

### 제1절 분석 방법 및 자료원

#### 1. 자료원의 구성

- 고독사 사망자의 통계 생산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변사자 현장감식 자료를 활용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의 과학수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으로 수집된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를 활용함.
  - 모든 변사자가 발생·접수가 되면 우선, 과학수사대에서 현장상황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자세히 기술함. 범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례를 종결하게 됨.
  -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은 현장 당시의 주변상황과 변사자의 상태, 유족 및 주위 관계자의 진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의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 주요 요청 내용
  - 요청자료 기간: 2017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최근 5개년), 전국대상
  - 요청자료 레이아웃은 다음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발생관서, 변사자명, 변사자의 출생년월일, 발생일자 및 장소, 사건개요 및 현장상황 등의 변수임.

〈표 2-1〉 경찰청 행정자료의 주요 레이아웃

연도	발생관서	변사자명	출생년도	출생월일	성별	발생일자	발생장소
사건개요				현장상황			
목적자/발견경위 기타				사건접수상황 신고경위 현장주변상황 사건현장상황 발견당시 피해자상황 유족 및 주변인 진술 등 참고사항			

□ 자료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년 12월 14일 인출.



## 2. 분석 방법

□ 경찰청의 변사자 현장 감식 자료는 텍스트 형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형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수행함.

□ STEP 1) 변사자 자료를 정형화된 형태로 전환

- 개인단위의 자료를 띄어쓰기 기준으로 단어 분리
- 음절의 조사 제거
- 빈도추출

□ STEP 2) 변사자 자료에서 단어별로 빈도를 확인하여 고독사를 암시하는 관련 단어 사례를 추출함.

- 예를 들어,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 유형에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은둔, 가보(라고), 강제개방, 강제개문, 개방, 유서, 안부, 열어(열고), 잠겨, 잠귀, 집세, 월세, 부동산, 연락 두절, 몇일, 며칠, 결근, 요청” 등과 같은 단어 빈도가 탐색됨.

〈표 2-2〉 고독사 정의에 따른 키워드 예시

정의 구분	키워드
단절	은둔 가보(라고) 강제개방 강제개문 개방 유서 여부 안부 열어(열고) 잠겨 잠귀 집세 월세 부동산 연락 두절 몇일 며칠 결근 요청
홀로 사는 사람	1인 독거 별거 사별 혼자 홀로 원룸 고시(원, 텔)
자살	중독 가스 독극물 자살 마약 목매 목맨 목멜 목멤 목맹 번개탄 부탄 비관 사상(물) 삭혼 숯 수면제 시도 음독 일혈점 자해 자혈혼 농약 제초제 착화(탄) 탄화 연탄 추락 투신 뛰어내려 연기 목을 매 유서
일정시간이 흐른 뒤 발견	강직 건조(화) 경과 경직 경화 부패(부패) 부패액 혈성액 부패변성 부패변색 부패 수포 부패망 파리 구더기(구데기) 고독사 혈흔 피사 이물 구토 토혈흔 토사(물) 토혈 말라 멍 출혈 색흔 미라형태 미라화 미라(미랍) 백골 배설물 배변 벌레 변색 변성 분비물 시랍 악취 체액 냄새(냄세) 시반(시방) 쌓여

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가 2023.6.13.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정 이전의 법적 정의에 기준하여 고독사를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함. 개정 이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표 2-3〉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당시 상황과 관련한 키워드 예시

정의 구분	키워드
사회경제적 환경	복지카드 복지 장애 기초 기초생활 수급 돌봄 대출 독촉장 돈문제 부채 신변비관(신병비관) 요양 급여
건강수준	병 Alcohol 알코올 알콜 술 소주 막걸리 담배
최초발견자	최초발견 최초발생 최초방문 최초부재 최초신고 최초(최최) 발견 간병 간호 건물관리인 건물주 소유주 경비 관리 공무원 공익요원 구급 도우미 도움 도착 신고(자) 동네 이웃 주민 연락 두절 몇일 며칠 몇 며칠 주인 방문 부재중 불러 불렀 쓰러 집세 월세 방세 납부, 공과금, 열쇠, 비밀번호, 밀러, 찾아, 방문, 요양(보호사), 복지(사), 지인, 쌓여 택배 쌀 야쿠르트 우유

- STEP 3) 고독사 정의에 따른 키워드를 포함한 사례(case)를 추출함.
  - ① 발견장소가 의료기관 및 노상, 도로 등의 경우는 제외하고 주거지 사례(case)만 추출함. 단독주택의 마당에서 변사자가 발견된 경우는 포함.
  - ② 행정적인 주민등록 상의 가구 수에 관계없이 실제 홀로 사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례(case)만 추출
  - ①과 ②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추출
  - ‘단절’ 관련 키워드와 ‘일정시간이 흐른 뒤 발견’과 관련된 키워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할 경우의 사례 추출
    - ‘일정시간이 흐른 뒤 발견’에서 ‘부패’, ‘미라화’, ‘백골화’가 포함된 경우를 우선하여 선정
    - 명확한 제외사항(동거인이 있는 경우, 응급실에 급히 후송된 경우, 외국 국적의 경우, 매일 또는 2일에 1회 정도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
  - ⇒ 키워드를 활용하여 ①발견장소와 ②실질적 1인 가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 중에서 ③ ‘단절’ 또는 ‘일정시간이 흐른 뒤 발견’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추출함.

□ STEP 4) 전문가 리뷰

- 키워드 분석만으로 고독사로 선정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개별 사례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리뷰하여 최종 선정
  - 문장 내에 부정어와의 연계 검토: 예) ‘혼자’ 살지 ‘않고’
  - 단어의 오타 확인
  - 모호한 경우는 상황 전개를 읽고 논의 후 선정

□ 자료의 제한점

- 변사자의 현장 감식 자료에는 변사자의 현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사망 이후부터 발견되기까지 경과일수(추정)를 모두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패 수준은 사망 당시의 환경요소(습도, 온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의 경과일수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현장 감식 자료에서 목격자, 최초 발견자, 발견될 당시의 상황, 민원 등에 대한 기록이 모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감식 기록의 내용을 기반으로 지표를 산출함.

## 제2절 2021년도 고독사 발생 현황 분석 결과

- 본 절에서는 2021년도의 고독사 발생 현황을 제시하고, 제3절 부분에 5년간 추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 1. 2021년 고독사 현황

- 2021년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전체 사망자 중에서 1.1%가 고독사로 사망하였으며, 2021년 한 해동안 인구십만명당 6.6명이 고독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2,817명(83.4%)으로, 여성 529명(15.7%)보다 높았음(성별 미상 32명(0.9%)).
-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001명, 29.6%), 60대(981명, 29.0%), 40대(526명, 15.6%)의 순이었음.
- 특히, 5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900명, 60대 남성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860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리고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0세 단위의 연령대별 인구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십만명당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60대에서 인구 십만명당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명으로 가장 높았음.
- 사망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40대에서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에서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정책이 고령자 중심의 고독사 문제를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연령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고령자뿐 아니라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표 2-4〉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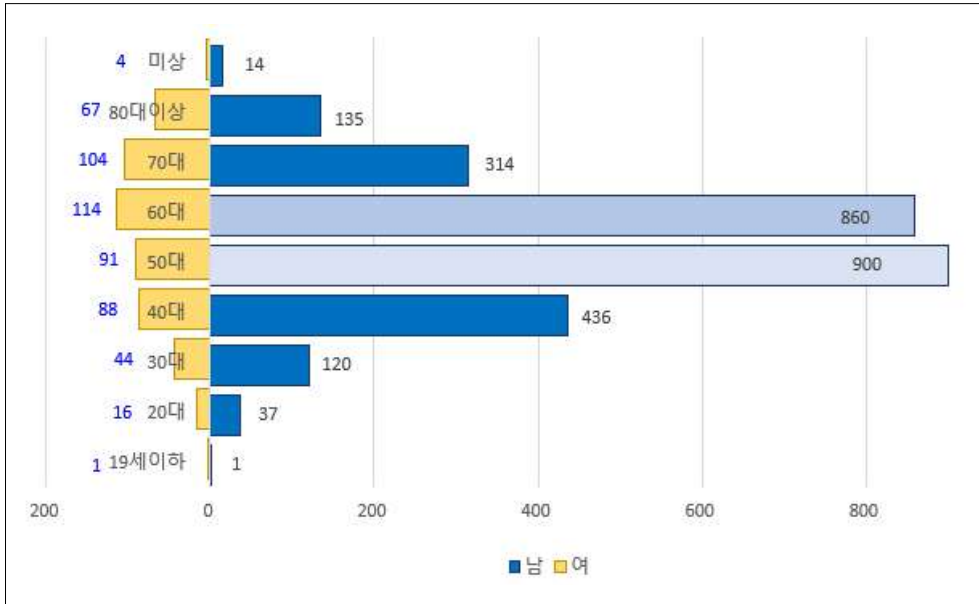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령별	남		여		성별 미상*		계			
	(명)	(%)	(명)	(%)	(명)	(%)	(명)	(%)	인구 십만명당	사망자수 대비
0~19세	1	0.0	1	0.2	0	0.0	2	0.1	0.0	0.1
20~29세	37	1.3	16	3.0	0	0.0	53	1.6	0.8	1.9
30~39세	120	4.3	44	8.3	0	0.0	164	4.9	2.4	3.6
40~49세	436	15.5	88	16.6	2	6.3	526	15.6	6.5	4.7
50~59세	900	31.9	91	17.2	10	31.3	1,001	29.6	11.7	3.9
60~69세	860	30.5	114	21.6	7	21.9	981	29.0	14.3	2.2
70~79세	314	11.1	104	19.7	3	9.4	421	12.5	11.5	0.6
80세이상	135	4.8	67	12.7	1	3.1	203	6.0	10.0	0.1
연령미상*	14	0.5	4	0.8	9	28.1	27	0.8	-	-
계	2,817	100.0	529	100.0	32	100.0	3,378	100.0	6.6	1.1

주: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성별·연령미상: 변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청 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자료: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1]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현황: 2021년

(단위: 명)



□ 2021년의 지역별 고독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고독사 사망자 수는 경기(713명), 서울(619명)이 높음.
- 고독사 사망자의 절대적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와 서울이지만, 이를 인구와 사망자 수 대비로 표준화하면 부산, 대전, 인천에서 높음
  - 인구 십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부산(9.8명), 대전(8.8명)이 높음.
  -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는 대전(1.6%), 인천(1.5%)이 높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고독사 발생 원인을 추가적인 심층분석을 통하여 더욱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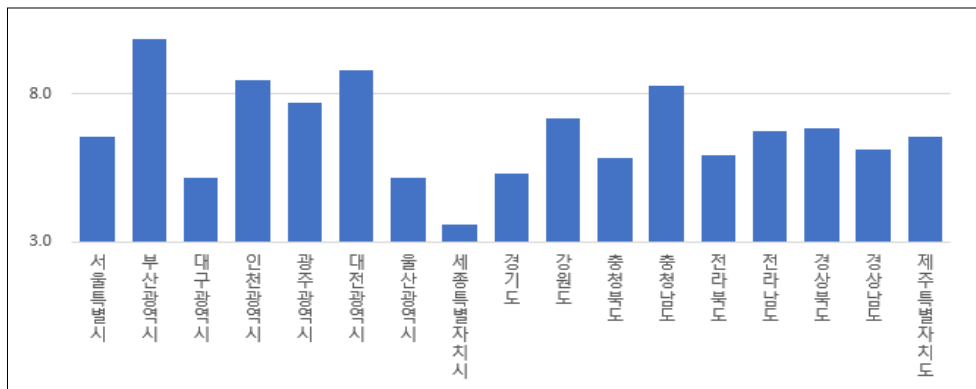
〈표 2-5〉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단위: 명, %)

지역별	고독사 사망자 수		인구십만 명당(명)	사망자수대비(%)
	(명)	(%)		
서울특별시	619	18.3	6.5	1.3
부산광역시	329	9.7	9.8	1.4
대구광역시	124	3.7	5.2	0.9
인천광역시	248	7.3	8.5	1.5
광주광역시	111	3.3	7.7	1.4
대전광역시	128	3.8	8.8	1.6
울산광역시	58	1.7	5.2	1.1
세종특별자치시	13	0.4	3.6	1.0
경기도	713	21.1	5.3	1.1
강원도	110	3.3	7.2	0.9
충청북도	93	2.8	5.8	0.8
충청남도	175	5.2	8.3	1.1
전라북도	106	3.1	5.9	0.7
전라남도	124	3.7	6.8	0.7
경상북도	180	5.3	6.9	0.8
경상남도	203	6.0	6.1	0.9
제주특별자치도	44	1.3	6.6	1.0
계	3,378	100.0	6.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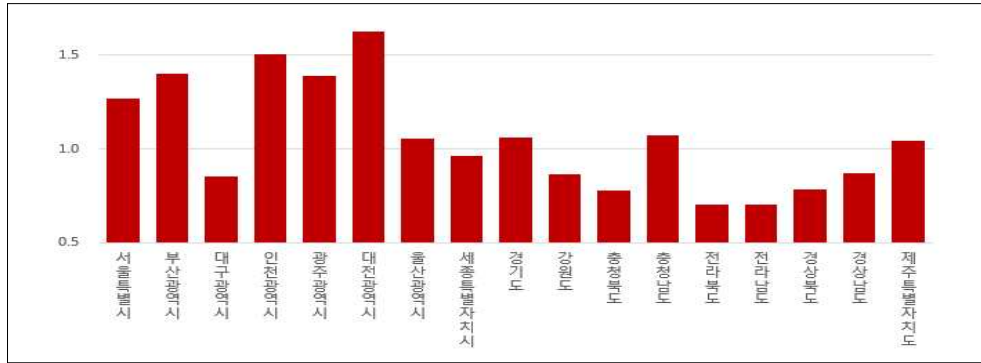
〔그림 2-2〕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인구 십만명당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



[그림 2-3] 지역별 고독사 현황: 2021년, 사망자수 대비(%)

(단위: %)



□ 2021년의 17개 시도별·연령대별로 고독사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의 50대 연령대에서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22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60대 204명, 서울 60대 171명, 서울 50대 167명 등의 순으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높았음.

〈표 2-6〉 시도별·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수 현황: 2021년

(단위: 명)

지역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연령 미상*	합계
서울특별시	1	14	33	96	167	171	89	45	3	619
부산광역시	0	4	13	31	93	108	50	30	0	329
대구광역시	0	1	3	20	39	31	16	13	1	124
인천광역시	0	3	13	43	85	71	28	4	1	248
광주광역시	0	1	9	19	36	30	11	4	1	111
대전광역시	0	6	11	15	32	40	16	8	0	128
울산광역시	0	0	1	7	18	25	5	2	0	58
세종시	0	0	0	1	7	2	1	2	0	13
경기도	0	13	39	114	221	204	83	36	3	713
강원도	0	2	2	18	32	38	14	3	1	110
충청북도	0	2	3	15	28	24	13	7	1	93
충청남도	0	2	10	33	50	44	20	14	2	175
전라북도	1	1	5	29	24	32	12	2	0	106
전라남도	0	0	6	14	38	38	16	7	5	124
경상북도	0	3	12	32	50	53	19	10	1	180
경상남도	0	1	3	32	67	60	25	13	2	203
제주도	0	0	1	7	14	10	3	3	6	44
전국	2	53	164	526	1,001	981	421	203	27	3,378

주: \*연령미상: 번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청 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2021년의 17개 시도별로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국의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 분포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대 또는 60대에서 고독사 사망자 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50대 고독사 사망자 수의 비중이 29.6%임에 비해,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전국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전국 70대의 고독사 사망자 수의 비중이 12.5%임에 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의 고독사 사망자 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의 경우,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어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고독사 발생이 타 지역에 비해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2-7〉 시도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단위: %)

지역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연령미상	합계
서울특별시	0.2	2.3	5.3	15.5	27.0	27.6	14.4	7.3	0.5	100.0
부산광역시	0.0	1.2	4.0	9.4	28.3	32.8	15.2	9.1	0.0	100.0
대구광역시	0.0	0.8	2.4	16.1	31.5	25.0	12.9	10.5	0.8	100.0
인천광역시	0.0	1.2	5.2	17.3	34.3	28.6	11.3	1.6	0.4	100.0
광주광역시	0.0	0.9	8.1	17.1	32.4	27.0	9.9	3.6	0.9	100.0
대전광역시	0.0	4.7	8.6	11.7	25.0	31.3	12.5	6.3	0.0	100.0
울산광역시	0.0	0.0	1.7	12.1	31.0	43.1	8.6	3.4	0.0	100.0
세종시	0.0	0.0	0.0	7.7	53.8	15.4	7.7	15.4	0.0	100.0
경기도	0.0	1.8	5.5	16.0	31.0	28.6	11.6	5.0	0.4	100.0
강원도	0.0	1.8	1.8	16.4	29.1	34.5	12.7	2.7	0.9	100.0
충청북도	0.0	2.2	3.2	16.1	30.1	25.8	14.0	7.5	1.1	100.0
충청남도	0.0	1.1	5.7	18.9	28.6	25.1	11.4	8.0	1.1	100.0
전라북도	0.9	0.9	4.7	27.4	22.6	30.2	11.3	1.9	0.0	100.0
전라남도	0.0	0.0	4.8	11.3	30.6	30.6	12.9	5.6	4.0	100.0
경상북도	0.0	1.7	6.7	17.8	27.8	29.4	10.6	5.6	0.6	100.0
경상남도	0.0	0.5	1.5	15.8	33.0	29.6	12.3	6.4	1.0	100.0
제주도	0.0	0.0	2.3	15.9	31.8	22.7	6.8	6.8	13.6	100.0
<b>전국</b>	<b>0.1</b>	<b>1.6</b>	<b>4.9</b>	<b>15.6</b>	<b>29.6</b>	<b>29.0</b>	<b>12.5</b>	<b>6.0</b>	<b>0.8</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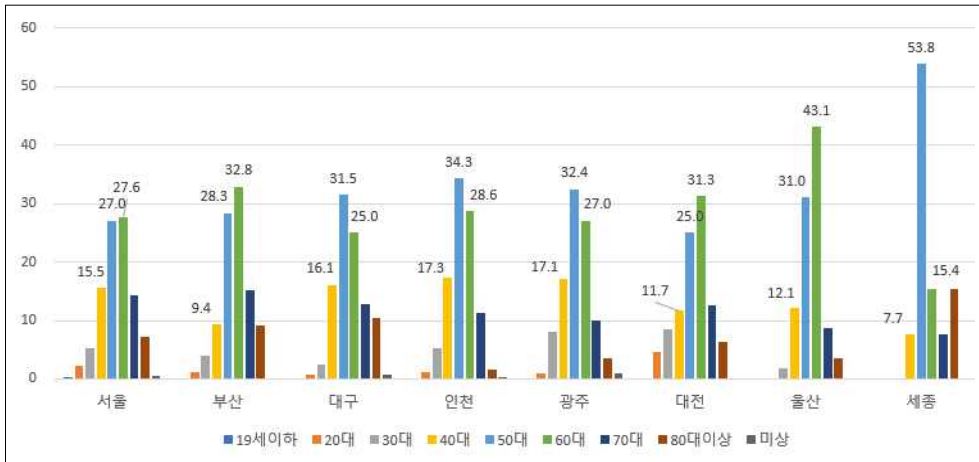
□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 수의 분포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연령대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특·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특·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연령대별로 고독사 사망자 수의 분포에서 큰 차이점은 없었음.

- 다만, 타 지역과는 달리 전북지역에서 40대 고독사 사망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분포를 보면, 60대 30.2% → 40대 27.4% → 50대 22.6%의 순이었음.

〈표 2-8〉 특광역시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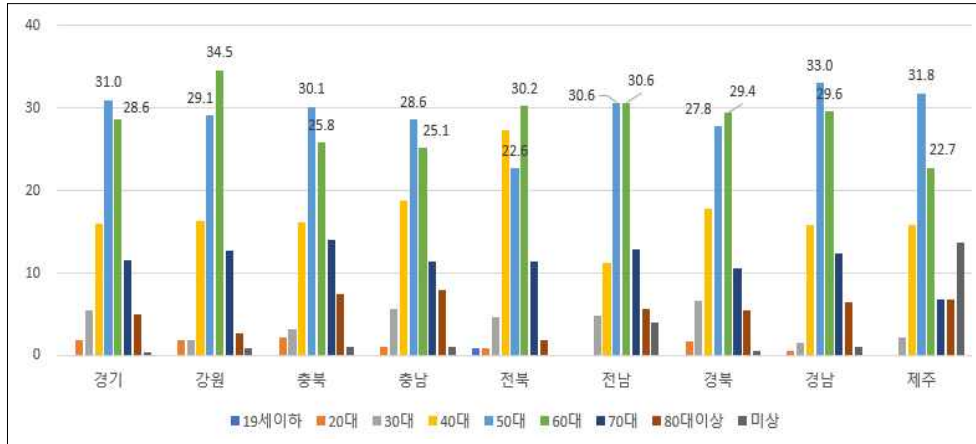
(단위: %)



주: 40대(노란색), 50대(파란색), 60대(녹색)의 경우에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 값을 기재함.

〈표 2-9〉 도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단위: %)



주: 50대(파란색), 60대(녹색)의 경우에 연령대별 고독사 비중 값을 기재함.

□ 고독사 발생 장소 현황

○ 고독사 발생 장소는 주택 50.3%, 아파트 22.3%를 차지하지만,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원룸 13.0%, 고시원 2.3%에서도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함. 또한 여관·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경우에도 3.6%의 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발생 장소별 고독사 현황: 2021년

(단위: 명, %)

발생장소	주택	아파트	원룸	여관·모텔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계
0~19세	1	0	1	0	0	0	0	2
20~29세	18	7	14	1	6	1	6	53
30~39세	61	27	37	6	15	3	15	164
40~49세	235	93	103	23	29	17	26	526
50~59세	509	165	164	54	30	33	46	1,001
60~69세	535	242	87	28	16	15	58	981
70~79세	217	138	24	10	2	7	23	421
80세이상	106	77	8	1	3	2	6	203
연령미상	17	3	1	0	0	0	6	27
계(명)	1,699	752	439	123	101	78	186	3,378
비중(%)	50.3	22.3	13.0	3.6	3.0	2.3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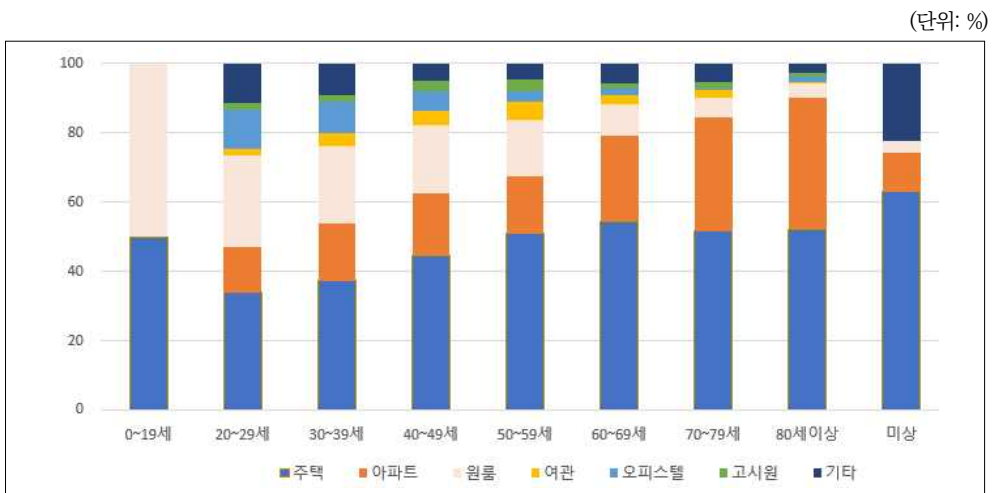
주: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등), 원룸(옥탑방 포함), 여관(모텔포함), 기타(기숙사, 컨테이너, 폐가, 영업용 건물내 숙소, 쪽방, 경찰청 자료에 발생장소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포함)  
경찰청 자료에서 고시원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

□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장소 현황

○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전체 중에 약 5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50대와 60대의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20대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고시원, 원룸의 주거 취약지역에서의 고독사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자 신고 등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고독사 발굴 정책이 필요

〈표 2-11〉 발생장소별·연령별 고독사 현황: 2021년



주: 미상(연령): 변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청 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현황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22.4%), 임대인(21.9%), 이웃주민(16.6%), 지인(13.6%) 등의 순으로 발견 또는 최초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택배기사, 경비원, 직장동료, 요양보호사 등에 의해 발견 또는 신고됨.

○ 형제·자매 또는 기타 직계혈족을 제외하면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임대인 또는 이웃주민에 의한 고독사 사망자의 발견 비중이 높아, 소규모 생활터를 기반으로 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필요함.

〈표 2-12〉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현황: 2021년

(단위: 명, %)

최초 발견(신고)자	(명)	(%)
형제·자매	758	22.4
임대인	740	21.9
이웃주민	560	16.6
지인	460	13.6
직계혈족	287	8.5
택배기사	159	4.7
친인척	95	2.8
경비원	84	2.5
직장동료	64	1.9
요양보호사	62	1.8
이·통장	44	1.3
미상*	65	1.9
계	3,378	100.0

주: 지인(선후배, 전처, 친구 등 포함), 택배기사(우편, 가스, 수도 기사 등 포함), 경비원(관리직원 등 포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포함)

\*미상은 경찰청 자료에 최초 발견(신고)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고독사 중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 현황

○ 고독사 중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는 571명으로, 전체 고독사 중에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은 1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3〉 고독사 중 연령별 자살 사망자 수 현황: 2021년

(단위: 명, %)

연령별	자살 고독사 사망자 수(A)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비중**	고독사 전체(B)
	(명)	(%)		
0~19세	2	0.4	100.0	2
20~29세	30	5.3	56.6	53
30~39세	66	11.6	40.2	164
40~49세	137	24.0	26.0	526
50~59세	169	29.6	16.9	1,001
60~69세	105	18.4	10.7	981
70~79세	43	7.5	10.2	421
80세이상	14	2.5	6.9	203
연령미상*	5	0.9	18.5	27
계	571	100.0	-	3,378
고독사 전체 대비 비중(%)	-	-	16.9	-

주: \*연령 미상은 번사자의 부패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비중(%)=(연령별 자살에 의한 고독사 사망자 수(A)/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B))×100

## □ 동일 연령대 대비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사망 현황

- 10대의 고독사(2명)는 모두 자살에 의한 고독사로 나타났으며, 20대 연령대에서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이 56.6%, 30대 연령대에서는 40.2%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독사 중에 자살로 인한 고독사 발생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청년층을 중심으로 단일 사인인 자살로 인한 고독사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독사 예방은 물리적 고립뿐 아니라 정신적 고립, 우울감 등과 관련한 예방대책과 더불어, 정신·심리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지역자원 연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표 2-14〉 동일 연령대 대비 자살 사망 고독사 비중: 2021년

(단위: %)

연령별	동일 연령대 대비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비중(A)*	인구 전체 자살사망자(B)	고독사 자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C)
0~19세	100.0	339	2	0.6
20~29세	56.6	1,579	30	1.9
30~39세	40.2	1,842	66	3.6
40~49세	26.0	2,298	137	6.0
50~59세	16.9	2,569	169	6.6
60~69세	10.7	1,951	105	5.4
70~79세	10.2	1,535	43	2.8
80세이상	6.9	1,239	14	1.1
전체	16.9	13,352	571 <sup>†</sup>	4.3

주: A=(해당 연령대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 수/해당 연령대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연령미상인 자살사망자 5명을 제외하고 566명에 대해 산출함.

B=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자살 사망자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인출(사망원인통계, 2023.2.11.)

C=(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수/B)×100

†: 연령미상 5명이 포함된 수치임.

### 제3절 2017년~2021년 동안의 고독사 추이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추이에 대한 개관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경찰청 변사사건 현장 감식 자료 약 24만건을 분석한 결과, 고독사 사망자 수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증가 추이를 보임.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
    - 2018년은 고독사를 포함하여 변사자 사망자 수, 인구 전체의 사망자 수가 2018년 전후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가 나타나, 2018년 대비 2019년에 다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남.

〈표 2-15〉 연도별 고독사 사망자 수 추이: 2017년~2021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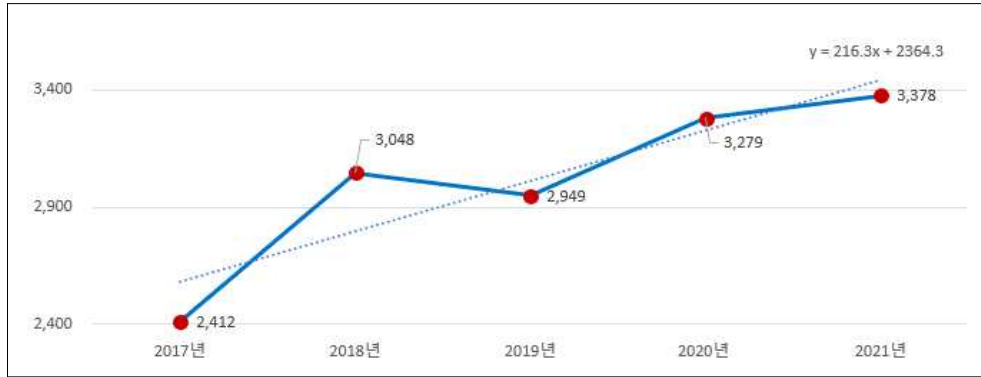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고독사 사망자	2,412	3,048	2,949	3,279	3,378
경찰청 변사사건 수	43,522	46,844	45,832	50,410	52,981
인구 전체의 사망자 수*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자료: \*통계청, 2021년 사망원인통계

- 고독사 사망자 수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고독사 발생자 수가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으로, 2019년 이후에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함.
    - 2018년의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은 고독사를 포함하여 변사자 사망자 수, 인구 전체의 사망자 수가 2018년 전후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기저효과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인구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 사망자 수 비중으로 보더라도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고독사 사망자 수가 증가함.

[그림 2-4] 고독사 사망자 수 추이: 2017~2021년

(단위: 명)



〈표 2-16〉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고독사 발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십만명당(명)	4.7	5.9	5.7	6.4	6.6
인구전체 사망자 대비(%)	0.8	1.0	1.0	1.1	1.1
고독사 사망자 수(명)	2,412	3,048	2,949	3,279	3,378

주: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자료: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발생한 고독사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음.

○ 5년간 고독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이며, 남성의 경우 연평균 10.0%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6%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2-17〉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성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연평균증가율
남	1,923	2,450	2,331	2,622	2,817	10.0
여	426	515	519	562	529	5.6
성별 미상	63	83	99	95	32	-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8.8

주: 성별 미상은 변사자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임.  
자료: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고독사 사망자의 2017년부터 2021년 동안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보면, 60대에서 18.5%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80대 이상에서 14.1%의 증가율을 보임.

○ 고독사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50~60대로, 매년 전체 고독사 중에 52.8%~60.1%를 차지함.

○ 전체 고독사 중에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8.4%임.

〈표 2-18〉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연령대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명)	%	(명)	%	(명)	%	(명)	%	(명)	%	
0~19세	1	0.0	1	0.0	1	0.0	0	0.0	2	0.1	-
20~29세	54	2.2	53	1.7	54	1.8	47	1.4	53	1.6	-0.5
30~39세	149	6.2	186	6.1	164	5.6	159	4.8	164	4.9	2.4
40~49세	435	18.0	470	15.4	520	17.6	475	14.5	526	15.6	4.9
50~59세	776	32.2	922	30.2	885	30.0	1,047	31.9	1,001	29.6	6.6
60~69세	497	20.6	746	24.5	702	23.8	924	28.2	981	29.0	18.5
70~79세	278	11.5	387	12.7	376	12.8	384	11.7	421	12.5	10.9
80세이상	120	5.0	177	5.8	179	6.1	210	6.4	203	6.0	14.1
미상	102	4.2	106	3.5	68	2.3	33	1.0	27	0.8	-
계	2,412	100	3,048	100	2,949	100	3,279	100	3,378	100	8.8

주: 연령 미상은 변사자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최근 5년간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발생한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수는 2017년보다 1.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2017년보다 60대에서 5.2명이 증가하였고, 70대에서 3.0명이, 50대에서 2.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최근 5년간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인구십만명당, 명)

연령대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5년간 차이 (‘21년-’17년)
0~19세	0.0	0.0	0.0	0.0	0.0	0.0
20~29세	0.8	0.8	0.8	0.7	0.8	0.0
30~39세	2.0	2.6	2.3	2.3	2.4	0.4
40~49세	5.0	5.5	6.2	5.8	6.5	1.5
50~59세	9.3	10.9	10.4	12.3	11.7	2.4
60~69세	9.1	13.0	11.6	14.3	14.3	5.2
70~79세	8.5	11.4	10.7	10.7	11.5	3.0
80세이상	7.8	10.8	10.1	11.1	10.0	2.2
전체	4.7	5.9	5.7	6.4	6.6	1.9

주: 연령미상은 제외함. 연령 미상은 변호사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수 대비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21년에 발생한 고독사 비중은 40대에서 2017년보다 1.3%p 상승하여 가장 많이 증가함.

〈표 2-20〉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현황: 2017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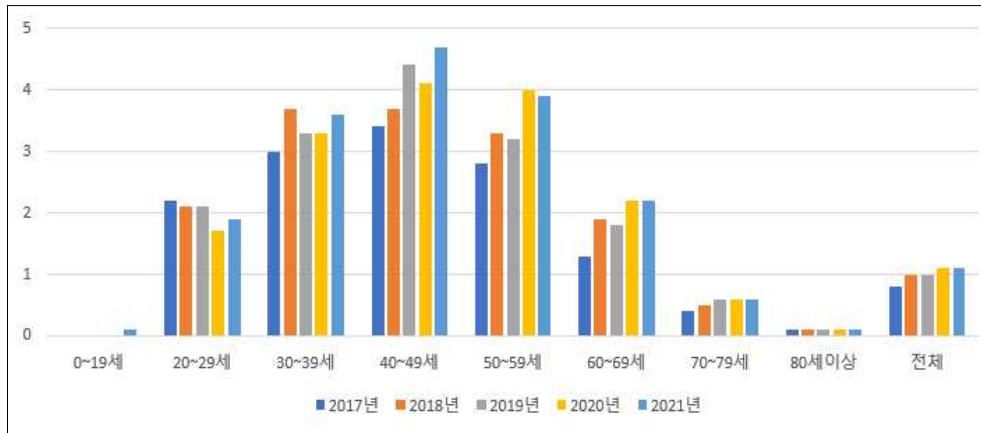
(단위: %, %p)

연령대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5년간 차이 (‘21년-’17년)
0~19세	0.0	0.0	0.0	0.0	0.1	0.1
20~29세	2.2	2.1	2.1	1.7	1.9	-0.3
30~39세	3.0	3.7	3.3	3.3	3.6	0.6
40~49세	3.4	3.7	4.4	4.1	4.7	1.3
50~59세	2.8	3.3	3.2	4.0	3.9	1.1
60~69세	1.3	1.9	1.8	2.2	2.2	0.9
70~79세	0.4	0.5	0.6	0.6	0.6	0.2
80세이상	0.1	0.1	0.1	0.1	0.1	0.0
전체	0.8	1.0	1.0	1.1	1.1	0.3

주: 연령미상은 제외함. 연령 미상은 변호사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그림 2-5]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수 대비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 추이: 2017년~2021년

(단위: 전체 사망자수 대비 비중, %)



□ 고독사 발생 현황을 성별·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표에 제시함.

○ 남성의 경우 80대 이상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3.0%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0.1%임.

○ 여성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11.4%)이며, 그 다음으로 40대에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8.7%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이 각각 (-)2.9%, (-)2.7%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1〉 최근 5년간 성별·연령대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연령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연평균 증감율
남	0~19세	0	0	1	0	1	-
	20~29세	35	36	33	20	37	1.4
	30~39세	98	135	112	103	120	5.2
	40~49세	362	405	408	378	436	4.8
	50~59세	679	808	769	894	900	7.3
	60~69세	413	631	587	796	860	20.1
	70~79세	196	259	276	285	314	12.5
	80세이상	59	96	102	132	135	23.0
	미상	81	80	43	14	14	-
	계	1,923	2,450	2,331	2,622	2,817	10.0
여	0~19세	1	1	0	0	1	-
	20~29세	18	16	18	26	16	-2.9
	30~39세	49	48	50	54	44	-2.7
	40~49세	63	52	96	86	88	8.7
	50~59세	71	97	92	124	91	6.4
	60~69세	74	87	92	104	114	11.4
	70~79세	77	116	89	88	104	7.8
	80세이상	60	78	70	73	67	2.8
	미상	13	20	12	7	4	-
	계	426	515	519	562	529	5.6
미상	0~19세	0	0	0	0	0	-
	20~29세	1	1	3	1	0	-
	30~39세	2	3	2	2	0	-
	40~49세	10	13	16	11	2	-
	50~59세	26	17	24	29	10	-
	60~69세	10	28	23	24	7	-
	70~79세	5	12	11	11	3	-
	80세이상	1	3	7	5	1	-
	미상	8	6	13	12	9	-
	계	63	83	99	95	32	-

주: 성·연령 미상은 변사자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를 누적 합계하여 지역별로 고독사 발생 현황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함.

○ 최근 5년간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3,185명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 경남 1,08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그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23.0%, 강원도 13.2%, 전남 12.7%, 인천 11.9%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생자 수가 12명으로 높지 않다가 2021년에 44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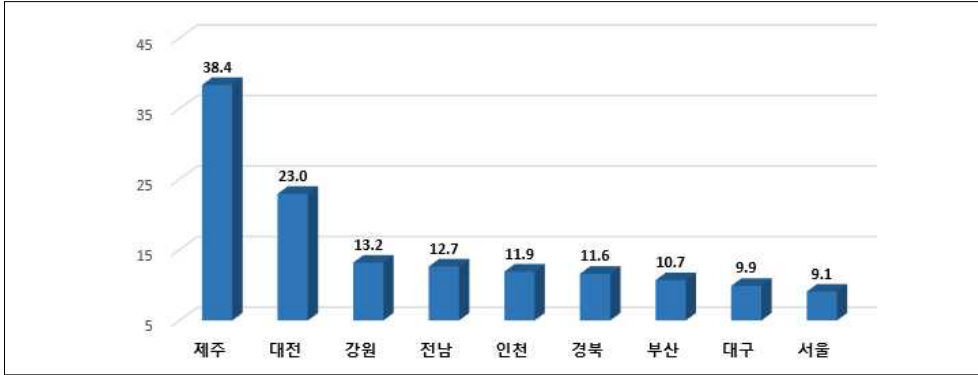
〈표 2-22〉 최근 5년간 지역별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누적합계	연평균 증가율
서울특별시	437	595	526	571	619	2,748	9.1
부산광역시	219	291	254	315	329	1,408	10.7
대구광역시	85	117	105	125	124	556	9.9
인천광역시	158	220	190	248	248	1,064	11.9
광주광역시	105	104	113	118	111	551	1.4
대전광역시	56	95	113	120	128	512	23.0
울산광역시	54	55	42	59	58	268	1.8
세종특별자치시	10	8	11	12	13	54	6.8
경기도	512	632	650	678	713	3,185	8.6
강원도	67	90	102	98	110	467	13.2
충청북도	67	97	70	98	93	425	8.5
충청남도	151	151	167	193	175	837	3.8
전라북도	87	125	112	143	106	573	5.1
전라남도	77	87	101	114	124	503	12.7
경상북도	116	155	141	135	180	727	11.6
경상남도	199	214	240	225	203	1,081	0.5
제주특별자치도	12	12	12	27	44	107	38.4
계	2,412	3,048	2,949	3,279	3,378	15,066	8.8

[그림 2-6]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2017년~2021년

(단위: %)



주: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임.

- 최근 5년간 인구 십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으로 나타남.
- 인구 십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지역은 대전, 경기, 전남으로 분석됨.
- 2021년 인구 십만명당 고독사 발생이 전년대비 감소한 지역은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의 6개 지역으로 나타남.

〈표 2-23〉 최근 5년간 지역별 인구십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기준 전년대비 증감
서울특별시	4.5	6.2	5.5	6.0	6.5	0.56
<b>부산광역시</b>	<b>6.4</b>	<b>8.5</b>	<b>7.5</b>	<b>9.4</b>	<b>9.8</b>	0.48
대구광역시	3.5	4.8	4.3	5.2	5.2	0.01
<b>인천광역시</b>	<b>5.4</b>	<b>7.5</b>	<b>6.5</b>	<b>8.5</b>	<b>8.5</b>	0.00
<b>광주광역시</b>	<b>7.2</b>	<b>7.2</b>	<b>7.8</b>	<b>8.2</b>	<b>7.7</b>	-0.45
대전광역시	3.7	6.4	7.7	8.2	8.8	0.61
울산광역시	4.6	4.8	3.7	5.2	5.2	-0.03
세종특별자치시	3.8	2.7	3.4	3.5	3.6	0.12
<b>경기도</b>	<b>4.0</b>	<b>4.9</b>	<b>5.0</b>	<b>5.1</b>	<b>5.3</b>	0.19
강원도	4.4	5.9	6.7	6.4	7.2	0.78
충청북도	4.2	6.1	4.4	6.2	5.8	-0.32
<b>충청남도</b>	<b>7.2</b>	<b>7.2</b>	<b>7.9</b>	<b>9.2</b>	<b>8.3</b>	-0.86
전라북도	4.7	6.8	6.2	7.9	5.9	-2.01
<b>전라남도</b>	<b>4.1</b>	<b>4.6</b>	<b>5.4</b>	<b>6.2</b>	<b>6.8</b>	0.60
경상북도	4.3	5.8	5.3	5.1	6.9	1.75
경상남도	5.9	6.4	7.2	6.8	6.1	-0.62
제주특별자치도	1.9	1.8	1.8	4.0	6.6	2.51
전국 평균	4.7	5.9	5.7	6.4	6.6	0.19

□ 최근 5년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매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의 4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지역은 대전과 경기의 2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4〉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특별시	1.0	1.3	1.2	1.3	1.3
부산광역시	1.0	1.3	1.1	1.4	1.4
대구광역시	0.6	0.8	0.8	0.9	0.9
인천광역시	1.1	1.4	1.3	1.6	1.5
광주광역시	1.4	1.3	1.5	1.5	1.4
대전광역시	0.8	1.3	1.5	1.6	1.6
울산광역시	1.1	1.0	0.8	1.1	1.1
세종특별자치시	0.9	0.6	0.9	0.9	1.0
경기도	0.9	1.1	1.1	1.1	1.1
강원도	0.6	0.8	0.9	0.8	0.9
충청북도	0.6	0.9	0.6	0.8	0.8
충청남도	1.0	1.0	1.1	1.2	1.1
전라북도	0.6	0.9	0.8	1.0	0.7
전라남도	0.5	0.5	0.6	0.7	0.7
경상북도	0.5	0.7	0.6	0.6	0.8
경상남도	0.9	0.9	1.1	1.0	0.9
제주특별자치도	0.3	0.3	0.3	0.7	1.0
전국 평균	0.8	1.0	1.0	1.1	1.1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 아파트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인 것으로 나타남.

○ 원룸, 고시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2-25〉 최근 5년간 고독사 발생 장소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명)	(%)	(명)	(%)	(명)	(%)	(명)	(%)	(명)	(%)
주택	1,344	55.7	1,658	54.4	1,848	62.7	2,131	65.0	1,699	50.3
아파트	480	19.9	665	21.8	650	22.0	771	23.5	752	22.3
원룸	390	16.2	463	15.2	120	4.1	118	3.6	439	13.0
여관	128	5.3	128	4.2	112	3.8	63	1.9	123	3.6
오피스텔	54	2.2	79	2.6	91	3.1	13	0.4	101	3.0
고시원	0	0.0	0	0.0	9	0.3	62	1.9	78	2.3
기타	16	0.7	55	1.8	119	4.0	121	3.7	186	5.5
계	2,412	100.0	3,048	100.0	2,949	100.0	3,279	100.0	3,378	100.0

주: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빌라 등), 원룸(옥탑방 포함), 여관(모텔포함), 기타(기숙사, 컨테이너, 폐가, 영업용 건물내 숙소, 쪽방, 경찰청 자료에 발생장소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아 분류할 수 없는 경우 포함). 경찰청 자료에서 고시원은 2019년부터 별도 분류.

□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발견(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웃주민 또는 방문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 경비원 등 지역 인력 자원으로 활용하여 상시적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26〉 최근 5년간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 현황: 2017년~2021년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명)	(%)	(명)	(%)	(명)	(%)	(명)	(%)	(명)	(%)
형제·자매	572	23.7	681	22.3	727	24.7	801	24.4	758	22.4
임대인	532	22.1	661	21.7	618	21.0	727	22.2	740	21.9
이웃주민	398	16.5	471	15.5	456	15.5	527	16.1	560	16.6
지인	291	12.1	392	12.9	362	12.3	417	12.7	460	13.6
직계혈족	210	8.7	295	9.7	249	8.4	243	7.4	287	8.5
택배기사	81	3.4	113	3.7	144	4.9	139	4.2	159	4.7
친인척	63	2.6	95	3.1	85	2.9	97	3.0	95	2.8
경비원	46	1.9	67	2.2	70	2.4	64	2.0	84	2.5
직장동료	65	2.7	57	1.9	63	2.1	59	1.8	64	1.9
요양보호사	41	1.7	60	2.0	63	2.1	56	1.7	62	1.8
아·통장	19	0.8	40	1.3	26	0.9	41	1.3	44	1.3
미상*	94	3.9	116	3.8	86	2.9	108	3.3	65	1.9
계	2,412	100.0	3,048	100.0	2,949	100.0	3,279	100.0	3,378	100.0

주: 지인(선후배, 전처, 친구 등 포함), 택배기사(우편, 가스, 수도 기사 등 포함), 경비원(관리직원 등 포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포함)

\*미상은 경찰청 자료에 최초 발견(신고)자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고독사 발생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살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2017년 463명, 2018년 567명, 2019년 576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541명으로 감소, 2021년 571명으로 다시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5.4%인 것으로 나타남.

○ 30대에서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70명, 2018년 85명에서 2019년에는 63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69명, 2021년 66명으로 증가 폭이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율은 (-)1.5%임.

○ 50대에서 최근 5년간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1.3%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70대와 80대에서 최근 5년간 자살로 인한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12.3%, 18.9%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27〉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 수: 2017년~2021년

(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간 연평균 증감율	5년간 누적 합계
0~19세	1	1	1	0	2	18.9	5
20~29세	32	29	29	28	30	-1.6	148
30~39세	70	85	63	69	66	-1.5	353
40~49세	116	120	156	122	137	4.2	651
50~59세	110	159	151	172	169	11.3	761
60~69세	81	95	110	104	105	6.7	495
70~79세	27	38	39	30	43	12.3	177
80세이상	7	19	13	8	14	18.9	61
연령미상	19	21	14	8	5	-	67
계	463	567	576	541	571	5.4	2,718

□ 전체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고독사 현황

- 전체 고독사 중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은 2017년에 19.2%, 2018년에 18.6%, 2019년 19.5%로 증가하다가, 2020년 16.5%, 2021년 16.9%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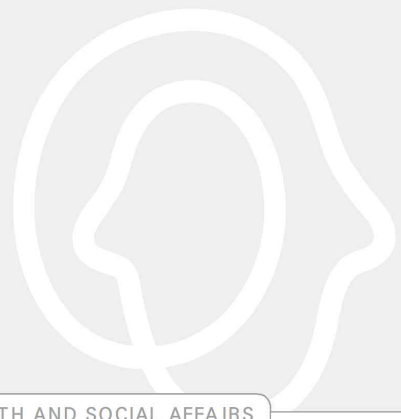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표 2-28〉 최근 5년간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 2017년~2021년

(단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0~19세	100.0	100.0	100.0	-	100.0
20~29세	59.3	54.7	53.7	59.6	56.6
30~39세	47.0	45.7	38.4	43.4	40.2
40~49세	26.7	25.5	30.0	25.7	26.0
50~59세	14.2	17.2	17.1	16.4	16.9
60~69세	16.3	12.7	15.7	11.3	10.7
70~79세	9.7	9.8	10.4	7.8	10.2
80세이상	5.8	10.7	7.3	3.8	6.9
연령미상	18.6	19.8	20.6	24.2	18.5
전체	19.2	18.6	19.5	16.5	16.9

주: 연령 미상은 변호사의 부패가 심각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현장감식자료에 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





## 제3장

### 고독사 사망 전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제1절 고독사 사망 전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제2절 고독사 사망 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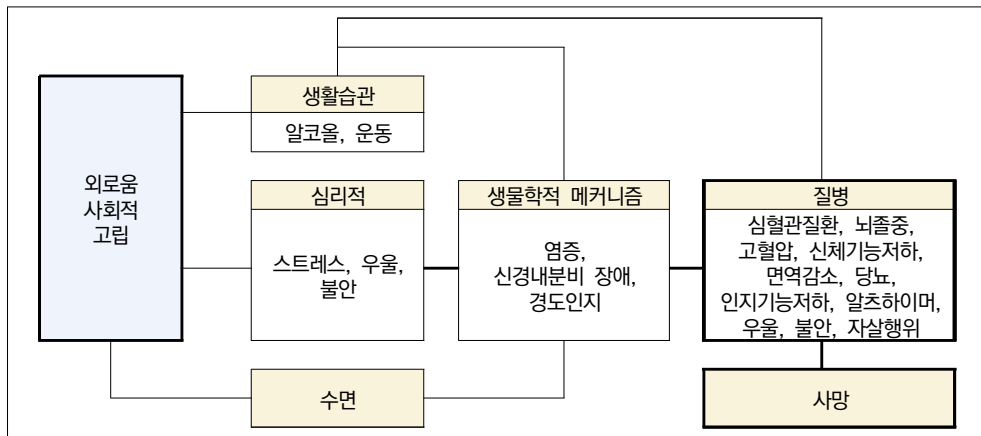
## 고독사 사망 전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제1절 고독사 사망 전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과 건강의 관계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질환, 뇌졸중, 고혈압, 신체기능저하, 면역감소, 당뇨, 인지기능저하, 알츠하이머, 우울, 불안, 자살행위 등의 질병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외로움은 모든 원인이 되는 사망(all-cause mortality) 위험을 22%~25% 증가시킴(Rico-Uribe et al., 2018; Holt-Lunstad et al., 2015).
- 60세 이상 노인층의 외로움은 모든 원인의 사망률을 45% 증가시키게 됨 (Perissinotto et al., 2012)

[그림 3-1] 외로움이 질병 및 사망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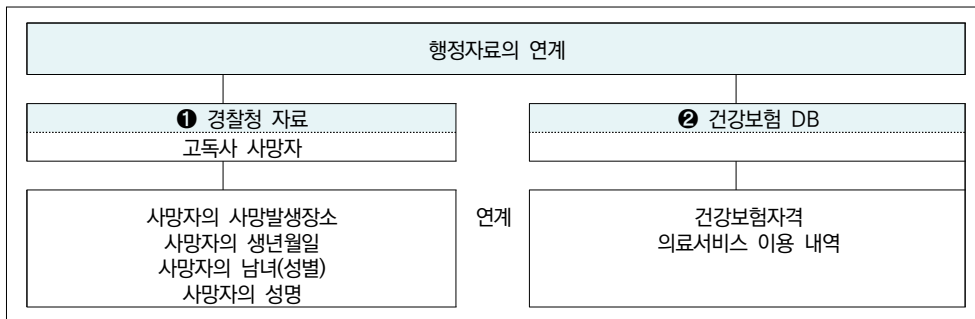
자료: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 2.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의 사망전 건강수준 및 의료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여 고독사 사망자를 추출하였고,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발생장소, 생년월일, 성별, 성명을 연계변수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DB와 연계함.
- 경찰청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변수를 기준하여 연계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고독사 사망자가 모두 연계되지는 못한 제한점을 지니고 있음.
  - 행정망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사망자의 사망발생지역)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자료가 연계되지 못한 사례도 있음.
  - 또한, 경찰청 자료가 변사자의 현장 감식 당시에 대한 기록이므로, 시신의 부패로 인하여 또는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 생년월일, 성명 등이 기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자료가 연계되지 못함.

[그림 3-2] 고독사 사망전 의료서비스 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 방법



□ 분석자료

- 고독사 사망자의 연계 변수(거주지, 생년월일, 성별, 성명)를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와 연계하여 분석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에서 등록된 2019년~2021년의 3년간 사망자 명단과 고독사 사망자 명단을 연계하고, 연계된 사망자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건강보험 자격현황과 의료이용내역을 분석함.
  - 건강보험DB 이용자료: 자격 및 보험료 DB, 의료이용 DB
- 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를 제외하고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직전 1년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분석함.
  -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3,028명을 대상(연계율 89.6%)으로 분석함.
  - 2020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2,960명을 대상(연계율 90.3%)으로 분석함.
  - 2019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2,607명을 대상(연계율 88.4%)으로 분석함.

〈표 2-29〉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보험DB와의 미연계율: 2019년~2021년

(단위: 명, %)

연계유무	2019년		2020년		2021년	
	(명)	(%)	(명)	(%)	(명)	(%)
연계	2,607	88.4	2,960	90.3	3,028	89.6
미연계	342	11.6	319	9.7	350	10.4
고독사 사망자 수	2,949	100.0	3,279	100.0	3,378	100.0

### 3. 분석 결과

#### 가. 2021년 고독사 발생 이전의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 분석 대상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3,0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인 350명을 제외함.
  -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 건강보험 DB와 연계된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027명(성별 미상인 1명은 표에서 제외)이며, 이 중에서 남성 2,551명, 여성이 476명임.

〈표 3-1〉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19세이하	1	0.0	1	0.2	2	0.1
20대	32	1.3	15	3.2	47	1.6
30대	106	4.2	40	8.4	146	4.8
40대	379	14.9	76	16.0	455	15.0
50대	806	31.6	79	16.6	885	29.2
60대	758	29.7	95	20.0	853	28.2
70대	282	11.1	98	20.6	380	12.6
80대이상	121	4.7	62	13.0	183	6.0
연령미상	66	2.6	10	2.1	76	2.5
계	2,551	100.0	476	100.0	3,027	100.0

주: \*2021년 고독사는 3,378명이나 자료 미연계 고독사 사망자인 350명(미연계를 10.4%)을 제외하고 분석함.  
 분석대상자는 전체 3,028명이나, 성별 미상인 1명은 표에서 제외함.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급여자는 30.1%, 건강보험 가입자는 67.4%이었음.

○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은 경제활동 여부 및 방식을 나타냄으로써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경제적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자는 911명으로 전체의 30.1%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2,040명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함.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593명(19.6%), 지역가입자는 1,447명(47.8%)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 정도는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표 3-2〉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21년 기준

(단위: %, 명)

연령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미상	계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19세이하	0.0	0.1	0.0	0.0	0.0	0.0	-	0.1
20대	0.2	0.6	0.5	0.2	0.0	0.0	-	1.6
30대	0.7	0.2	2.7	0.8	0.4	0.0	-	4.8
40대	2.0	0.5	8.2	1.5	2.8	0.1	-	15.0
50대	2.5	1.3	14.0	1.4	9.8	0.2	-	29.2
60대	1.5	3.4	11.4	1.0	10.7	0.2	-	28.2
70대	0.6	3.3	3.9	0.4	4.2	0.1	-	12.5
80대이상	0.1	2.7	1.7	0.1	1.5	0.0	-	6.0
연령미상	-	-	-	-	-	-	77	2.5
전체대비 비중(%)	7.5	12.1	42.4	5.4	29.4	0.7	2.5	100.0
계(명)	227	366	1,283	164	891	20	77	3,028

- 의료보장유형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 지역세대주인 경우가 43.2%(1,10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세대주가 29.7%(758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3〉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지역세대주	1,102	43.2	181	38.0	1,283	42.4
지역세대원	121	4.7	43	9.0	164	5.4
직장가입자	213	8.3	14	2.9	227	7.5
직장피부양자	274	10.7	92	19.3	366	12.1
의료급여세대주	758	29.7	133	27.9	891	29.4
의료급여세대원	17	0.7	3	0.6	20	0.7
미상	66	2.6	10	2.1	76	2.5
계	2,551	100.0	476	100.0	3,027	100.0

주: 분석대상자는 전체 3,028명이나, 성별 미상인 1명은 표에서 제외함.

□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

- 고독사 사망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는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함.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 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20분위로 나누어 구분한 표가 아래와 같음. 건강보험료 1분위는 저소득자에 해당하며, 2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라 할 수 있음.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50.0%)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의 약 80%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료 10분위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수의 고독사 사망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나머지 20%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11분위~20분위에 속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만으로 고독사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임을 보여줌.

〈표 3-4〉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21년 기준

(단위: %)

연령별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미상	계
	1분위	2분위~10분위	11분위~20분위			
19세이하	0.0	50.0	50.0	0.0	-	100.0
20대	25.5	48.9	21.3	4.3	-	100.0
30대	26.7	38.4	27.4	7.5	-	100.0
40대	27.5	35.6	17.1	19.8	-	100.0
50대	24.0	29.2	12.5	34.4	-	100.0
60대	18.3	25.2	17.8	38.7	-	100.0
70대	10.8	24.2	30.8	34.2	-	100.0
80대이상	10.4	16.9	48.6	24.0	-	100.0
연령미상	-	-	-	-	100.0	100.0
전체대비 비중(%)	19.9	27.7	19.7	30.1	2.5	100.0
계(명)	604	838	598	911	77	3,028

주: 1분위(저소득)에서 20분위(고소득)로 갈수록 고소득자임을 의미함.  
 1분위 월평균보험료 19,988원, 2분위 월평균보험료 32,428원, 10분위 월평균보험료 79,747원, 20분위 월평균 보험료 489,211원(2021년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수술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준이 좋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수술 및 입원 경험에 대해 분석해 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 동안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2%이고,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8%로 나타남.
- 20대에서 수술 또는 입원경험이 있는 경우가 23.4%, 34.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리고 50대와 60대에서 수술 및 입원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5〉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1년간 수술경험		1년간 입원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수술경험 비중(%)	(명)	입원경험 비중(%)	(명)
19세이하	1	50.0	1	50.0	2
20대	11	23.4	16	34.0	47
30대	25	17.1	40	27.4	146
40대	76	16.7	122	26.8	455
50대	192	21.7	277	31.3	885
60대	194	22.7	276	32.4	853
70대	80	21.1	98	25.8	380
80대이상	33	18.0	41	22.4	183
연령미상	-	-	-	-	77
전체	612	20.2	871	28.8	3,028

주: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수술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수술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입원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입원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고독사 사망자 중의 사망전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현황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사망전 1년간 외래로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한 경우는 76.9%이었음.
  - 고독사는 우울증 또는 불안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신관련 질환(우울,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원 또는 외래를 모두 합쳐서 2.4%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의료기관 외래 1회 이상 방문 경험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외래경험 비중(%)	(명)	정신장애 관련 의료기관 방문비중(%)	(명)
19세이하	2	100.0	0	0.0	2
20대	40	85.1	1	2.1	47
30대	107	73.3	4	2.7	146
40대	325	71.4	13	2.9	455
50대	700	79.1	35	4.0	885
60대	684	80.2	17	2.0	853
70대	317	83.4	2	0.5	380
80대이상	155	84.7	0	0.0	183
연령미상	-	-	-	-	77
계	2,330	76.9	72	2.4	3,028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외래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외래 1회 이상을 방문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정신장애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명 F코드)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 전에 보유하고 있는 질환을 21대 질환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순환기계 질환이 2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3.7%, 소화기계의 질환 22.2%, 정신 및 행동장애 19.6%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 3-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환자수*	전체중 비중(A)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11	7.0
2	신생물	183	6.0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37	1.2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533	17.6
5	정신 및 행동장애	593	19.6
6	신경계의 질환	249	8.2
7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355	11.7
8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96	3.2
9	순환기계의 질환	772	25.5

구분	환자수*	전체중 비중(A)	
10	호흡기계의 질환	388	12.8
11	소화기계의 질환	671	22.2
12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353	11.7
13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717	23.7
14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283	9.3
15	임신, 출산 및 산욕	0	0.0
16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0	0.0
17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	0.1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324	10.7
1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518	17.1
2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148	4.9
전체(질병 2개 이상 포함)		6,434	-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A=(질병별 환자수/전체 고독사수)×100

21대 질환분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기준을 따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 동안 입원 또는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진단받은 주요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20.1%, 당뇨병 18.0%, 알코올질환 12.3%이었음.

〈표 3-8〉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 명)

구분	암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알코올질환	COPD(폐질환)	고독사 사망자 전체(명)
19세이하	-	-	-	-	-	-	-	-	2
20대	2.1	0.0	0.0	0.0	2.1	4.3	8.4	2.1	47
30대	0.0	0.7	0.0	0.0	8.2	10.3	10.3	1.4	146
40대	2.9	0.4	1.3	1.8	9.7	11.0	16.7	3.3	455
50대	4.3	1.0	3.7	2.3	19.3	19.1	19.1	3.1	885
60대	6.4	2.6	5.2	3.6	23.6	23.1	11.4	4.8	853
70대	10.5	6.3	2.9	5.8	30.8	21.8	2.4	11.1	380
80대이상	4.9	8.7	10.4	6.0	35.0	16.4	0.5	6.6	183
연령미상	-	-	-	-	-	-	-	-	77
계	5.2	2.4	3.7	3.0	20.1	18.0	12.3	4.6	3,028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알코올질환(ICD-10기준)에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알코올성간질환(K70)',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 및 소화계질환(G31.2/ G62.1/ I42.6/ K29.2/ K86.0)이 포함됨.

암(C00~C99), 치매(F00~F03, G30 G20~G22(파킨슨 포함), 뇌졸중(I60~I69), 심장질환(I20~I25),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COPD(J20~J22)

□ 중증질환이라 할 수 있는 암, 뇌졸중, 심장질환 중에 1개 이상을 보유한 고독사 사망자는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11.1%인 것으로 나타남.

〈표 3-9〉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중증 질환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

구분	암	뇌졸중	심장질환	계 (중복허용)	암, 뇌졸중, 심장질환 중 1개 이상 보유	
					(명)	고독사 전체 대비 비중(%)
19세이하	0	0	0	0	0	-
20대	1	0	0	1	1	2.1
30대	0	0	0	0	0	0.0
40대	13	6	8	27	27	5.9
50대	38	33	20	91	87	9.8
60대	55	44	31	130	119	14.0
70대	40	11	22	73	66	17.4
80대이상	9	19	11	39	36	19.7
계	156	113	92	361	336	11.1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암(C00~C99), 뇌졸중(I60~I69), 심장질환(I20~I25)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상위 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6%,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이용한 경우는 0.3%이었음.

〈표 3-10〉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차상위지원	전체중 비중	긴급복지 의료지원	전체중 비중
19세이하	0	0.0	0	0.0
20대	0	0.0	0	0.0
30대	4	2.7	0	0.0
40대	1	0.2	1	0.2
50대	15	1.7	6	0.7
60대	15	1.8	2	0.2
70대	8	2.1	0	0.0
80대이상	5	2.7	1	0.5
계	48	1.6	10	0.3

## 나. 2020년 고독사 발생 이전의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 분석 대상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된 2020년 고독사 사망자 2,9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인 319명을 제외함.
  -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 건강보험 DB와 연계된 2020년 고독사 사망자는 2,960명이며 이 중에서 남성 2,456명, 여성이 504명임.

〈표 3-11〉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19세이하	-	-	-	-	-	-
20대	26	1.1	25	5.0	51	1.7
30대	113	4.6	52	10.3	165	5.6
40대	392	16.0	87	17.3	479	16.2
50대	868	35.3	99	19.6	967	32.7
60대	680	27.7	91	18.1	771	26.0
70대	269	11.0	91	18.1	360	12.2
80대이상	108	4.4	59	11.7	167	5.6
계	2,456	100.0	504	100.0	2,960	100.0

주: \*2020년 고독사는 3,279명이나 자료 미연계 고독사 사망자인 319명(미연계율 9.7%)을 제외하고 분석함.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보된 성, 연령 정보로 대체함.

- 2020년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급여자는 29.8%, 건강보험가입자는 70.2%이었음.

-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은 경제활동 여부 및 방식을 나타냄으로써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경제적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자는 883명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2,077명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함.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635명(21.5%), 지역가입자는 1,442명(48.7%)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 정도는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2〉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20년 기준

(단위: %, 명)

연령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19세이하	0.0	0.0	0.0	0.0	0.0	0.0	0.0
20대	17.6	37.3	23.5	15.7	3.9	2.0	1.6
30대	17.6	10.3	49.1	14.5	8.5	0.0	4.9
40대	13.6	2.9	53.7	10.4	18.2	1.3	15.4
50대	11.2	5.7	45.2	5.1	32.4	0.5	30.0
60대	7.0	12.5	41.8	1.9	36.2	0.6	28.9
70대	3.3	23.6	35.8	2.2	34.2	0.8	12.9
80대이상	1.2	41.9	27.5	2.4	26.3	0.6	6.2
전체대비 비중(%)	9.4	12.0	43.4	5.3	29.1	0.7	100.0
계(명)	279	356	1,284	158	862	21	2,960

- 의료보장유형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 지역세대주인 경우가 43.0%(1,055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세대주 30.4%(747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13〉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지역세대주	1,055	43.0	229	45.4	1,284	43.4
지역세대원	128	5.2	30	6.0	158	5.3
직장가입자	249	10.1	30	6.0	279	9.4
직장피부양자	264	10.7	92	18.3	356	12.0
의료급여세대주	747	30.4	115	22.8	862	29.1
의료급여세대원	13	0.5	8	1.6	21	0.7
계	2,456	100.0	504	100.0	2,960	100.0



□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

- 고독사 사망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여,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는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역할을 함.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 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20분위로 나누어 구분한 표가 아래와 같음. 건강보험료 1분위는 저소득자에 해당하며, 2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라 할 수 있음.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53.1%) 정도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의 79.8%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료 10분위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수의 고독사 사망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나머지 20.2%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11분위~20분위에 속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만으로 고독사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임을 보여줌.

〈표 3-14〉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20년 기준

(단위: %)

연령별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계
	1분위	2분위~10분위	11분위~20분위		
19세이하	0.0	0.0	50.0	50.0	100.0
20대	5.9	11.8	31.4	51.0	100.0
30대	8.5	27.9	38.8	24.8	100.0
40대	19.4	34.2	31.3	15.0	100.0
50대	32.9	25.3	30.5	11.3	100.0
60대	36.8	20.4	22.4	20.4	100.0
70대	35.0	13.3	19.7	31.9	100.0
80대이상	26.9	14.4	12.0	46.7	100.0
전체대비 비중(%)	29.8	23.3	26.7	20.2	100.0
계(명)	690	789	598	883	2,960

주: 1분위(저소득)에서 20분위(고소득)로 갈수록 고소득자임을 의미함.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수술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준이 좋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수술 및 입원 경험에 대해 분석해 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 동안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1%이고,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2%로 나타남.

〈표 3-15〉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간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1년간 수술경험		1년간 입원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명)	수술경험 비중(%)	(명)	입원경험 비중(%)	
19세이하	0	-	0	-	
20대	7	13.7	13	25.5	51
30대	25	15.2	35	21.2	165
40대	95	19.8	157	32.8	479
50대	195	20.2	319	33.0	967
60대	192	24.9	254	32.9	771
70대	84	23.3	110	30.6	360
80대이상	43	25.7	58	34.7	167
전체	641	21.1	946	31.2	2,960

주: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수술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수술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입원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입원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고독사 사망자 중의 사망전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현황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사망전 1년간 외래로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한 경우는 80.8%이었음.
- 고독사는 우울증 또는 불안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신관련 질환(우울,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원 또는 외래를 모두 합쳐서 4.1%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6〉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간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의료기관 외래 1회 이상 방문 경험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명)	외래경험 비중(%)	(명)	정신장애 관련 의료기관 방문비중(%)	
19세이하	-	-	-	-	-
20대	42	82.4	0	0.0	51
30대	123	74.5	4	2.4	165
40대	358	74.7	23	4.8	479
50대	763	78.9	63	6.5	967
60대	647	83.9	28	3.6	771
70대	307	85.3	3	0.8	360
80대이상	151	90.4	0	0.0	167
계	2,391	80.8	121	4.1	2,960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외래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외래1회 이상을 방문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정신장애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명 F코드)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전에 보유하고 있는 질환을 21대 질환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7.4%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순환기계 질환이 26.1%, 소화기계의 질환 24.1%, 정신 및 행동장애 20.8%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 3-1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환자수*	전체중 비중(A)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65	2.2
2	신생물	178	6.0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32	1.1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550	18.6
5	정신 및 행동장애	617	20.8
6	신경계의 질환	252	8.5
7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375	12.7
8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112	3.8
9	순환기계의 질환	772	26.1
10	호흡기계의 질환	560	18.9
11	소화기계의 질환	714	24.1

구분	환자수*	전체중 비중(A)
12	395	13.3
13	810	27.4
14	323	10.9
15	0	0.0
16	0	0.0
17	2	0.1
18	337	11.4
19	563	19.0
21	86	2.9
전체(질병 2개이상 포함)		6,743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A=(질병별 환자수/전체 고독사수)×100

21대 질환분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기준을 따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에 지닌 주요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20.9%, 당뇨병 17.5%, 알코올질환 14.1%이었음.

〈표 3-18〉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

구분	암	치매	뇌졸중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알코올 질환	COPD (폐질환)
20대	0.0	0.0	0.0	0.0	2.0	3.9	3.9	2.0
30대	0.6	0.0	0.0	0.0	4.8	3.6	9.7	3.0
40대	1.9	0.6	1.5	1.0	11.9	14.2	20.3	4.8
50대	4.1	1.9	3.4	1.9	17.2	15.7	19.8	4.4
60대	8.2	2.2	6.9	4.8	28.8	23.1	11.5	9.1
70대	5.8	6.4	7.2	6.9	31.7	24.7	5.8	10.8
80대이상	9.0	12.0	12.6	12.6	37.1	19.8	0.6	17.4
미상	-	-	-	-	-	-	-	-
계	5.0	2.7	4.7	3.6	20.9	17.5	14.1	7.1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알코올질환(ICD-10기준)에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알코올성간질환(K70)',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 및 소화계질환(G31.2/ G62.1/ I42.6/ K29.2/ K86.0)이 포함됨.

암(C00~C99), 치매(F00~F03, G30 G20~G22(파킨슨 포함)), 뇌졸중(I60~I69), COPD(J20~J22)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상위 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6%,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이용한 경우는 0.4%이었음.

〈표 3-19〉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20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차상위지원	전체중 비중	긴급복지 의료지원	전체중 비중
19세이하	0	0.0	0	0.0
20대	0	0.0	0	0.0
30대	0	0.0	1	0.6
40대	6	1.3	1	0.2
50대	14	1.4	4	0.4
60대	14	1.8	2	0.3
70대	6	1.7	2	0.6
80대이상	8	4.8	1	0.6
계	48	1.6	11	0.4

#### 다. 2019년 고독사 발생 이전의 1년간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 분석 대상자의 성별·연령별 분포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된 2019년 고독사 사망자 2,6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건강보험DB와 자료가 연계되지 않은 고독사 사망자인 342명을 제외함.
  -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 건강보험 DB와 연계된 2019년 고독사 사망자인 2,607명 중에서 남성 2,139명, 여성이 468명임.

〈표 3-20〉 성별·연령별 분석 대상자 분포: 2019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19세이하	1	0.0	0	0.0	1	0.0
20대	31	1.4	18	3.8	49	1.9
30대	106	5.0	42	9.0	148	5.7
40대	372	17.4	86	18.4	458	17.6
50대	704	32.9	81	17.3	785	30.1
60대	564	26.4	83	17.7	647	24.8
70대	262	12.2	87	18.6	349	13.4
80대이상	99	4.6	71	15.2	170	6.5
계	2,139	100.0	468	100.0	2,607	100.0

주: \*2020년 고독사는 3,279명이나 자료 미연계 고독사 사망자인 319명(미연계율 9.7%)을 제외하고 분석함.  
미연계는 경찰청 자료와 건강보험DB의 연계시 사망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거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지 못한 경우임.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확보된 성, 연령 정보로 대체함.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의료급여자는 27.5%, 건강보험가입자는 72.5%이었음.

○ 의료보장 유형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자는 716명으로 전체의 27.5%에 해당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1,891명으로 전체의 72.5%를 차지함.

- 건강보험 가입자는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는 623명(23.9%), 지역가입자는 1,268명(48.6%)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 정도는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은 경제활동 여부 및 방식을 나타냄으로써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경제적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표 3-21〉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별 의료보장 유형: 2019년 기준

(단위: %, 명)

연령별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직장 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19세이하	0.0	100.0	0.0	0.0	0.0	0.0	100.0
20대	26.5	30.6	18.4	20.4	4.1	0.0	100.0
30대	12.8	8.8	50.7	14.9	11.5	1.4	100.0
40대	10.0	2.8	53.5	15.5	17.5	0.7	100.0
50대	9.2	7.3	45.4	7.0	30.2	1.0	100.0
60대	7.1	14.8	39.3	4.6	33.4	0.8	100.0
70대	2.6	37.5	23.5	4.3	31.8	0.3	100.0
80대이상	1.2	52.9	22.4	3.5	18.8	1.2	100.0
전체대비 비중(%)	7.9	16.0	40.6	8.0	26.7	0.8	100.0
계(명)	207	416	1,059	209	695	21	2,607

- 의료보장유형을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에 지역세대주인 경우가 40.6%(86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급여 세대주가 26.6%(570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3-22〉 고독사 사망자의 성별 의료보장 가입자 유형: 2019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남		여		계	
	(명)	(%)	(명)	(%)	(명)	(%)
지역세대주	869	40.6	190	40.6	1,059	40.6
지역세대원	173	8.1	36	7.7	209	8.0
직장가입자	183	8.6	24	5.1	207	7.9
직장피부양자	329	15.4	87	18.6	416	16.0
의료급여세대주	570	26.6	125	26.7	695	26.7
의료급여세대원	15	0.7	6	1.3	21	0.8
계	2,139	100.0	468	100.0	2,607	100.0

#### □ 고독사 사망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 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20분위로 나누어 구분한 표가 아래와 같음.

-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분위별 분포는 소득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함. 건강보험료 1분위는 저소득자에 해당하며, 2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자라 할 수 있음.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절반(51.1%) 정도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고독사 사망자의 74.1%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료 10분위까지 분포되어 있어, 다수의 고독사 사망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나머지 25.9%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11분위~20분위에 속하고 있어, 경제적 상황만으로 고독사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임을 보여줌.

〈표 3-23〉 연령별 건강보험료 분위별 가입자 유형: 2019년 기준

(단위: %)

연령별	건강보험료			의료급여	계
	1분위	2분위~10분위	11분위~20분위		
19세이하	-	-	-	-	-
20대	4.1	22.4	30.6	42.9	100.0
30대	12.8	33.1	32.4	21.6	100.0
40대	18.1	34.5	27.5	19.9	100.0
50대	31.2	27.5	22.9	18.3	100.0
60대	34.2	19.3	24.0	22.6	100.0
70대	32.1	11.7	15.2	41.0	100.0
80대이상	20.0	10.0	13.5	56.5	100.0
전체대비 비중(%)	27.5	23.7	23.0	25.9	100.0
계(명)	617	600	674	716	2,607

주: 1분위(저소득)에서 20분위(고소득)로 갈수록 고소득자임을 의미함.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수술 또는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준이 좋지 않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수술 및 입원 경험에 대해 분석해 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전 1년 동안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는 21.7%이고,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는 33.5 %로 나타남.



〈표 3-24〉 연령별 입원 및 수술 여부: 2019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1년간 수술경험		1년간 입원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명)	수술경험 비중(%)	(명)	입원경험 비중(%)	
19세이하	0	0	0	0	1
20대	6	12.2	7	14.3	49
30대	18	12.2	32	21.6	148
40대	84	18.3	162	35.4	458
50대	182	23.2	286	36.4	785
60대	160	24.7	218	33.7	647
70대	83	23.8	125	35.8	349
80대이상	33	19.4	43	25.3	170
전체	566	21.7	873	33.5	2,607

주: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수술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수술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입원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입원을 경험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 고독사 사망자 중의 사망전 1년간 외래 의료이용 현황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사망전 1년간 외래로 의료기관을 1회 이상 방문한 경우는 81.6%이었음.
- 고독사는 우울증 또는 불안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신관련 질환(우울, 불안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은 경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원 또는 외래를 모두 합쳐서 4.1%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연령별 외래 및 정신과 입원/외래 여부: 2019년 기준

(단위: 명, %)

연령별	의료기관 외래 1회 이상 방문 경험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		고독사 사망자 전체 (명)
	(명)	외래경험 비중(%)	(명)	정신장애 관련 의료기관 방문비중(%)	
19세이하	1	100.0	0	0.0	1
20대	38	77.6	0	0.0	49
30대	105	70.9	6	4.1	148
40대	331	72.3	27	5.9	458
50대	622	79.2	46	5.9	785
60대	558	86.2	25	3.9	647
70대	316	90.5	2	0.6	349
80대이상	157	92.4	0	0.0	170
계	2,128	81.6	106	4.1	2,607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외래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외래 1회 이상을 방문한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정신장애관련 의료기관 방문 경험비중(%)=(사망전 1년간 정신장애 관련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전체)×100

\* '정신 및 행동장애(진단명 F코드)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

□ 고독사 사망자가 사망 전에 보유하고 있는 질환을 21대 질환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27.3%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순환기계 질환이 26.8%, 소화기계의 질환 26.2%, 정신 및 행동장애 21.4% 등의 순으로 많았음.

〈표 3-26〉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21대 질환 분포: 2019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환자수*	전체중 비중(A)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14	8.2
2	신생물	156	6.0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27	1.0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478	18.3
5	정신 및 행동장애	557	21.4
6	신경계의 질환	255	9.8
7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341	13.1
8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124	4.8
9	순환기계의 질환	699	26.8
10	호흡기계의 질환	539	20.7
11	소화기계의 질환	683	26.2
12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371	14.2
13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711	27.3
14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286	11.0
15	임신, 출산 및 산욕	0	0.0
16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0	0.0
17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	0.1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312	12.0
1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499	19.1
2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70	2.7
전체(질병 2개 이상 포함)		6,324	-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하였으며 21대 질환분류는 건강보험통계연보의 기준을 따름..

\*2개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A=(질병별 환자수/전체 고독사수)×100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에 지닌 주요 질환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21.6%, 당뇨병 19.3%, 알코올질환 14.5%이었음.

〈표 3-27〉 고독사 사망자의 연령대별 주요 질환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암	치매	뇌졸중	알코올성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COPD
19세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20대	0.0	0.0	0.0	2.0	0.0	2.0	0.0	0.0
30대	0.7	0.0	2.0	11.5	0.7	5.4	4.7	4.1
40대	1.5	0.4	2.4	21.8	1.7	11.1	12.0	5.2
50대	3.7	1.0	2.9	20.5	3.4	19.2	18.1	6.9
60대	7.9	3.2	6.6	12.5	4.0	26.0	28.3	9.1
70대	7.2	8.6	9.5	4.6	11.5	26.1	33.0	19.2
80대이상	7.6	10.0	5.9	1.2	8.2	19.4	36.5	9.4
계	4.8	3.0	4.7	14.5	4.4	19.3	21.6	8.7

주: 고독사 사망 직전의 1년간 의료이용을 기준으로 분석함.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한 경우에 중복포함함.  
알코올질환(ICD-10기준)에는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알코올성간질환(K70)', 알코올로 인한 신경계 및 소화계질환(G31.2/ G62.1/ I42.6/ K29.2/ K86.0)이 포함됨. 암(C00~C99), 치매(F00~F03, G30 G20~G22(파킨슨 포함)), 뇌졸중(I60~I69), 심장질환(I20~I25), 고혈압(I10~I15), 당뇨(E10~E14), COPD(J20~J22)

□ 고독사 사망자 중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차상위 지원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6%,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이용한 경우는 0.3%이었음.

〈표 3-28〉 연령별 대상자의 의료복지 현황: 2019년 기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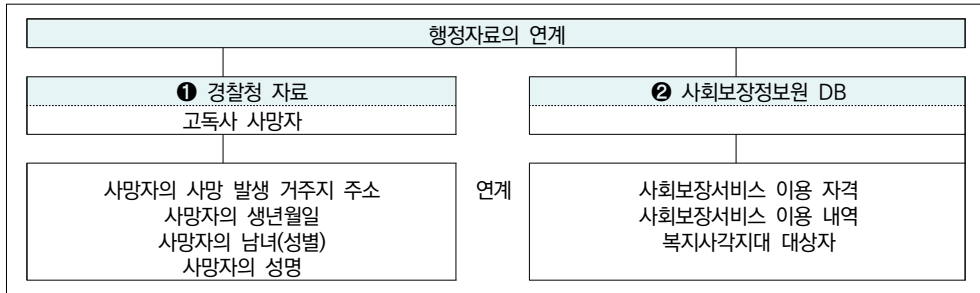
구분	차상위지원	전체중 비중	긴급복지 의료지원	전체중 비중
19세이하	0	0.0	0	0.0
20대	0	0.0	0	0.0
30대	1	0.7	1	0.7
40대	3	0.7	2	0.4
50대	8	1.0	5	0.6
60대	14	2.2	0	0.0
70대	12	3.4	0	0.0
80대이상	5	2.9	0	0.0
계	43	1.6	8	0.3

## 제2절 고독사 사망 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1. 분석 방법

-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복지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함.
- 고독사 사망자와 행정데이터의 연계
  - 경찰청 자료를 활용하여 고독사 사망자를 추출하였고, 이러한 고독사 사망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DB와 연계하여 분석을 수행함.
  - 현장 감식 단계에서 기록된 생년월일, 성별, 성명,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거주지 주소에 대한 정보를 연계 변수로 하여 사회보장정보원의 DB와 연계함.

[그림 3-3] 사회보장서비스 DB 연계



#### □ 분석자료의 특성 및 제한점

-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DB에는 사회보장서비스 수급자격, 사회보장서비스 이용내역,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독사 사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DB와 연계를 수행하였으나,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 성명 등이 부정확하거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연계가 되지 못함.

- 경찰청 데이터에서는 미상이었으나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연령과 성별 정보는 행정데이터의 결과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함.
  - 예를 들어, 2021년의 경우 연령미상 27명, 성별미상 32명의 결측치를 행정데이터의 정보로 대체함.
-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도의 경우 미연계된 경우는 446명으로 연계율은 86.8%임.

〈표 3-29〉 고독사 데이터 연계 현황

(단위: 명, %)

연도	미연계	연계	계	연계율
2021	446	2,932	3,378	86.8
2020	537	2,742	3,279	83.6
2019	603	2,346	2,949	79.6
계	3,039	12,027	15,066	79.8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DB에 기록되어 있는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수혜 현황을 분석함.
- 사회보장서비스의 자격 및 서비스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이 22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여 분석함.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DB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 중앙사업은 약 360개임 (보건복지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2).
  -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은 대상자에게 약 360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수혜 현황을 개괄적으로 정리·분석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 수급 이력을 정리하여 수급 내역의 서비스명과 상담 이력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크게 22개 유형으로 분류함.
    - 22개 유형별로 분류한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다음 표의 오른쪽 컬럼에 제시함.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한 11개(1~11번)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통계는 분석하였으며, 11번 유형인 본인부담 비용보조와 22번 유형인 감면지원은 현금지원이라는 속성이 유사하여 합산하여 분석함.

- 이 외에 10개(12~21번) 유형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적어 통계 분석에서는 제외함.
- 이밖에 고독사 사망자 중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발굴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함.

〈표 3-30〉 사회보장서비스의 유형 분류

구분	세부 사업
1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2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
3 기초연금	기초노령, 기초연금, 연금지원서비스
4 생활지원	생활물품, 생활품, 생필품, 도시락, 반찬, 간식 지원 등의 서비스
5 일자리지원	자활, 구직, 취업, 진로, 창업, 일자리 사업 지원 등의 서비스
6 에너지·주거지원	에너지, 주거, 거처지원, 주택 리모델링, 석탄, 연료, 연탄, 등유 지원 등
7 의료지원	의료, 진단, 치료, 질환관리 등의 서비스
8 건강지원	건강, 검진, 예방접종, 의약품, 치과/보철, 운동, 영양 등의 서비스
9 정신건강지원	마음건강, 정신건강, 치유·정서·심리지원, 관계형성, 학대/폭력/폭행, 우울, 자살 등의 서비스
10 치매지원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
11 본인부담 일부지원·비용보조	본인부담 일부지원·비용보조(돌봄요양비용보조, 분화여가관련비용보조, 보건의료관련비용보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등)
12 생계지원	생계지원(취업준비), 수당(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등)
13 재가서비스지원	재가서비스, 요양보험, 보장구, 시설,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
14 장애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
15 교육지원	교육, 장학금, 학비, 학습, 급식, 방과후, 등록금 등
16 문화지원	문화, 전시, 관람, 공연, 방송, 휴양, 산림, 여행 등 활동지원
17 중독치유	중독, 알코올, 약물, 마약 등
18 영유아모자지원	아동, 영유아, 모자, 소년, 소녀, 양육, 보육, 임신부 지원 등
19 청년지원	청년, 자산형성사업 등
20 노인 지원	노인지원사업 (노인활동지원, 노인여가지원)
21 돌봄, 간병 지원	간호, 간병, 돌봄 등
22 감면지원	비용면제, 비용감면, 요금감면 등(이동통신요금, 수도요금, TV수신료)

## 2. 분석 결과

### 가. 2021년 고독사 사망 전 1년간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대상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 연계가 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고 2,932명(남성 2,468명, 여성 464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표 3-31〉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9세이하	-	-	-	-	-	-
20대	23	0.9	10	2.2	33	1.1
30대	95	3.8	35	7.5	130	4.4
40대	377	15.3	77	16.6	454	15.5
50대	788	31.9	83	17.9	871	29.7
60대	770	31.2	101	21.8	871	29.7
70대	291	11.8	96	20.7	387	13.2
80대이상	124	5.0	62	13.4	186	6.3
계	2,468	100.0	464	100.0	2,932	100.0

□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결과

○ 사회보장서비스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서비스, 기초연금제도 등 공적 급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물품·도시락 지원 등의 생활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서비스, 요금감면 등 공공·민간의 다양한 급여·비급여 서비스가 포함됨.

-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22개 유형으로 분류함. 다시 말해서, 수혜받은 개별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22개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지를 구분함.
- 전체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유형 수를 22개 유형으로 하였을 때,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13.7%이었음.

- 개인별로 사회보장서비스를 1개 이용한 경우는 14.7%이었으며, 2개 이용한 경우 5.1%,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31.1%이었음.

〈표 3-3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21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남	14.7	5.1	8.1	27.6	30.8	13.7	100.0
여	14.9	4.7	6.7	27.2	32.8	13.8	100.0
전체 고독사	14.7	5.1	7.9	27.5	31.1	13.7	100.0

-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22개 유형으로 분류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0대이며 38.5%가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21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19세이하	-	-	-	-	-	-	100.0
20대	15.2	12.1	6.1	21.2	21.2	24.2	100.0
30대	13.8	9.2	9.2	19.2	10.0	38.5	100.0
40대	29.1	5.1	9.3	25.6	15.6	15.4	100.0
50대	17.5	5.3	10.1	24.7	30.3	12.2	100.0
60대	12.9	4.4	7.1	25.7	36.2	13.8	100.0
70대	3.4	4.9	4.1	36.4	41.9	9.3	100.0
80대이상	0.0	3.8	4.8	41.9	42.5	7.0	100.0
전 연령	14.7	5.1	7.9	27.5	31.1	13.7	100.0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2021년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4.3%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5.1%이며, 여성은 40.5%에 해당됨.
-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비중이 가장 높은 52.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47.9%, 70대가 46.3%의 순이었음.



〈표 3-34〉 고독사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10	23	43.5	3	10	30.0	13	33	39.4
30대	21	95	22.1	7	35	20.0	28	130	21.5
40대	113	377	30.0	24	77	31.2	137	454	30.2
50대	377	788	47.8	40	83	48.2	417	871	47.9
60대	406	770	52.7	50	101	49.5	456	871	52.4
70대	136	291	46.7	43	96	44.8	179	387	46.3
80대이상	49	124	39.5	21	62	33.9	70	186	37.6
계	1,112	2,468	45.1	188	464	40.5	1,300	2,932	44.3

주: 자격기준

수급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긴급지원제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계비 및 의료·주거서비스를 포함한 긴급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고독사 전체 대상자 중에 13.3%이었고, 남성 13.5%, 여성 12.3 %이었음.

- 특히, 80대 이상 14.5%, 60대가 13.9%로 높았음

〈표 3-3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4	23	17.4	1	10	10.0	5	33	15.2
30대	12	95	12.6	3	35	8.6	15	130	11.5
40대	47	377	12.5	9	77	11.7	56	454	12.3
50대	106	788	13.5	14	83	16.9	120	871	13.8
60대	111	770	14.4	10	101	9.9	121	871	13.9
70대	35	291	12.0	10	96	10.4	45	387	11.6
80대이상	17	124	13.7	10	62	16.1	27	186	14.5
계	332	2,468	13.5	57	464	12.3	389	2,932	13.3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긴급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기초연금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4.5%이며, 남성 33.0%, 여성 42.2%임.

〈표 3-3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6	23	26.1	1	10	10.0	7	33	21.2
30대	15	95	15.8	4	35	11.4	19	130	14.6
40대	69	377	18.3	9	77	11.7	78	454	17.2
50대	109	788	13.8	18	83	21.7	127	871	14.6
60대	250	770	32.5	35	101	34.7	285	871	32.7
70대	260	291	89.3	75	96	78.1	335	387	86.6
80대이상	106	124	85.5	54	62	87.1	160	186	86.0
계	815	2,468	33.0	196	464	42.2	1,011	2,932	34.5

주: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등 포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연금 등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생활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48.3%이었으며, 남성 48.2%, 여성 48.7%이었음.

- 생활지원서비스는 70대에서 58.7%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52.7%, 80대 이상 48.9%이었음.

- 생활지원서비스에는 생활물품, 생활품, 생필품, 도시락, 반찬, 간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됨.

〈표 3-3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8	23	34.8	2	10	20.0	10	33	30.3
30대	28	95	29.5	9	35	25.7	37	130	28.5
40대	129	377	34.2	34	77	44.2	163	454	35.9
50대	383	788	48.6	45	83	54.2	428	871	49.1
60대	408	770	53.0	51	101	50.5	459	871	52.7
70대	171	291	58.8	56	96	58.3	227	387	58.7
80대이상	62	124	50.0	29	62	46.8	91	186	48.9
계	1,189	2,468	48.2	226	464	48.7	1,415	2,932	48.3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생활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일자리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31.3%이었음.

- 남성이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33.2%, 여성은 21.1%이었음.
-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의 41.6%이었으며, 그다음으로 30대 34.6%, 40대 34.8% 등의 순이었음.

〈표 3-3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11	23	47.8	3	10	30.0	14	33	42.4
30대	34	95	35.8	11	35	31.4	45	130	34.6
40대	144	377	38.2	14	77	18.2	158	454	34.8
50대	329	788	41.8	33	83	39.8	362	871	41.6
60대	252	770	32.7	27	101	26.7	279	871	32.0
70대	46	291	15.8	7	96	7.3	53	387	13.7
80대이상	4	124	3.2	3	62	4.8	7	186	3.8
계	820	2,468	33.2	98	464	21.1	918	2,932	31.3

주: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일자리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에너지·주거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49.1%로, 남성 50.2%, 여성 43.8%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60대로, 55.9%에 해당하며, 그다음으로 70대 52.7%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표 3-3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10	23	43.5	2	10	20.0	12	33	36.4
30대	27	95	28.4	10	35	28.6	37	130	28.5
40대	143	377	37.9	26	77	33.8	169	454	37.2
50대	411	788	52.2	44	83	53.0	455	871	52.2
60대	436	770	56.6	51	101	50.5	487	871	55.9
70대	159	291	54.6	45	96	46.9	204	387	52.7
80대이상	52	124	41.9	25	62	40.3	77	186	41.4
계	1,238	2,468	50.2	203	464	43.8	1,441	2,932	49.1

주: 주거복지 지원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의료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의료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32.6%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32.6%, 여성 32.8%가 의료 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지원서비스에는 의료, 치료, 진단, 질환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 의료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60대로, 39.6%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70대 36.4%이었음.

〈표 3-4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6	23	26.1	1	10	10.0	7	33	21.2
30대	9	95	9.5	6	35	17.1	15	130	11.5
40대	75	377	19.9	17	77	22.1	92	454	20.3
50대	262	788	33.2	32	83	38.6	294	871	33.8
60대	305	770	39.6	40	101	39.6	345	871	39.6
70대	107	291	36.8	34	96	35.4	141	387	36.4
80대이상	41	124	33.1	22	62	35.5	63	186	33.9
계	805	2,468	32.6	152	464	32.8	957	2,932	32.6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의료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건강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91.8%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91.7%, 여성 92.5%가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 건강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70대로, 96.1%에 해당하며, 그다음으로 50대 96.3% 등의 순이었음.

〈표 3-4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6	23	26.1	8	10	80.0	14	33	42.4
30대	17	95	17.9	30	35	85.7	47	130	36.2
40대	356	377	94.4	71	77	92.2	427	454	94.1
50대	759	788	96.3	80	83	96.4	839	871	96.3
60대	732	770	95.1	93	101	92.1	825	871	94.7
70대	281	291	96.6	91	96	94.8	372	387	96.1
80대이상	111	124	89.5	56	62	90.3	167	186	89.8
계	2,262	2,468	91.7	429	464	92.5	2,691	2,932	91.8

주: 건강관리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정신건강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6%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이용률은 12.4%이었으며, 여성은 13.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70대 16.0%, 80대 이상 15.6%로,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높았음.

〈표 3-4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1	23	4.3	0	10	0.0	1	33	3.0
30대	4	95	4.2	3	35	8.6	7	130	5.4
40대	26	377	6.9	9	77	11.7	35	454	7.7
50대	99	788	12.6	14	83	16.9	113	871	13.0
60대	111	770	14.4	12	101	11.9	123	871	14.1
70대	45	291	15.5	17	96	17.7	62	387	16.0
80대이상	20	124	16.1	9	62	14.5	29	186	15.6
계	306	2,468	12.4	64	464	13.8	370	2,932	12.6

주: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치유·정서·심리지원, 관계형성, 학대·폭력/폭행, 우울, 자살 예방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치매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9.9%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7.6%, 여성 22.4%가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음
-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에서 55.9%, 70대 34.1%, 60대 34.1%이었음.

〈표 3-4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0	23	0.0	0	10	0.0	0	33	0.0
30대	0	95	0.0	0	35	0.0	0	130	0.0
40대	1	377	0.3	0	77	0.0	1	454	0.2
50대	2	788	0.3	0	83	0.0	2	871	0.2
60대	42	770	5.5	10	101	9.9	52	871	6.0
70대	82	291	28.2	50	96	52.1	132	387	34.1
80대이상	60	124	48.4	44	62	71.0	104	186	55.9
계	187	2,468	7.6	104	464	22.4	291	2,932	9.9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치매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7.4%에 해당됨.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 서비스 중에 저소득층 비용감면의 경우가 높음.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보조, 요금감면, 요금 면제 등이 포함됨.

〈표 3-4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및 감면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8	23	34.8	1	10	10.0	9	33	27.3
30대	15	95	15.8	6	35	17.1	21	130	16.2
40대	88	377	23.3	22	77	28.6	110	454	24.2
50대	327	788	41.5	35	83	42.2	362	871	41.6
60대	430	770	55.8	57	101	56.4	487	871	55.9
70대	221	291	75.9	65	96	67.7	286	387	73.9
80대이상	81	124	65.3	33	62	53.2	114	186	61.3
계	1,170	2,468	47.4	219	464	47.2	1,389	2,932	47.4

주: 본인부담 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일부부담, 비용보조, 감면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본인부담 및 감면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대상자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사각지대발굴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중은 15.3%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50대의 20.7%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이며, 40대 고독사 사망자 중에 17.8%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임.

〈표 3-45〉 고독사 사망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1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19세이하	0	0	0.0	0	0	0.0	0	0	0.0
20대	3	23	13.0	1	10	10.0	4	33	12.1
30대	19	95	20.0	9	35	25.7	28	130	21.5
40대	68	377	18.0	13	77	16.9	81	454	17.8
50대	168	788	21.3	12	83	14.5	180	871	20.7
60대	107	770	13.9	10	101	9.9	117	871	13.4
70대	28	291	9.6	4	96	4.2	32	387	8.3
80대이상	5	124	4.0	3	62	4.8	8	186	4.3
계	398	2,468	16.1	52	464	11.2	450	2,932	15.3

주: 자격기준

대상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나. 2020년 고독사 사망 전 1년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2020년 고독사 사망자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대상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 연계가 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고 2,742명(남성 2,273명, 여성 469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표 3-46〉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명)	비중(%)	(명)	비중(%)	(명)	비중(%)
19세이하	-	-	-	-	-	-
20대	9	0.4	16	3.4	25	0.9
30대	79	3.5	41	8.7	120	4.4
40대	311	13.7	69	14.7	380	13.9
50대	778	34.2	107	22.8	885	32.3
60대	714	31.4	89	19.0	803	29.3
70대	257	11.3	84	17.9	341	12.4
80대이상	125	5.5	63	13.4	188	6.9
계	2,273	100.0	469	100.0	2,742	100.0

## □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결과

○ 2021년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부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2020년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함.

- 개인별로 사회보장서비스를 1개 이용한 경우는 18.9%이었으며, 2개 이용한 경우 5.4%,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9.2%이었음.
- 전체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유형 수를 22개 유형으로 하였을 때,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11.3%이었음.

〈표 3-4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20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남	18.0	5.5	9.5	25.7	29.7	11.5	100.0
여	23.0	5.3	6.4	28.4	26.7	10.2	100.0
전체 고독사	18.9	5.4	9.0	26.2	29.2	11.3	100.0

〈표 3-4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20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19세이하	0.0	0.0	0.0	0.0	0.0	100.0	100.0
20대	0.0	1.9	5.7	13.2	15.1	64.2	100.0
30대	22.3	8.8	11.5	5.4	10.1	41.9	100.0
40대	30.0	5.0	10.0	22.5	12.0	20.5	100.0
50대	24.1	5.0	10.5	24.3	26.9	9.2	100.0
60대	18.4	6.5	9.7	24.6	36.4	4.4	100.0
70대	4.1	6.0	5.3	38.6	42.6	3.4	100.0
80대이상	0.0	1.7	2.3	50.3	45.8	0.0	100.0
전 연령	18.9	5.4	9.0	26.2	29.2	11.3	100.0

## □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 2020년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0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1.9%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중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43.1%이며, 여성은 35.8%에 해당됨.
-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비중이 가장 높은 49.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70대 46.3%, 50대가 43.6%의 순이었음.

〈표 3-49〉 고독사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1	9	11.1	5	16	31.3	6	25	24.0
30대	14	79	17.7	7	41	17.1	21	120	17.5
40대	102	311	32.8	12	69	17.4	114	380	30.0
50대	342	778	44.0	44	107	41.1	386	885	43.6
60대	345	714	48.3	49	89	55.1	394	803	49.1
70대	125	257	48.6	33	84	39.3	158	341	46.3
80대이상	51	125	40.8	18	63	28.6	69	188	36.7
계	980	2,273	43.1	168	469	35.8	1,148	2,742	41.9

주: 자격기준

수급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긴급지원제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계비 및 의료·주거서비스를 포함한 긴급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고독사 전체 대상자 중에 10.1%이었고, 남성 10.1%, 여성 10.0%이었음.

- 특히, 80대 이상 13.8%, 70대가 12.3%로 높았음.

〈표 3-5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2	9	22.2	2	16	12.5	4	25	16.0
30대	4	79	5.1	5	41	12.2	9	120	7.5
40대	19	311	6.1	5	69	7.2	24	380	6.3
50대	87	778	11.2	7	107	6.5	94	885	10.6
60대	69	714	9.7	9	89	10.1	78	803	9.7
70대	29	257	11.3	13	84	15.5	42	341	12.3
80대이상	20	125	16.0	6	63	9.5	26	188	13.8
계	230	2,273	10.1	47	469	10.0	277	2,742	10.1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긴급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기초연금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3%이며, 남성 30.6%, 여성 40.7%임.

〈표 3-5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3	9	33.3	2	16	12.5	5	25	20.0
30대	11	79	13.9	3	41	7.3	14	120	11.7
40대	53	311	17.0	9	69	13.0	62	380	16.3
50대	108	778	13.9	17	107	15.9	125	885	14.1
60대	188	714	26.3	29	89	32.6	217	803	27.0
70대	216	257	84.0	73	84	86.9	289	341	84.8
80대이상	116	125	92.8	58	63	92.1	174	188	92.6
계	695	2,273	30.6	191	469	40.7	886	2,742	32.3

주: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등 포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연금 등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생활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44.3%이였으며, 남성 44.9%, 여성 41.8 %이였음.

- 생활지원서비스는 70대에서 56.0%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48.7%, 80대 이상 54.8%이였음.

- 생활지원서비스에는 생활물품, 생활품, 생필품, 도시락, 반찬, 간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됨.

〈표 3-5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2	9	22.2	4	16	25.0	6	25	24.0
30대	15	79	19.0	9	41	22.0	24	120	20.0
40대	95	311	30.5	16	69	23.2	111	380	29.2
50대	347	778	44.6	43	107	40.2	390	885	44.1
60대	344	714	48.2	47	89	52.8	391	803	48.7
70대	146	257	56.8	45	84	53.6	191	341	56.0
80대이상	71	125	56.8	32	63	50.8	103	188	54.8
계	1,020	2,273	44.9	196	469	41.8	1,216	2,742	44.3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생활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일자리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28.7%이었음.

- 남성이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30.2%, 여성은 21.5%이었음.
-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50대로 전체의 35.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30대 27.5%, 40대 35.5% 등의 순이었음.

〈표 3-5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4	9	44.4	8	16	50.0	12	25	48.0
30대	23	79	29.1	10	41	24.4	33	120	27.5
40대	120	311	38.6	15	69	21.7	135	380	35.5
50대	283	778	36.4	28	107	26.2	311	885	35.1
60대	204	714	28.6	27	89	30.3	231	803	28.8
70대	45	257	17.5	11	84	13.1	56	341	16.4
80대이상	7	125	5.6	2	63	3.2	9	188	4.8
계	686	2,273	30.2	101	469	21.5	787	2,742	28.7

주: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일자리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에너지·주거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48.1%로, 남성 49.8%, 여성 39.9%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많은 연령층은 60대로, 54.7%에 해당하며, 그다음으로 70대 51.3%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표 3-5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3	9	33.3	5	16	31.3	8	25	32.0
30대	20	79	25.3	6	41	14.6	26	120	21.7
40대	128	311	41.2	19	69	27.5	147	380	38.7
50대	390	778	50.1	47	107	43.9	437	885	49.4
60대	385	714	53.9	54	89	60.7	439	803	54.7
70대	141	257	54.9	34	84	40.5	175	341	51.3
80대이상	64	125	51.2	22	63	34.9	86	188	45.7
계	1,131	2,273	49.8	187	469	39.9	1,318	2,742	48.1

주: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의료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의료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31.6%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31.9%, 여성 30.3%가 의료 지원서비스를 받았음.
- 의료지원서비스에는 의료, 치료, 진단, 질환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 의료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60대로, 37.2%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70대 36.4%이었음.

〈표 3-5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1	9	11.1	5	16	31.3	6	25	24.0
30대	8	79	10.1	6	41	14.6	14	120	11.7
40대	66	311	21.2	9	69	13.0	75	380	19.7
50대	249	778	32.0	31	107	29.0	280	885	31.6
60대	259	714	36.3	40	89	44.9	299	803	37.2
70대	93	257	36.2	31	84	36.9	124	341	36.4
80대이상	48	125	38.4	20	63	31.7	68	188	36.2
계	724	2,273	31.9	142	469	30.3	866	2,742	31.6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의료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건강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88.9%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88.7%, 여성 89.6%가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 건강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70대로, 95.6%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80대 이상 93.1% 등의 순이었음.

〈표 3-5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2	9	22.2	12	16	75.0	14	25	56.0
30대	9	79	11.4	31	41	75.6	40	120	33.3
40대	274	311	88.1	57	69	82.6	331	380	87.1
50대	721	778	92.7	97	107	90.7	818	885	92.4
60대	648	714	90.8	85	89	95.5	733	803	91.3
70대	246	257	95.7	80	84	95.2	326	341	95.6
80대이상	117	125	93.6	58	63	92.1	175	188	93.1
계	2,017	2,273	88.7	420	469	89.6	2,437	2,742	88.9

주: 건강관리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정신건강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3%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이용률은 12.2%이었으며, 여성은 12.4%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70대 14.1%, 80대 이상 21.3%로, 70대이상의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높았음.

〈표 3-5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0	9	0.0	1	16	6.3	1	25	4.0
30대	3	79	3.8	3	41	7.3	6	120	5.0
40대	24	311	7.7	3	69	4.3	27	380	7.1
50대	101	778	13.0	10	107	9.3	111	885	12.5
60대	85	714	11.9	18	89	20.2	103	803	12.8
70대	35	257	13.6	13	84	15.5	48	341	14.1
80대이상	30	125	24.0	10	63	15.9	40	188	21.3
계	278	2,273	12.2	58	469	12.4	336	2,742	12.3

주: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치유·정서·심리지원, 관계형성, 학대/폭력/폭행, 우울, 자살 예방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치매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10.2%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8.4%, 여성 19.2%가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음
-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에서 55.9%, 70대 32.3%, 60대 7.7%이었음.

〈표 3-5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0	9	0.0	0	16	0.0	0	25	0.0
30대	0	79	0.0	0	41	0.0	0	120	0.0
40대	0	311	0.0	0	69	0.0	0	380	0.0
50대	3	778	0.4	1	107	0.9	4	885	0.5
60대	48	714	6.7	14	89	15.7	62	803	7.7
70대	72	257	28.0	38	84	45.2	110	341	32.3
80대이상	68	125	54.4	37	63	58.7	105	188	55.9
계	191	2,273	8.4	90	469	19.2	281	2,742	10.2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치매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본인부담 및 비용보조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본인부담 및 비용보조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4.0%에 해당됨.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 서비스 중에 저소득층 비용감면의 경우가 높음.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보조, 요금감면, 요금 면제 등이 포함됨.

〈표 3-5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2	9	22.2	9	16	56.3	11	25	44.0
30대	9	79	11.4	4	41	9.8	13	120	10.8
40대	75	311	24.1	11	69	15.9	86	380	22.6
50대	302	778	38.8	36	107	33.6	338	885	38.2
60대	359	714	50.3	54	89	60.7	413	803	51.4
70대	181	257	70.4	47	84	56.0	228	341	66.9
80대이상	86	125	68.8	32	63	50.8	118	188	62.8
계	1,014	2,273	44.6	193	469	41.2	1,207	2,742	44.0

주: 본인부담 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일부부담, 비용보조, 감면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사망자중 본인부담 및 감면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사망자 수)×100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대상자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사각지대발굴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중은 11.7%(321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50대의 15.8%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이며, 40대 고독사 사망자 중에 13.7%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임.

〈표 3-6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20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19세이하	0	-	-	0	-	-	0	-	-
20대	1	9	0.0	0	16	0.0	1	25	4.0
30대	11	79	1.0	3	41	7.3	14	120	11.7
40대	42	311	9.0	10	69	14.5	52	380	13.7
50대	126	778	13.0	14	107	13.1	140	885	15.8
60대	71	714	12.0	6	89	6.7	77	803	9.6
70대	23	257	10.0	4	84	4.8	27	341	7.9
80대이상	6	125	4.0	4	63	6.3	10	188	5.3
계	280	2,273	12.3	41	469	8.7	321	2,742	11.7

주: 자격기준

대상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다. 2019년 고독사 사망 전 1년간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2019년 고독사 사망자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대상자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데이터를 연계할 때, 연계가 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하고 2,346명(남성 1,926명, 여성 420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표 3-61〉 분석 대상자의 성·연령별 특성: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명)	전체 고독사 대비 비중(%)	(명)	전체 고독사 대비 비중(%)	(명)	전체 고독사 대비 비중(%)
19세이하	-	-	-	-	-	-
20대	22	1.1	11	2.6	33	1.4
30대	78	4.0	40	9.5	118	5.0
40대	331	17.2	76	18.1	407	17.3
50대	639	33.2	73	17.4	712	30.3
60대	519	26.9	78	18.6	597	25.4
70대	244	12.7	80	19.0	324	13.8
80대이상	93	4.8	62	14.8	155	6.6
계	1,926	100.0	420	100.0	2,346	100.0

## □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결과

- 2021년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현황 부분에서 설명한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2019년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함.
  - 전체 사회보장서비스 이용 유형 수를 22개 유형으로 하였을 때,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12.6%이었음.
- 개인별로 사회보장서비스 유형을 1개 이용한 경우는 22.5%이었으며, 2개 이용한 경우 7.0%, 10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7.3%이었음.

〈표 3-6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성별, 2019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남	22.7	7.3	8.4	22.1	26.6	12.8	100.0
여	21.9	5.5	6.7	24.0	30.5	11.4	100.0
전체 고독사	22.5	7.0	8.1	22.5	27.3	12.6	100.0

〈표 3-6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복지서비스 1개 이상 이용 현황: 연령별, 2019년

(단위: %)

구분	1개	2개	3개	4-9개	10개이상	없음	계
19세이하	12.1	12.1	9.1	21.2	15.2	30.3	100.0
20대	23.7	5.9	9.3	11.9	13.6	35.6	100.0
30대	42.3	6.4	9.3	12.0	16.0	14.0	100.0
40대	27.4	6.0	7.4	21.6	26.1	11.4	100.0
50대	19.8	9.0	9.2	20.8	31.2	10.1	100.0
60대	3.7	8.0	5.6	34.3	39.5	9.0	100.0
70대	0.0	2.6	7.7	43.9	35.5	10.3	100.0
80대이상	22.5	7.0	8.1	22.5	27.3	12.6	100.0
전 연령	18.9	5.4	9.0	26.2	29.2	11.3	100.0

##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2019년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전 1년 동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38.4%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38.7%이며, 여성은 37.1%에 해당됨.

-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비중이 가장 높은 46.6%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50대가 43.1%, 70대 41.0%의 순이었음.

〈표 3-64〉 고독사 사망전 1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수급자 수	고독사 수	수급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6	22	27.3	3	11	27.3	9	33	27.3
30대	19	78	24.4	9	40	22.5	28	118	23.7
40대	85	331	25.7	19	76	25.0	104	407	25.6
50대	273	639	42.7	34	73	46.6	307	712	43.1
60대	235	519	45.3	43	78	55.1	278	597	46.6
70대	101	244	41.4	32	80	40.0	133	324	41.0
80대이상	26	93	28.0	16	62	25.8	42	155	27.1
계	745	1,926	38.7	156	420	37.1	901	2,346	38.4

주: 자격기준

수급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긴급지원제도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계비 및 의료·주거서비스를 포함한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고독사 전체 대상자 중에 6.1%이었고, 남성 5.9%, 여성 6.9%이었음.

- 특히, 60대 9.2%, 70대가 8.0%로 높았음

〈표 3-65〉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긴급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0	22	0.0	0	11	0.0	0	33	0.0
30대	2	78	2.6	2	40	5.0	4	118	3.4
40대	7	331	2.1	3	76	3.9	10	407	2.5
50대	37	639	5.8	4	73	5.5	41	712	5.8
60대	46	519	8.9	9	78	11.5	55	597	9.2
70대	21	244	8.6	5	80	6.3	26	324	8.0
80대이상	1	93	1.1	6	62	9.7	7	155	4.5
계	114	1,926	5.9	29	420	6.9	143	2,346	6.1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긴급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기초연금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2.9%이며, 남성 31.2%, 여성 41.0%임.

〈표 3-66〉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연금 급여 및 연금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6	22	27.3	2	11	18.2	8	33	24.2
30대	17	78	21.8	5	40	12.5	22	118	18.6
40대	51	331	15.4	11	76	14.5	62	407	15.2
50대	78	639	12.2	7	73	9.6	85	712	11.9
60대	153	519	29.5	22	78	28.2	175	597	29.3
70대	216	244	88.5	70	80	87.5	286	324	88.3
80대이상	80	93	86.0	55	62	88.7	135	155	87.1
계	601	1,926	31.2	172	420	41.0	773	2,346	32.9

주: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연금지원서비스(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등 포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긴급지원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생활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37.8 %이었으며, 남성 48.2%, 여성 48.7%이었음.
- 생활지원서비스는 70대에서 58.7%로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37.6%, 80대 이상 38.6%이었음.
- 생활지원서비스에는 생활물품, 생활품, 생필품, 도시락, 반찬, 간식 등의 서비스가 포함됨.

〈표 3-67〉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생활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3	22	13.6	2	11	18.2	5	33	15.2
30대	21	78	26.9	8	40	20.0	29	118	24.6
40대	72	331	21.8	18	76	23.7	90	407	22.1
50대	265	639	41.5	28	73	38.4	293	712	41.2
60대	206	519	39.7	40	78	51.3	246	597	41.2
70대	117	244	48.0	36	80	45.0	153	324	47.2
80대이상	40	93	43.0	30	62	48.4	70	155	45.2
계	724	1,926	37.6	162	420	38.6	886	2,346	37.8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생활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일자리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24.4%이었음.

- 남성이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26.1%, 여성은 16.9%이었음.
  -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은 20대로 전체의 48.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50대 32.7%, 40대 28.0% 등의 순이었음.

〈표 3-68〉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일자리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9	22	40.9	7	11	63.6	16	33	48.5
30대	19	78	24.4	5	40	12.5	24	118	20.3
40대	101	331	30.5	13	76	17.1	114	407	28.0
50대	213	639	33.3	20	73	27.4	233	712	32.7
60대	135	519	26.0	17	78	21.8	152	597	25.5
70대	23	244	9.4	7	80	8.8	30	324	9.3
80대이상	2	93	2.2	2	62	3.2	4	155	2.6
계	502	1,926	26.1	71	420	16.9	573	2,346	24.4

주: 일자리 지원서비스에는 구직, 취업, 직업, 진로, 창업, 자활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일자리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에너지·주거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43.7%로, 남성 44.0%, 여성 42.1%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60대로, 50.9%에 해당하며, 그다음으로 70대 48.5%이었음.

-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표 3-69〉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에너지·주거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7	22	31.8	5	11	45.5	12	33	36.4
30대	20	78	25.6	7	40	17.5	27	118	22.9
40대	103	331	31.1	25	76	32.9	128	407	31.4
50대	305	639	47.7	35	73	47.9	340	712	47.8
60대	259	519	49.9	45	78	57.7	304	597	50.9
70대	120	244	49.2	37	80	46.3	157	324	48.5
80대이상	34	93	36.6	23	62	37.1	57	155	36.8
계	848	1,926	44.0	177	420	42.1	1,025	2,346	43.7

주: 주거복지 지원서비스에는 주거, 거처, 주택, 임대, 리모델링, 에너지, 연탄, 등유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에너지·주거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 의료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의료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31.1%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30.7%, 여성 33.1%가 의료 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지원서비스에는 의료, 치료, 진단, 질환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 의료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은 연령층은 70대로, 38.0%에 해당하며, 그 다음으로 60대 34.8%이었음.

〈표 3-70〉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의료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3	22	13.6	2	11	18.2	5	33	15.2
30대	14	78	17.9	7	40	17.5	21	118	17.8
40대	72	331	21.8	15	76	19.7	87	407	21.4
50대	214	639	33.5	23	73	31.5	237	712	33.3
60대	171	519	32.9	37	78	47.4	208	597	34.8
70대	88	244	36.1	35	80	43.8	123	324	38.0
80대이상	29	93	31.2	20	62	32.3	49	155	31.6
계	591	1,926	30.7	139	420	33.1	730	2,346	31.1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의료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건강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전체의 86.6%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86.7%, 여성 86.4%가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표 3-71〉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건강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4	22	18.2	10	11	90.9	14	33	42.4
30대	16	78	20.5	28	40	70.0	44	118	37.3
40대	265	331	80.1	62	76	81.6	327	407	80.3
50대	584	639	91.4	65	73	89.0	649	712	91.2
60대	492	519	94.8	72	78	92.3	564	597	94.5
70대	235	244	96.3	72	80	90.0	307	324	94.8
80대이상	73	93	78.5	54	62	87.1	127	155	81.9
계	1,669	1,926	86.7	363	420	86.4	2,032	2,346	86.6

주: 건강관리지원서비스에는 건강관리, 검진, 예방접종, U-Health, 위생, 치과보철, 운동, 영양관리 지원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정신건강 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0.8%인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이용률은 10.6%이었으며, 여성은 11.7%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이용률이 높았음.
- 연령별로 보면 70대 15.1%, 80대 이상 15.5%로, 7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높았음.

〈표 3-72〉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1	22	4.5	1	11	9.1	2	33	6.1
30대	6	78	7.7	2	40	5.0	8	118	6.8
40대	18	331	5.4	4	76	5.3	22	407	5.4
50대	78	639	12.2	7	73	9.6	85	712	11.9
60대	49	519	9.4	14	78	17.9	63	597	10.6
70대	37	244	15.2	12	80	15.0	49	324	15.1
80대이상	15	93	16.1	9	62	14.5	24	155	15.5
계	204	1,926	10.6	49	420	11.7	253	2,346	10.8

주: 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는 마음건강, 정신건강, 치유·정서·심리지원, 관계형성, 학대/폭력/폭행, 우울, 자살 예방 지원서비스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치매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는 전체의 12.7%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성 9.8%, 여성 26.0%가 치매 지원서비스를 받음
- 연령별로 보면, 80대 이상에서 61.3%, 70대 41.4%, 60대 10.4%이었음.

〈표 3-73〉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치매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0	22	0.0	0	11	0.0	0	33	0.0
30대	0	78	0.0	0	40	0.0	0	118	0.0
40대	1	331	0.3	0	76	0.0	1	407	0.2
50대	5	639	0.8	1	73	1.4	6	712	0.8
60대	43	519	8.3	19	78	24.4	62	597	10.4
70대	90	244	36.9	44	80	55.0	134	324	41.4
80대이상	50	93	53.8	45	62	72.6	95	155	61.3
계	189	1,926	9.8	109	420	26.0	298	2,346	12.7

주: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치매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지원

○ 고독사 사망자의 사망 이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8.4%에 해당됨.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 지원서비스 중에 저소득층 비용감면의 경우가 높음.
- 본인부담 지원 및 감면 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일부부담, 비용보조, 감면 등이 포함됨.

〈표 3-74〉 고독사 사망 전 1년간 본인부담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성별·연령별, 2019년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수혜자 수	고독사 수	수혜자 비중(%)
19세이하	0	-	0.0	0	-	0.0	0	-	0.0
20대	4	22	18.2	2	11	18.2	6	33	18.2
30대	10	78	12.8	6	40	15.0	16	118	13.6
40대	71	331	21.5	22	76	28.9	93	407	22.9
50대	229	639	35.8	25	73	34.2	254	712	35.7
60대	228	519	43.9	38	78	48.7	266	597	44.6
70대	154	244	63.1	44	80	55.0	198	324	61.1
80대이상	44	93	47.3	25	62	40.3	69	155	44.5
계	740	1,926	38.4	162	420	38.6	902	2,346	38.4

주: 본인부담 지원서비스에는 본인일부부담, 비용보조, 감면 등이 포함됨.

수혜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본인부담 및 감면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 대상자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하여 사각지대발굴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중은 6.0%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에 50대의 8.1%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이며, 40대 고독사 사망자 중에 6.4%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임.

〈표 3-75〉 고독사 사망전 1년간 사각지대발굴 대상자: 성별·연령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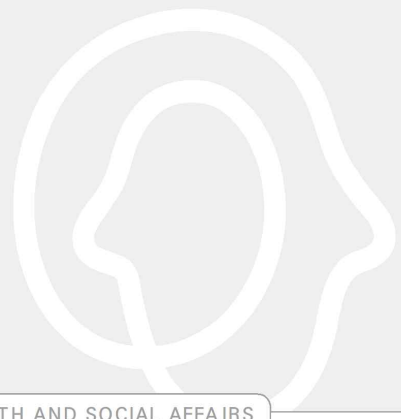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단위: 명, %)

성별	남			여			계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대상자 수	고독사 수	대상자 비중(%)
19세이하	-	-	-	-	-	-	-	-	-
20대	2	22	9.1	0	11	0.0	2	33	6.1
30대	2	78	2.6	0	40	0.0	2	118	1.7
40대	21	331	6.3	5	76	6.6	26	407	6.4
50대	50	639	7.8	8	73	11.0	58	712	8.1
60대	21	519	4.0	8	78	10.3	29	597	4.9
70대	17	244	7.0	1	80	1.3	18	324	5.6
80대이상	2	93	2.2	4	62	6.5	6	155	3.9
계	115	1,926	6.0	26	420	6.2	141	2,346	6.0

주: 자격기준

대상자비중(%)=(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중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수/성별·연령별 고독사 사망자 수)×100





## 제4장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제1절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개요

제2절 고독사 위험군 판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제3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 제 4 장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 제1절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 □ 고독사 위험군 심층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1인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
  - 만 19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위험군 판별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 심층조사를 추가로 수행함.
  - 1인 가구 → 고독사 위험군 판별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심층조사
- 고독사 위험군 심층조사 표본수
  - 실제 조사 완료 표본수 : 1,996명
  - 가중치 부여 후 사례수 : 2,023명
  - 1인 가구를 대표성 있게 추출·조사(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한 후, 고독사 위험군 판별점수가 40점 이상인 조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표본을 1인 가구 모집단 구성에 맞게 보정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 사례수를 분석 결과로 제시함.
- 가중치: 2021년 인구총조사 성 및 연령별 1인가구 통계에 근거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가중
- 조사방법 : 웹조사 + 전화조사 병행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 조사기간: 2022년 11월 22일(월)~2022년 12월 7일(월)

## 2. 조사 방법

### □ 표본설계

- 고독사 위험군을 조사하기 위한 표본설계의 개요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4-1〉 표본설계 내역

구분	내용
모집단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표집틀	2022년 현재 SKT 가입자
표본규모	전국 9,471명(가구)
표본추출방식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① 설계층 : 204개 설계층으로 구성 - 지역(17개), 성 및 연령층(12개)으로 구성 - 지역은 17개 시도로 구분 - 성 및 연령: 성별 2개 층(남, 여) 및 연령별 6개 층(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② 표본 층화 및 추출 방법 - 1차 층화: 17개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12개 성 및 연령별로 층화 - 세부 설계층 내에서 할당된 표본 수만큼 계통 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1.0\%p$
표본배정방식	인구주택총조사 1인 가구 모집단 분포에 맞게 시도*성*연령대별 비례배분
추정식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여 모수를 추정

### □ 모집단 정의

- 조사의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인 가구이며, 목표 표본수는 10,000명임.

### □ 모집단 분석 및 층화

- 17개 시도별 조사데이터의 비교분석 결과에서 일정 수준의 통계적 신뢰성을 갖도록 표본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출단위는 개인
- 층화는 행정구역 구분과 성 및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2차로 층화함.



- 1차 층화 : 시도
- 2차 층화 : 성 및 연령층
  - 성별은 2개 층으로 구분: 남자, 여자
  - 연령은 6개 층으로 구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 표본배분

- 본 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할당요인에 따라 모집단을 부분집단으로 나누고 각 부분집단별 모집단 비율과 표본의 구성 비율이 유사하도록 표본을 선정하는 방식의 비례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함.
- 본 조사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근거해(〈표 4-2〉) 전국 시도별 1인가구의 성, 연령별 분포에 맞게 비례배분함(〈표 4-3〉).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1.0\%$ 임.

〈표 4-2〉 목표 모집단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국	7,111,736	698,726	664,826	782,658	443,376	603,550	346,686	636,990	463,924	521,174	654,934	315,657	979,235
서울	1,479,206	168,029	221,875	187,121	149,538	107,261	81,672	100,265	75,648	80,911	109,996	50,716	146,174
부산	484,088	42,864	47,315	41,495	27,029	33,584	22,095	39,379	32,128	38,810	57,433	24,487	77,469
대구	324,827	29,017	28,580	31,040	17,177	25,233	15,997	29,098	24,910	23,280	36,774	14,150	49,571
인천	353,617	30,312	27,041	40,417	20,698	34,766	18,300	36,157	25,291	28,157	34,972	14,939	42,567
광주	210,253	22,556	22,963	23,591	12,914	19,879	10,563	18,459	14,333	13,386	18,306	7,795	25,508
대전	236,206	36,864	33,231	26,415	14,432	17,706	10,676	17,683	14,416	13,979	19,245	8,157	23,402
울산	132,652	12,200	7,533	16,383	6,141	14,396	6,416	14,336	10,122	11,002	14,219	5,132	14,772
세종	45,033	6,209	6,104	6,679	4,118	4,022	2,777	3,265	2,724	2,073	2,755	1,112	3,195
경기	1,536,045	147,263	117,794	206,357	98,143	158,623	83,865	151,521	104,596	109,390	134,118	59,484	164,891
강원	242,089	24,214	17,163	17,826	9,624	17,128	9,793	24,307	17,706	23,779	25,457	13,895	41,197
충북	249,316	28,984	20,440	25,413	11,463	19,465	10,380	23,636	17,120	20,332	23,168	12,334	36,581
충남	323,683	32,979	26,287	36,098	13,916	28,584	12,449	30,864	20,087	25,947	27,339	17,236	51,897
전북	272,535	25,935	20,359	20,948	11,023	20,655	10,567	25,053	17,604	22,023	25,845	16,185	56,338
전남	272,572	17,191	12,989	19,111	8,597	20,637	9,216	27,790	17,431	25,010	25,875	18,776	69,949
경북	412,702	36,670	25,815	34,866	15,066	31,453	16,387	38,712	28,067	35,739	42,240	24,059	83,628
경남	448,627	31,418	23,072	40,676	18,031	41,064	19,551	46,075	33,943	40,191	49,540	23,486	81,580
제주	88,285	6,021	6,265	8,222	5,466	9,094	5,982	10,390	7,798	7,165	7,652	3,714	10,516

자료 :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표 4-3〉 표본 배분 현황

(단위: 명)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국	10,000	982	936	1,100	623	848	488	895	652	734	922	443	1,377
서울	2,079	236	312	263	210	151	115	141	106	114	155	71	205
부산	680	60	67	58	38	47	31	55	45	55	81	34	109
대구	457	41	40	44	24	35	22	41	35	33	52	20	70
인천	499	43	38	57	29	49	26	51	36	40	49	21	60
광주	296	32	32	33	18	28	15	26	20	19	26	11	36
대전	332	52	47	37	20	25	15	25	20	20	27	11	33
울산	186	17	11	23	9	20	9	20	14	15	20	7	21
세종	65	9	9	9	6	6	4	5	4	3	4	2	4
경기	2,161	207	166	290	138	223	118	213	147	154	189	84	232
강원	341	34	24	25	14	24	14	34	25	33	36	20	58
충북	351	41	29	36	16	27	15	33	24	29	33	17	51
충남	454	46	37	51	20	40	18	43	28	36	38	24	73
전북	382	36	29	29	15	29	15	35	25	31	36	23	79
전남	382	24	18	27	12	29	13	39	25	35	36	26	98
경북	579	52	36	49	21	44	23	54	39	50	59	34	118
경남	631	44	32	57	25	58	27	65	48	57	70	33	115
제주	125	8	9	12	8	13	8	15	11	10	11	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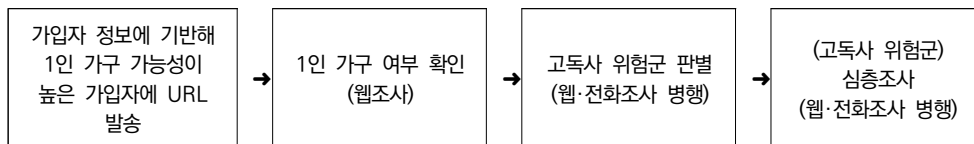
□ 표본추출 틀 및 표본추출

- 본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2022년 10월 현재 SKT 가입자 리스트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1인 가구로 추정되는 만 19세 이상 인구를 추출함.
  - 1인 가구 추출은 SKT의 1인 가구 추정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특정 번호와 가입주소가 같고 뒤 4자리 번호가 같으며 심야시간대 휴대폰의 위치가 같은 경우, 가족결합이 되어있고 심야시간대 휴대폰의 위치가 같은 경우 등은 1인 가구가 아닌 것으로 추가 분류
- 204개 세부 층 내 표본추출은 전화번호로 정렬한 후, 세부 층별로 배분된 표본 수 만큼 계통 추출함.
  - 무응답을 고려하여 예비표본을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과정을 100회 반복하여 예비표본을 제공

□ 자료수집

- SKT 가입자 중 1인 가구일 가능성이 높은 가입자에게 조사 url을 발송해, 1인 가구 판별 → 고독사 위험군 판별(고립지수 측정)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심층조사 단계로 조사를 진행함.
- 응답자가 고령이라 웹조사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1인 가구 여부만 체크하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하였음.

[그림 4-1] 조사 흐름도



□ 자료수집 결과

- 예비표본까지 모두 활용한 결과 본 조사는 총 9,471명이 조사에 참여함(목표 대비 95%).
- 성, 연령, 지역별 표본 완료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4〉 목표 대비 완료율

(단위: 명, %)

구분		목표	완료	완료율
전체		10,000	9,471	95%
성별	남자	5,002	4,862	97%
	여자	4,998	4,609	92%
연령별	20대	1,918	2,245	117%
	30대	1,723	1,841	107%
	40대	1,336	1,339	100%
	50대	1,547	1,439	93%
	60대	1,656	1,447	87%
	70대 이상	1,820	1,160	64%
	지역별	서울	2,079	2,177
부산		680	652	96%
대구		457	431	94%
인천		499	454	91%
광주		296	303	102%
대전		332	336	101%
울산		186	184	99%
세종		65	66	102%
경기		2,161	2,098	97%
강원		341	313	92%
충북		351	321	91%
충남		454	411	91%
전북		382	309	81%
전남		382	302	79%
경북		579	471	81%
경남		631	539	85%
제주		125	104	83%

## □ 가중치 산정

- 최종 완료표본 9,471명에 대한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당 연령 대 모집단의 인구구성비에 맞게 가중치 보정을 실시함.
- 조사 결과는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인구주택총조사 1인 가구 현황 자료에 근거 하여 셀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가중치(weighting)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음.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 i: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i = 1(서울), 2(부산), ..., 17(제주))
- j: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j = 1(남), 2(여))
- k: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k = 1(19-29세), 2(30-39세), 3(40-49세), 4(50-59세), 5(60-69세), 6(70세 이상))
- Nijk: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가구) 수
- nijk: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n: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모집단 전체 인구(가구) 수
- Wijk: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3. 조사 내용

〈표 4-5〉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의 주요 설문내용

구분	설문문항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연령, 지역 혼자 거주 기간 혼인상태, 가족유무
고독사 위험군 판별	실패와 상실감관련 고립적 일상 사회적 고립 이동성 높은 생애 돌봄과 지원 중단
사회경제적 상태	주거유형 주거소유형태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소득원천 및 가구소득 교육수준
고독사 위험군 심층 설문	주요 당면문제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 필요한 복지서비스 건강수준 및 활동제한 정신건강 경제상태

주: 설문지는 부록 1을 참조

#### 4. 조사 대상 응답자의 분포

##### □ 조사대상

- 본 조사는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별된 응답자를 조사
- 가구 조사 → 1인 가구 판별 → 고독사 위험군 판별 →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심층조사 단계로 실시함.

##### □ 조사표본

- 고독사 위험군의 인구학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집단 자료가 없고, 고독사 고위험군 발생률 예측이 어려움.
- 따라서 1인 가구를 대표성 있게 추출·조사하여 고독사 위험군 발생률을 확인하고, 고독사 위험군 심층조사에 참여한 유효표본을 분석에 활용

〈표 4-6〉 위험군 판별을 위한 조사 대상자 및 위험군 심층조사 대상자

(단위: 명)

구분		위험군 판별 표본	위험군 심층조사 대상 (a+b)	위험군 심층조사 완료 (a)	위험군 심층조사 미참여 (b)
성별*	남성	4,742	1,265	1,232	34
	여성	4,729	855	791	63
연령별	19~29세	1,815	179	176	3
	30대	1,631	278	270	8
	40대	1,266	332	327	5
	50대	1,465	518	497	21
	60대	1,568	488	473	16
	70대이상	1,726	324	280	44
지역별	서울	1,971	373	360	13
	부산	644	172	165	6
	대구	433	96	91	5
	인천	471	118	111	7
	광주	279	57	54	3
	대전	315	67	66	1
	울산	177	52	50	2
	경기	2,047	480	464	16
	강원	324	73	68	5
충북	332	74	73	2	

구분		위험군 판별 표본	위험군 심층조사 대상 (a+b)	위험군 심층조사 완료 (a)	위험군 심층조사 미참여 (b)
지역별	충남	432	95	89	6
	전북	363	75	72	3
	전남	360	74	70	4
	경북	549	122	112	10
	경남	598	145	135	11
	제주	117	36	35	1
	세종	59	9	9	-
전체		9,471	2,120	2,023	97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 남성 1,231.6명이고 여성 791.5명으로 분석되어 남성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여성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내림을 하여 전체 2,023명으로 제시함.

## 제2절 고독사 위험군 판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 1. 위험군 선정 방법

□ 고독사 위험군 판별을 위해서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개의 지표를 활용함.

- 첫 번째 지표는 실패 또는 상실감과 관련한 지표로, 이별, 자녀사망, 실직, 실패경험, 동업자의 배신, 수급탈락, 노숙, 폭행 및 폭력을 2개 이상 경험한 경우에 10점을 부여함.
- 두 번째 지표는 고립적 일상과 관련한 지표로, 1주일간 하루평균 식사횟수, 생필품 및 병원진료 등의 필수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지난 1주간 외출횟수, 그리고 1주일간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소통한 횟수가 없거나 1회정도이면 10점을 부여하고, 1주일간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가 1회 이상이면 10점을 부여함.
- 세 번째 지표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지표로,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거나,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에 10점씩 부여함.
- 네 번째 지표는 이동성 높은 생애로, 지난 10년간 이사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직장이직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 10점씩 부여함.



○ 마지막 지표는 돌봄과 지원의 중단으로, 복지서비스나 돌봄(간병)서비스를 받던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10점을 부여함.

□ 고독사 위험군이 40점 이상인 설문 대상자의 경우에는 위험군 심층조사를 추가로 수행함.

〈표 4-7〉 고독사 위험군 판단 지표 및 판단 기준

지표	내용	기준
① 실패, 상실감 누적	·이별(사별, 이혼, 결별)	2개이상(10점) 2개미만(0점)
	·자녀사망	
	·실직	
	·실패(시험, 사업)	
	·동업자 배신	
	·수급 탈락	
	·노숙	
	·폭행/폭력	
② 고립적 일상	·1주일간 하루평균 식사횟수	1회(10점) 2회이상(0점)
	·이외에 지난 1주간 외출 횟수 (생필품구입, 병원진료 등 필수목적의 외출 제외)	없음 (10점) 1회 (10점) 2회이상 (0점)
	·1주일간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	없음 (10점) 1회 (10점) 2회이상 (0점)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	1회이상(10점) 없음 (0점)
③ 사회적 고립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	없음 (10점) 1명이상 (0점)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10점) 1명이상 (0점)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	없음 (10점) 1명이상 (0점)
④ 이동성 높은 생애	·지난 10년간 이사횟수	10회이상(10점)
	·지난 10년동안 직장 이직 횟수(아르바이트 포함)	10회이상(10점)
⑤ 돌봄과 지원 중단	·복지서비스나 돌봄(간병)서비스를 받던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거부	있음 (10점) 없음 (0점)

(총계 기준)

1. 고위험군(70~100점) ⇨ 위험군 심층조사 실시
2. 중위험군(40~60점) ⇨ 위험군 심층조사 실시
3. 저위험군(10~30점)
4. 해당없음(0점)

## 2.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는 9,471명이며, 이 중에 남성은 4,742명, 여성은 4,729명에 해당됨.

○ 연령층으로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19-29세는 1,815명, 30대는 1,631명, 40대는 1,266명, 50대는 1,465명, 60대는 1,568명, 70대 이상은 1,726명임.

□ 고독사 위험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위험군의 경우 70-100점, 중위험군의 경우 40-60점, 저위험군의 경우 10-30점으로 분류하였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는 2.6%, 중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19.8%, 저위험군 56.4%,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21.2%이었음.

○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고위험군 비중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험군 비중도 29.6%로 가장 높은 연령층에 해당됨.

- 그 다음 순으로는 고위험군 비중은 40대에서 4.5%로 높았으며, 중위험군 비중은 60대에서 28.1%로 높았음.

- 지역별로 보면, 고독사 고위험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 3.4%이었고, 그다음으로는 인천/경기 3.1%이었음.

- 주거 소유형태에서는 월세 또는 무상에서 고위험군 비중이 3.9%, 3.5%로 높았음.

- 혼인 여부에서는 별거/이혼/사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위험군 비중이 3.5%로 높았음

- 종사상 지위를 기준하여 보면, 일용직에서 고위험군 비중이 7.3%로 매우 높았음.

-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에서 고위험군 비중이 4.1%로 높았음.

□ 고독사 위험군 중에 10년 이상 혼자 거주한 대상자의 고위험 비중이 3.1%로 가장 높았고, 중위험군도 23.4%로 평균보다 높았음.

〈표 4-8〉 고독사 위험군의 구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명)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계
성별	남성	(4,742)	3.4	23.3	55.3	18.0	100.0
	여성	(4,729)	1.8	16.3	57.6	24.4	100.0
연령별	19~29세	(1,815)	0.9	9.0	58.2	31.9	100.0
	30대	(1,631)	2.0	15.0	59.2	23.8	100.0
	40대	(1,266)	4.5	21.7	55.6	18.2	100.0
	50대	(1,465)	5.8	29.6	49.7	15.0	100.0
	60대	(1,568)	3.1	28.1	54.5	14.3	100.0
	70대 이상	(1,726)	0.4	18.4	60.1	21.1	100.0
지역	서울	(1,971)	1.9	17.0	57.0	24.1	100.0
	인천/경기	(2,518)	3.1	20.6	55.2	21.0	100.0
	대전/충청/세종	(1,138)	2.2	19.4	56.9	21.5	100.0
	광주/전라/제주	(1,119)	2.2	19.5	58.4	19.9	100.0
	대구/경북	(982)	2.1	20.1	58.4	19.4	100.0
	부산/울산/경남	(1,419)	3.4	22.6	54.2	19.8	100.0
	강원	(324)	2.6	20.0	57.5	19.9	100.0
최종학력	고졸이하	(4,461)	3.5	24.5	54.8	17.3	100.0
	대졸이상	(5,010)	1.7	15.7	57.9	24.7	100.0
주거형태	단독주택	(2,148)	2.6	22.3	56.3	18.8	100.0
	연립/다세대	(2,187)	3.0	21.1	56.7	19.2	100.0
	아파트	(3,371)	1.8	18.3	57.4	22.5	100.0
	기타	(1,766)	3.6	18.1	54.4	24.0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2,767)	1.2	15.8	58.2	24.8	100.0
	전세	(1,833)	1.4	15.8	58.3	24.5	100.0
	월세	(4,296)	3.9	23.8	54.6	17.8	100.0
	무상	(575)	3.5	22.0	55.8	18.7	100.0
혼인여부	미혼(연인있음)	(2,116)	1.1	9.4	56.5	33.1	100.0
	미혼(연인없음)	(2,658)	2.6	19.4	57.4	20.6	100.0
	혼인	(794)	2.0	16.7	59.5	21.8	100.0
	별거/이혼/사별	(3,903)	3.5	26.4	55.1	15.0	100.0
종사상지위( 취업자)	정규직	(3,291)	0.9	13.5	57.3	28.2	100.0
	임시직	(1,567)	3.0	22.4	57.2	17.5	100.0
	일용직	(721)	7.3	29.8	52.4	10.6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28)	0.8	12.6	63.5	23.2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501)	3.6	21.6	58.3	16.6	100.0
가구소득	무급가족종사자	(116)	5.1	12.1	62.8	20.0	100.0
	200만원 미만	(4,577)	4.1	25.3	54.4	16.2	100.0
	200~400만원 미만	(3,641)	1.5	14.9	59.5	24.1	100.0
	400~600만원 미만	(862)	0.3	13.0	54.7	32.0	100.0
	600만원 이상	(392)	0.0	15.7	55.5	28.8	100.0
혼자 산 기간	1년	(1,299)	1.6	15.2	56.5	26.7	100.0
	2~3년	(1,839)	2.3	18.4	54.3	24.9	100.0
	4~5년	(1,374)	2.2	18.8	57.4	21.6	100.0
	6년~9년	(1,326)	2.8	17.2	58.5	21.5	100.0
	10년 이상	(3,633)	3.1	23.4	56.3	17.1	100.0
전체		(9,471)	2.6	19.8	56.4	21.2	100.0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고독사 위험군별로 실패와 상실감 경험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에서는 사별, 이혼, 결별 등을 경험한 경우가 74.2%이었고, 중위험군에서는 61.5%, 그리고 저위험군에서는 경험한 경우는 51.3%가 해당됨.
-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고위험군에서는 83.9%, 중위험군에서는 56.4%이었음.
- 사업이나 시험 등에서 실패를 경험한 대상자는 고위험군에서는 79.3%, 중위험군에서는 52.9%가 해당됨.
- 수급 탈락 경험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49.2%, 중위험군에서는 24.7%이었음.

〈표 4-9〉 고독사 위험군별 실패와 상실감(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계
·이별(사별, 이혼, 결별)	74.2	61.5	51.3	32.5	49.9
·자녀사망	4.4	3.6	2.5	0.6	2.4
·실직	83.9	56.4	33.7	8.7	34.2
·실패(시험, 사업)	79.3	52.9	37.0	11.2	35.8
·동업자 배신	39.3	20.1	8.3	0.4	9.8
·수급 탈락	49.2	24.7	9.8	0.6	11.8
·노숙	17.4	5.2	1.1	0.1	2.1
·폭행/폭력	25.6	11.8	6.0	1.3	6.6
·없음	1.6	11.9	23.9	45.3	25.5
전체(응답자수, 명)	(245)	(1,875)	(5,344)	(2,007)	(9,471)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이별~폭행의 8개 항목 중에 2개 이상 항목을 경험한 경우에 10점을 부여함.

- 고독사 위험군별로 고립적 일상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군에서 1주일간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1회인 경우가 63.4%이며, 중위험군의 경우 19.3%에 해당됨.
- 생필품구입, 병원진료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제외하고 지난 1주일간 외출 횟수가 없는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44.2%, 중위험군에서는 21.9%이었음. 그리고 일주일간 1회 외출을 한 경우는 고위험군에서는 47.2%, 중위험군에서는 37.1%이었음.
- 고위험군에서 1주일간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7%이었고, 1회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6.1%이었음.

- 고위험군에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가 1회로 응답한 경우는 29.6%, 2회 이상이 34.4%에 해당됨.

〈표 4-10〉 고독사 위험군별 고립적 일상(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전체
·1주일간 하루평균 식사횟수	(1회)	63.4	19.3	6.2	0.0	9.0
·지난 1주간 외출 횟수(생필품구입, 병원진료 등 필수목적의 외출 제외)	(없음)	44.2	21.9	7.5	0.0	9.7
	(1회)	47.2	37.1	20.7	0.0	20.2
·1주일간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	(없음)	42.7	17.5	2.2	0.0	5.8
	(1회)	46.1	33.6	7.9	0.0	12.3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 술을 마신 횟수 (1회이상)	(1회)	29.6	16.3	8.9	0.0	9.0
	(2회이상)	34.4	14.2	6.4	0.0	7.3
전체(응답자수, 명)		(245)	(1,875)	(5,344)	(2,007)	(9,471)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고독사 위험군별 사회적 고립을 설문한 결과, 고위험군에 속한 집단은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거나,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95% 이상에 해당됨.

- 고독사 중위험군의 경우에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73.8% 이었고,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79.7%,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가 69.1%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1〉 고독사 위험군별 사회적 고립(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전체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	(없음)	95.7	73.8	23.4	0.0	30.3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96.8	79.7	29.5	0.0	34.9
	(없음)	96.3	69.1	14.0	0.0	24.1
전체(응답자수, 명)		(245)	(1,875)	(5,344)	(2,007)	(9,471)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이동성이 높은 생애를 설문하는 항목에서 지난 10년간 이사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7.6%, 중위험군에서 2.0%이었음.
- 지난 10년동안 직장 이직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는 고위험군에서 21.7%, 중위험군에서 5.8%이었음.

〈표 4-12〉 고독사 위험군별 이동성 높은 생애(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전체
·지난 10년간 이사횟수	(10회이상)	7.6	2.0	0.7	0.0	1.0
·지난 10년동안 직장 이직 횟수(아르바이트 포함)	(10회이상)	21.7	5.8	2.5	0.0	3.1
전체(응답자수, 명)		(245)	(1,875)	(5,344)	(2,007)	(9,471)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돌봄 및 지원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고위험군은 26.3%이었고, 중위험군은 10.0%이었음.

〈표 4-13〉 고독사 위험군별 돌봄 및 지원 중단 경험(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고위험군 (70~100점)	중위험군 (40~60점)	저위험군 (10~30점)	해당없음 (0점)	전체
·복지서비스나 돌봄(간병)서비스를 받던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거부 경험		26.3	10.0	3.6	0.0	4.7
전체(응답자수, 명)		(245)	(1,875)	(5,344)	(2,007)	(9,471)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제3절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 고독사 위험군 판별문항을 통하여 70점 이상인 고위험군과 40-60점인 중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추가로 수행함.
- 판별문항 40점 이상인 경우는 2,120명으로, 조사 응답자 전체 9,471명의 22.4%에 해당되었으나, 추가 심층조사의 과정에서 2,023명이 응답하여, 심층조사 대상자 중에 95.4%가 심층 조사를 완료함.

- 고독사 위험군 판별점수의 분포를 보면, 고위험군은 심층조사 대상자 중 11.7%에 해당됨.

〈표 4-14〉 고독사 위험군 판별점수 분포

구분	점수	대상자수(명)	%
고위험군	100점	(3)	0.1
	90점	(18)	0.9
	80점	(56)	2.8
	70점	(161)	7.9
중위험군	60점	(314)	15.5
	50점	(614)	30.3
	40점	(859)	42.5
계		2,023	100.0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15〉 고독사 위험군 심층조사의 조사항목

최근 6개월 생활하며 가장 힘든 점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를 받는 횟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의도적으로 복지상담사나 공공기관 등의 방문을 거부한 경험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거나 받고 싶은 서비스(복수응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장애판정 여부 주된 장애유형 주된 장애의 장애 정도 지난 1년 입원한 경험(복수응답) 지난 1년 요양병원 입원한 일수 지난 1년 요양시설 입원한 일수 지난 1년 그 외 의료기관 입원한 일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시 건강 상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일상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 이유(복수응답) 지난 1년 음주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 지난 1년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 지난 1년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경험 지난 1년 자살 시도 경험 1년 전과 비교할 때 소득 변화 정도 1년 전과 비교할 때 부채 변화 정도 가계부채 상환 가능성 가계부채 예상 상환 시기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 공과금 미납 지속 여부
---

### 1.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60.9%, 여성은 39.1%로 여성보다 남성의 비중이 높았음.
-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4.6%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60대 23.4%, 40대 16.2%이었음.
- 주거소유형태를 보면, 월세가 56.6%로 가장 높았으며,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54.4%이었음.
-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있는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63.0%를 차지함.
-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2~3년간 혼자 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8.0%이었음.

〈표 4-16〉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계	%
성별	남성	1,232	60.9
	여성	791	39.1
연령별	19-29세	176	8.7
	30대	270	13.4
	40대	327	16.2
	50대	497	24.6
	60대	473	23.4
	70대 이상	280	13.9
지역	서울	360	17.8
	인천/경기	575	28.4
	대전/충청/세종	237	11.7
	광주/전라/제주	231	11.4
	대구/경북	203	10.0
	부산/울산/경남	350	17.3
	강원	68	3.4
최종학력	고졸이하	1,172	57.9
	대졸이상	851	42.1



구분		계	%
주거형태	단독주택	496	24.5
	연립/다세대	511	25.2
	아파트	648	32.0
	기타	369	18.2
주거소유 형태	자가	435	21.5
	전세	301	14.9
	월세	1,145	56.6
	무상	142	7.0
혼인여부	미혼(연인있음)	216	10.7
	미혼(연인없음)	566	28.0
	혼인	141	7.0
	별거/이혼/사별	1,100	54.4
종사상지위(취업자)	정규직	463	37.0
	임시직	381	30.4
	일용직	255	20.3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	1.1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20	9.6
	무급가족종사자	19	1.5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75	63.0
	200-400만원 미만	578	28.6
	400-600만원 미만	110	5.5
	600만원 이상	59	2.9
혼자 산 기간	1년	209	10.3
	2~3년	363	18.0
	4~5년	274	13.5
	6년~9년	256	12.7
	10년 이상	921	45.5
전체		2,023	100.0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2.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생활상의 어려운 점

-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을 설문한 결과, 남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36.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의 어려움이 32.7%이었음.
- 30대의 경우는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에 관한 어려움이 38.7%로 가장 높았으나, 40대와 50대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40.5%, 41.4%로 가장 높았음.

○ 50대의 경우, 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회적 관계 문제가 7.8%로 응답하여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남.

〈표 4-17〉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경제적 문제(생계곤란, 부채 등)	36.8	34.9	34.9	37.1	40.5	41.4	35.8	21.5	36.0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32.7	29.7	49.1	38.7	31.9	26.7	27.8	27.9	31.5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건강(질병)문제	9.9	16.1	4.9	3.3	7.4	9.8	15.7	30.4	12.4
사회적 관계 문제(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	6.8	4.1	2.3	5.1	6.3	7.8	5.5	4.5	5.7
주거 문제(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	3.6	4.0	2.4	3.5	2.7	4.3	4.9	3.0	3.7
실직/파산	3.7	3.2	1.0	4.0	5.5	4.6	2.8	1.6	3.5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2.6	2.1	1.0	2.8	1.2	2.1	1.9	5.5	2.4
안전문제(폭력, 범죄노출 등)	0.1	0.5	0.4	0.0	0.5	0.2	0.5	0.0	0.3
기타	0.1	0.1	0.0	0.3	0.0	0.2	0.0	0.0	0.1
없음	3.7	5.2	4.0	5.1	4.0	2.7	5.0	5.6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대해 위험군 판정점수별로 살펴보면, 80점대에서 경제적 문제의 어려움을 응답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높았고, 40 점대에서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의 어려움을 응답하는 비중 34.1%로 가장 높았음.

○ 실직 또는 파산의 경우에 최상위의 고위험군에 집중되어 있었음.

〈표 4-18〉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경제적 문제(생계곤란, 부채 등)	0.0	51.2	54.8	46.4	41.8	34.8	31.5	36.0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28.2	27.8	21.8	29.0	29.9	30.4	34.1	31.5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건강(질병)문제	0.0	5.3	6.1	8.1	8.3	15.1	13.2	12.4
사회적 관계 문제(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	0.0	0.0	6.9	3.3	6.6	7.5	4.7	5.7
주거 문제(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	35.3	5.4	1.6	6.1	3.1	3.0	4.1	3.7
실직/파산	36.6	10.3	5.5	2.5	5.5	2.9	3.1	3.5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0.0	0.0	1.7	1.2	1.6	2.2	3.1	2.4
안전문제(폭력, 범죄노출 등)	0.0	0.0	0.0	0.6	0.0	0.0	0.6	0.3
기타	0.0	0.0	0.0	0.0	0.0	0.2	0.1	0.1
없음	0.0	0.0	1.6	2.7	3.1	3.9	5.6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19〉 최근 6개월간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경제적 문제(생계곤란, 부채 등)	37.9	32.0	35.0	32.3	43.9	42.3	20.7	36.0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31.5	31.2	34.6	34.8	28.2	29.1	36.2	31.5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건강(질병)문제	11.2	13.9	11.0	11.9	11.8	11.6	17.0	12.4
사회적 관계 문제(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	4.6	7.1	8.6	6.8	2.5	3.9	5.5	5.7
주거 문제(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	5.9	3.6	4.0	2.7	2.0	2.6	6.8	3.7
실직/파산	3.9	3.3	2.4	4.1	3.7	3.9	3.8	3.5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1.1	3.1	2.1	2.4	2.9	2.4	1.9	2.4
안전문제(폭력, 범죄노출 등)	0.5	0.1	0.0	0.0	1.1	0.3	0.0	0.3
기타	0.0	0.3	0.0	0.0	0.0	0.0	0.0	0.1
없음	3.3	5.3	2.4	5.1	4.0	3.9	8.1	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3.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

#### 가. 수혜 여부

□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91.6%, 여성의 경우 84.3%가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12.8%, 60대의 경우 쌀, 과일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0%이었음.

〈표 4-20〉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요양보호사 (장기요양)	1.2	3.1	0.0	0.0	0.6	0.0	2.2	9.5	1.9
방문간호사	0.6	0.7	0.0	0.3	0.0	0.4	1.3	1.4	0.6
간병인	0.1	0.1	0.0	0.0	0.0	0.2	0.0	0.4	0.1
노인돌봄서비스	0.6	3.8	0.0	0.0	0.0	0.0	0.2	12.8	1.8
기타 서비스제공인력 방문	0.3	0.8	0.0	0.3	0.5	0.5	0.6	0.8	0.5
도시락배달	0.9	0.5	0.0	0.3	0.6	0.4	0.4	3.0	0.7
쌀, 과일 등 제공	4.3	5.2	0.0	0.9	3.2	5.5	9.0	4.2	4.7
응급알람설치	0.3	0.8	0.0	1.2	0.4	0.2	0.4	0.9	0.5
기타	0.2	0.8	0.4	0.4	0.3	0.4	0.3	0.9	0.4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음	91.6	84.3	99.6	96.7	94.5	92.4	85.6	66.3	88.7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집에서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형에 대해 위험군 판정점수별로 살펴보면, 90 점대에서 방문간호사 또는 쌀, 과일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70점대에서는 요양보호, 방문간호, 도시락배달, 쌀 또는 과일 제공, 응급알람설치 등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나 92.4%가 어떤 서비스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표 4-21〉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요양보호사(장기요양)	0.0	0.0	1.6	1.5	2.1	1.4	2.3	1.9
방문간호사	0.0	5.2	0.0	1.6	0.6	0.3	0.6	0.6
간병인	0.0	0.0	0.0	0.0	0.4	0.2	0.0	0.1
노인돌봄서비스	0.0	0.0	0.0	0.0	0.8	1.1	3.3	1.8
기타 서비스제공인력 방문	0.0	0.0	0.0	0.0	0.6	0.3	0.7	0.5
도시락배달	0.0	0.0	0.0	1.3	0.9	0.6	0.7	0.7
쌀, 과일 등 제공	0.0	8.5	1.7	1.2	4.0	5.4	5.2	4.7
응급알람설치	0.0	0.0	0.0	1.4	0.3	0.5	0.4	0.5
기타	0.0	0.0	1.6	0.7	0.0	0.3	0.6	0.4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음	100.0	86.3	95.0	92.4	90.4	89.9	86.2	88.7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표 4-22〉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복수응답):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계
요양보호사(장기요양)	1.5	1.2	1.9	2.5	1.5	3.7	0.0	1.9
방문간호사	0.7	0.4	0.7	0.4	0.4	1.2	0.0	0.6
간병인	0.0	0.0	0.0	0.5	0.0	0.3	0.0	0.1
노인돌봄서비스	1.9	1.2	1.5	2.2	4.2	1.3	1.9	1.8
기타 서비스제공인력 방문	0.7	0.3	0.0	0.4	2.3	0.0	0.0	0.5
도시락배달	1.8	0.7	0.0	1.4	0.0	0.0	1.6	0.7
쌀, 과일 등 제공	4.4	4.8	5.3	4.7	6.3	3.9	1.9	4.7
응급알람설치	0.5	0.6	0.4	0.0	0.0	1.1	0.0	0.5
기타	0.7	0.2	0.0	1.0	0.0	0.4	1.6	0.4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음	87.8	90.5	90.3	86.9	85.2	88.1	93.0	88.7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나.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있는 경우에 서비스를 받는 횟수는 남성의 경우 한달에 1회 또는 1회 미만이 65.0%이었고, 여성의 경우 49.3%이었음.

〈표 4-23〉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한달에 1회 또는 1회미만(2~3달에 1번)	65.0	49.3	0.0	66.9	67.5	79.2	81.9	26.4	56.4
한달에 2~3회	4.6	7.8	100.0	8.3	22.4	8.1	2.8	4.2	6.3
일주일에 1회	13.9	16.2	0.0	8.3	0.0	7.8	4.8	29.2	15.1
일주일에 2~3회	8.7	9.1	0.0	8.2	10.1	4.9	2.9	14.8	8.9
일주일에 4~5회	7.9	16.5	0.0	8.3	0.0	0.0	7.6	24.0	12.6
일주일에 6회 이상	0.0	1.2	0.0	0.0	0.0	0.0	0.0	1.5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04)	(124)	(1)	(9)	(18)	(38)	(68)	(95)	(228)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표 4-24〉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한달에 1회 또는 1회미만(2~3달에 1번)	-	61.8	100.0	59.8	62.0	57.1	53.2	56.4
한달에 2~3회	-	0.0	0.0	20.1	0.0	5.8	7.1	6.3
일주일에 1회	-	0.0	0.0	0.0	16.3	16.6	16.3	15.1
일주일에 2~3회	-	38.2	0.0	7.4	10.1	12.6	6.5	8.9
일주일에 4~5회	-	0.0	0.0	12.7	11.6	8.0	15.7	12.6
일주일에 6회 이상	-	0.0	0.0	0.0	0.0	0.0	1.2	0.6
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	(2)	(3)	(12)	(30)	(62)	(118)	(228)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표 4-25〉 공공서비스 제공받는 횟수: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한달에 1회 또는 1회미만(2~3달에 1번)	57.4	68.3	70.1	49.6	41.8	46.0	73.1	56.4
한달에 2~3회	10.9	5.6	0.0	0.0	9.8	5.7	26.9	6.3
일주일에 1회	10.4	10.5	21.6	28.6	21.4	10.1	0.0	15.1
일주일에 2~3회	6.4	6.3	8.3	0.0	16.7	17.2	0.0	8.9
일주일에 4~5회	14.9	9.3	0.0	21.9	10.3	17.6	0.0	12.6
일주일에 6회 이상	0.0	0.0	0.0	0.0	0.0	3.4	0.0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44)	(54)	(23)	(30)	(30)	(42)	(5)	(228)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 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문한 결과, 혼자 할 수 있어서 도움이 필요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9.3%이었으나,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13.4%, 방법을 몰라서가 11.0%,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10.3%, 비용부담 6.3%,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가 5.8%에 해당되었음.

〈표 4-26〉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도움이 필요 없어서(아직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서)	50.0	48.2	46.7	56.7	48.7	49.3	48.4	44.4	49.3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13.6	13.2	20.5	14.5	11.6	12.1	13.6	11.4	13.4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 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11.7	9.9	10.4	10.3	15.7	9.1	9.8	12.3	11.0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10.9	9.3	4.8	8.0	8.5	12.0	13.8	10.1	10.3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5.6	7.6	10.8	7.6	4.3	4.9	5.5	8.9	6.3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5.0	7.2	5.4	1.9	8.0	6.5	4.9	8.4	5.8
기타	3.4	4.6	1.5	1.1	3.3	6.2	3.9	4.6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128)	(667)	(175)	(261)	(309)	(459)	(405)	(186)	(1,795)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27〉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도움이 필요 없어서(아직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서)	0.0	6.2	14.7	32.1	44.6	49.4	58.0	49.3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0.0	31.2	21.8	12.2	14.4	12.8	12.9	13.4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 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36.6	12.8	29.1	14.1	12.2	10.3	9.1	11.0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0.0	18.4	15.6	17.2	10.5	11.3	7.7	10.3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0.0	19.0	7.3	10.0	6.2	7.0	4.8	6.3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35.3	0.0	7.7	6.4	7.5	6.5	4.3	5.8
기타	28.2	12.5	3.7	8.0	4.7	2.7	3.2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5)	(53)	(149)	(283)	(552)	(741)	(1,795)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28〉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도움이 필요 없어서(아직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서)	45.6	47.5	55.7	46.9	56.9	48.5	51.9	49.3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16.8	13.2	12.5	16.2	10.8	10.9	12.5	13.4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 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10.9	12.1	11.8	9.7	7.6	11.5	11.4	11.0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10.5	11.5	9.7	11.2	8.4	9.0	10.9	10.3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9.2	6.2	2.6	3.4	7.5	7.6	4.7	6.3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4.8	5.7	5.3	6.8	4.0	7.9	4.6	5.8
기타	2.3	3.7	2.4	5.9	4.7	4.6	4.1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16)	(521)	(214)	(200)	(173)	(308)	(63)	(1,795)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4.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3.4%에 해당됨.

〈표 4-29〉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음	2.3	5.0	3.9	2.0	2.5	2.6	3.5	6.5	3.4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음	27.0	30.5	13.9	20.2	21.1	26.9	30.9	52.2	28.4
방문한 적이 없음	70.7	64.5	82.1	77.7	76.5	70.4	65.7	41.2	6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의도적으로 복지상담사나 공공기관 등의 방문을 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표 4-30〉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음	28.2	21.4	7.0	3.8	4.3	2.3	3.0	3.4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음	36.6	30.1	24.4	30.2	29.2	25.3	30.2	28.4
방문한 적이 없음	35.3	48.5	68.5	66.0	66.5	72.4	66.8	6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31〉 공공서비스 거부 경험: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음	4.3	2.9	3.1	3.9	2.9	3.2	3.8	3.4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음	30.8	24.1	23.6	29.4	35.5	32.1	24.3	28.4
방문한 적이 없음	64.9	73.0	73.3	66.6	61.5	64.7	71.9	6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5.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필요 서비스

□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필요 서비스를 설문한 결과, 식사준비에 대한 필요는 25.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친구만들기가 18.6%이었음.

〈표 4-32〉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식사준비(도시락)	28.2	20.3	26.9	24.1	30.1	22.2	25.8	23.2	25.1
친구만들기	21.7	13.7	24.1	20.5	23.2	19.3	17.0	9.1	18.6
일자리상담	11.3	16.5	6.9	9.5	10.3	14.0	20.9	10.7	13.3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12.2	10.8	20.1	14.1	10.8	13.3	8.2	7.7	11.6
청소세탁	8.3	7.9	7.8	10.2	7.8	8.4	5.0	11.5	8.1
운동문화여가서비스	7.4	9.1	6.2	11.0	6.6	8.4	9.0	6.0	8.1
병원치료	4.3	5.6	4.8	4.0	5.0	5.0	3.9	6.5	4.8
외출(병의원)동행	0.5	3.8	0.0	0.0	0.3	0.0	2.4	8.4	1.8
간병/수발/돌봄/목욕	0.9	2.6	0.5	1.2	1.4	2.1	1.2	2.9	1.6
기타	5.2	9.8	2.7	5.3	4.6	7.4	6.6	14.0	7.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또는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표 4-33〉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식사준비(도시락)	0.0	22.1	27.6	25.6	24.8	22.5	27.0	25.1
친구만들기	28.2	31.7	21.0	19.8	21.4	19.3	16.3	18.6
일자리상담	35.3	16.0	16.0	14.9	15.6	12.2	12.7	13.3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0.0	11.0	17.7	9.3	12.4	12.7	10.7	11.6
청소세탁	36.6	8.5	3.4	7.7	7.4	8.8	8.2	8.1
운동문화여가서비스	0.0	0.0	1.7	5.6	5.1	6.8	11.1	8.1
병원치료	0.0	0.0	10.8	6.1	4.3	5.7	3.8	4.8
외출(병의원)동행	0.0	0.0	0.0	1.5	1.1	2.5	1.7	1.8
간병/수발/돌봄/목욕	0.0	0.0	0.0	2.3	1.6	1.6	1.6	1.6
기타	0.0	10.7	2.0	7.3	6.3	7.8	6.8	7.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또는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표 4-34〉 필요 서비스(복수응답):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식사준비(도시락)	27.9	23.1	26.6	25.5	27.8	21.4	32.1	25.1
친구만들기	17.6	20.0	25.4	16.5	13.2	18.4	11.6	18.6
일자리상담	10.6	12.5	9.4	18.2	15.3	17.3	5.5	13.3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12.2	12.0	11.2	9.6	12.7	12.7	5.2	11.6
청소세탁	8.1	9.2	4.4	8.0	4.6	9.9	14.4	8.1
운동문화여가서비스	8.0	8.8	7.3	10.5	9.4	5.1	8.0	8.1
병원치료	5.2	4.3	5.9	4.2	5.1	4.9	3.9	4.8
외출(병의원)동행	1.2	2.1	1.5	0.0	1.9	2.6	4.0	1.8
간병/수발/돌봄/목욕	1.6	1.7	1.9	0.8	1.0	2.1	1.4	1.6
기타	7.6	6.3	6.3	6.5	9.1	5.6	14.0	7.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또는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습니까

## 6.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료급여 이외)인 경우는 15.2%이었고, 의료급여만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6%이었음.

〈표 4-3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	18.9	2.3	2.0	7.2	15.0	25.3	28.5	1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3.6	6.0	0.3	1.2	3.4	5.2	6.5	7.3	4.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83.6	75.1	97.4	96.7	89.4	79.8	68.2	64.2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3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0.0	16.0	14.2	14.9	16.2	14.3	15.6	1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0.0	5.4	7.1	6.4	4.6	4.6	4.0	4.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100.0	78.7	78.7	78.7	79.2	81.1	80.4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3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6	11.2	16.4	15.9	20.9	15.1	12.1	1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4.4	3.8	4.2	7.5	5.6	3.9	3.7	4.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78.0	85.0	79.4	76.6	73.5	81.0	84.2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나.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 장기요양등급자는 4.3%이나, 장기요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5%이었음.

〈표 4-38〉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장기요양등급자이며 이용중	1.2	2.7	0.0	0.0	0.0	1.4	2.1	6.8	1.8
장기요양등급자이나 이용하지 않음	2.3	2.8	0.0	0.0	0.0	2.4	3.4	8.0	2.5
아님	96.5	94.5	100.0	100.0	100.0	96.2	94.5	85.2	9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39〉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장기요양등급자이며 이용중	0.0	0.0	1.6	1.0	1.1	2.5	1.8	1.8
장기요양등급자이나 이용하지 않음	0.0	8.5	1.6	0.9	2.2	1.1	3.8	2.5
아님	100.0	91.5	96.8	98.1	96.7	96.4	94.5	9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0〉 장기요양등급자 여부: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장기요양등급자이며 이용중	1.6	1.7	1.2	2.0	1.5	2.5	1.6	1.8
장기요양등급자이나 이용하지 않음	3.1	2.3	1.9	3.0	1.6	3.0	2.2	2.5
아님	95.3	96.0	96.9	95.0	96.9	94.5	96.2	9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7.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장애 유형

□ 장애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6%이었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18.4%이었음.

〈표 4-41〉 장애 유무: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장애있음	10.5	10.7	2.8	2.1	8.1	11.1	14.9	18.4	10.6
장애없음	89.5	89.3	97.2	97.9	91.9	88.9	85.1	81.6	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2〉 장애 유무: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장애있음	0.0	16.4	6.7	14.6	9.7	10.5	10.4	10.6
장애없음	100.0	83.6	93.3	85.4	90.3	89.5	89.6	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3〉 장애 유무: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장애있음	9.9	9.6	9.7	10.6	14.9	11.1	10.2	10.6
장애없음	90.1	90.4	90.3	89.4	85.1	88.9	89.8	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4〉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심한장애	27.3	46.9	100.0	42.7	31.7	24.1	37.9	37.3	35.0
심하지 않은 장애	72.7	53.1	0.0	57.3	68.3	75.9	62.1	62.7	6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30)	(85)	(5)	(6)	(26)	(55)	(70)	(52)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5〉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심한장애		34.5	24.1	37.0	38.3	37.7	31.9	35.0
심하지 않은 장애		65.5	75.9	63.0	61.7	62.3	68.1	6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0)	(3)	(4)	(23)	(30)	(64)	(90)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6〉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중증도: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심한장애	45.9	37.5	29.1	26.2	26.3	41.2	13.1	35.0
심하지 않은 장애	54.1	62.5	70.9	73.8	73.7	58.8	86.9	6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	(55)	(23)	(24)	(30)	(39)	(7)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52.8%, 청각장애 10.6%, 시각장애 10.2%이었음.

〈표 4-47〉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지체장애	47.2	61.4	33.5	16.2	39.5	54.5	56.0	59.3	52.8
청각장애	13.3	6.5	29.1	16.6	14.2	4.8	10.3	12.9	10.6
시각장애	9.6	11.1	0.0	41.0	10.7	17.9	4.1	7.7	10.2
정신장애	6.0	9.2	18.3	13.1	10.5	1.6	12.6	2.8	7.3
뇌병변장애	7.9	2.4	0.0	0.0	7.1	7.6	8.8	0.0	5.7
신장장애	3.7	1.8	0.0	0.0	3.7	4.5	1.3	4.0	3.0
호흡기장애	2.3	3.2	0.0	0.0	0.0	0.0	1.3	9.3	2.7
뇌전증장애	2.4	1.1	0.0	0.0	3.5	3.6	0.0	2.2	1.9
언어장애	1.5	1.2	0.0	0.0	3.5	1.9	1.4	0.0	1.4
지적장애	1.4	1.1	0.0	0.0	3.6	0.0	1.3	1.9	1.3
간장애	1.6	0.0	0.0	0.0	0.0	2.0	1.4	0.0	1.0
심장장애	1.6	0.0	0.0	0.0	3.7	0.0	1.5	0.0	0.9
장루·요루장애	0.7	0.9	0.0	13.1	0.0	1.7	0.0	0.0	0.8
자폐성장애	0.7	0.0	19.1	0.0	0.0	0.0	0.0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30)	(85)	(5)	(6)	(26)	(55)	(70)	(52)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8〉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지체장애	-	100.0	100.0	45.0	47.8	45.7	58.2	52.8
청각장애	-	0.0	0.0	13.2	9.4	12.6	9.7	10.6
시각장애	-	0.0	0.0	15.1	5.4	15.9	7.2	10.2
정신장애	-	0.0	0.0	9.8	6.1	9.6	5.9	7.3
뇌병변장애	-	0.0	0.0	0.0	6.8	7.6	5.9	5.7
신장장애	-	0.0	0.0	4.2	9.8	2.4	1.0	3.0
호흡기장애	-	0.0	0.0	4.2	4.7	1.4	2.7	2.7
뇌전증장애	-	0.0	0.0	4.4	3.7	0.0	2.1	1.9
언어장애	-	0.0	0.0	0.0	0.0	3.1	1.1	1.4
지적장애	-	0.0	0.0	0.0	0.0	0.0	3.2	1.3
간장애	-	0.0	0.0	0.0	0.0	1.7	1.1	1.0
심장장애	-	0.0	0.0	0.0	3.2	0.0	1.2	0.9
장루·요루장애	-	0.0	0.0	0.0	3.0	0.0	0.8	0.8
자폐성장애	-	0.0	0.0	4.1	0.0	0.0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0)	(3)	(4)	(23)	(30)	(64)	(90)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49〉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장애 유형: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지체장애	48.7	51.8	49.7	57.3	56.8	50.7	71.1	52.8
청각장애	5.2	12.0	23.1	9.8	6.1	12.1	0.0	10.6
시각장애	12.7	15.1	23.1	0.0	3.2	4.2	15.8	10.2
정신장애	15.2	7.0	0.0	5.4	0.0	10.6	13.1	7.3
뇌병변장애	8.0	3.5	4.1	14.1	3.1	5.6	0.0	5.7
신장장애	0.0	1.7	0.0	0.0	11.3	5.3	0.0	3.0
호흡기장애	2.7	2.0	0.0	5.2	3.0	3.7	0.0	2.7
뇌전증장애	2.6	0.0	0.0	3.8	7.1	0.0	0.0	1.9
언어장애	0.0	3.5	0.0	4.3	0.0	0.0	0.0	1.4
지적장애	2.7	0.0	0.0	0.0	6.2	0.0	0.0	1.3
간장애	0.0	1.7	0.0	0.0	0.0	2.8	0.0	1.0
심장장애	0.0	0.0	0.0	0.0	3.2	2.7	0.0	0.9
장루·요루장애	2.1	1.7	0.0	0.0	0.0	0.0	0.0	0.8
자폐성장애	0.0	0.0	0.0	0.0	0.0	2.4	0.0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	(55)	(23)	(24)	(30)	(39)	(7)	(214)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8.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건강수준

□ 지난 1년간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는 19.7%이었고 50대 21.6%, 60대 22.7%, 70대 이상 29.0%이었음.

〈표 4-50〉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입원(요양병원)	0.8	1.1	0.0	0.3	0.9	0.8	1.2	1.9	0.9
입원(요양시설)	0.1	0.4	0.0	0.0	0.0	0.6	0.0	0.5	0.2
입원(그외 의료기관)	15.5	23.3	13.6	9.0	15.5	20.3	21.4	26.6	18.6
입원한 적 없음	83.6	75.2	86.4	90.7	83.6	78.4	77.3	71.0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1〉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입원(요양병원)	0.0	0.0	1.6	2.4	0.3	1.2	0.7	0.9
입원(요양시설)	0.0	0.0	0.0	0.6	0.0	0.0	0.4	0.2
입원(그외 의료기관)	63.4	21.3	23.5	18.3	17.9	17.7	19.0	18.6
입원한 적 없음	36.6	78.7	74.9	78.8	81.8	81.1	79.9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2〉 지난 1년간 입원 경험 (복수응답):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입원(요양병원)	1.2	1.1	0.7	0.9	0.5	0.9	0.0	0.9
입원(요양시설)	0.7	0.3	0.0	0.0	0.0	0.0	0.0	0.2
입원(그외 의료기관)	17.2	19.7	14.7	21.2	20.8	18.4	15.2	18.6
입원한 적 없음	80.9	78.9	84.5	77.9	78.7	80.7	84.8	8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9.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활동제한

□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78.8%이었으나 17.2%는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4.0%는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4-53〉 활동제한: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79.5	77.6	82.4	89.1	81.4	81.0	78.4	60.2	78.8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16.4	18.4	14.3	8.1	15.7	16.5	17.3	30.6	17.2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움	4.1	4.0	3.3	2.8	2.9	2.5	4.4	9.2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4〉 활동제한: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36.6	53.4	70.1	72.1	76.4	79.0	81.9	78.8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63.4	35.7	25.0	19.4	19.5	18.4	14.0	17.2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움	0.0	10.9	4.9	8.4	4.1	2.6	4.1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5〉 활동제한: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77.3	80.7	80.0	76.9	81.8	75.9	78.6	78.8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18.1	15.7	15.8	18.5	16.5	18.9	18.4	17.2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움	4.6	3.6	4.3	4.6	1.7	5.2	3.0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활동제한이 되는 원인 질환에 대해 골절 또는 관절부상이 21.6%이며, 우울/불안/정서상문제가 13.6%이었음.

〈표 4-56〉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b>골절,관절부상</b>	<b>20.0</b>	<b>23.8</b>	<b>8.4</b>	<b>19.5</b>	<b>20.8</b>	<b>28.7</b>	<b>18.7</b>	<b>22.8</b>	<b>21.6</b>
기타손상	5.8	4.1	2.3	10.3	11.1	5.7	5.8	0.0	5.1
관절염,류마티즘	9.1	14.4	0.0	0.0	3.1	10.0	18.3	16.4	11.3
심장질환	5.5	3.8	0.0	3.3	0.0	5.1	6.9	7.0	4.8
호흡문제,폐질환,천식	3.4	4.3	2.9	6.7	0.0	4.1	3.7	5.1	3.8
뇌졸중	4.2	0.0	0.0	0.0	3.1	1.9	4.7	1.8	2.5
당뇨병	9.7	6.8	0.0	15.1	7.8	9.1	8.0	9.3	8.5
고혈압	8.3	2.7	3.0	6.8	9.3	4.0	8.6	4.2	6.0
등,목의 문제	3.3	2.5	4.9	0.0	4.6	5.9	2.8	0.0	3.0
암	2.1	4.0	0.0	0.0	0.0	2.9	3.6	5.4	2.9
치아 및 구강질환	5.4	1.6	5.1	0.0	4.6	4.9	3.7	3.1	3.8
시력문제	1.9	3.7	6.1	2.5	1.5	3.2	0.9	3.5	2.7
청각문제	0.4	1.5	1.7	0.0	0.0	1.0	0.0	1.9	0.8
<b>우울/불안/정서상문제</b>	<b>13.1</b>	<b>14.4</b>	<b>62.6</b>	<b>23.0</b>	<b>26.3</b>	<b>7.0</b>	<b>7.0</b>	<b>2.3</b>	<b>13.6</b>
정신지체	0.4	0.0	0.0	3.1	0.0	0.0	0.0	0.0	0.2
노령	1.1	0.8	0.0	0.0	0.0	0.0	0.0	3.9	1.0
어지럼증	0.4	0.8	0.0	3.2	0.0	0.0	1.4	0.0	0.6
무릎,다리통증 (관절염제외)	1.5	3.6	0.0	0.0	3.1	1.0	1.9	4.8	2.4
두통	0.8	0.7	0.0	3.1	0.0	0.0	1.0	1.1	0.7
기타	3.7	6.6	3.0	3.2	4.7	5.5	2.8	7.4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252)	(177)	(31)	(29)	(61)	(94)	(102)	(112)	(429)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7〉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b>골절,관절부상</b>	<b>0.0</b>	<b>35.8</b>	<b>29.6</b>	<b>13.2</b>	<b>23.9</b>	<b>20.4</b>	<b>22.5</b>	<b>21.6</b>
기타손상	0.0	0.0	11.3	8.5	5.9	1.5	6.4	5.1
관절염,류마티즘	0.0	12.1	19.1	8.2	2.5	16.2	11.4	11.3
심장질환	0.0	0.0	0.0	2.1	8.1	4.1	5.4	4.8
호흡문제,폐질환,천식	0.0	0.0	0.0	4.3	5.7	5.6	1.9	3.8
뇌졸중	0.0	0.0	0.0	0.0	1.3	2.3	4.3	2.5
당뇨병	0.0	40.5	5.6	0.0	13.7	6.0	9.1	8.5
고혈압	0.0	0.0	0.0	8.4	3.8	10.3	3.8	6.0
등,목의 문제	0.0	0.0	0.0	10.4	0.7	3.0	2.4	3.0
암	0.0	0.0	0.0	2.0	3.1	0.7	5.4	2.9
치아 및 구강질환	0.0	0.0	0.0	8.7	2.5	4.3	3.2	3.8
시력문제	0.0	11.5	0.0	5.9	1.3	3.9	1.3	2.7
청각문제	0.0	0.0	0.0	0.0	0.0	2.4	0.3	0.8
<b>우울/불안/정서상문제</b>	<b>100.0</b>	<b>0.0</b>	<b>34.4</b>	<b>15.2</b>	<b>19.8</b>	<b>12.5</b>	<b>8.7</b>	<b>13.6</b>
정신지체	0.0	0.0	0.0	2.0	0.0	0.0	0.0	0.2
노령	0.0	0.0	0.0	0.0	0.0	0.0	2.8	1.0
어지럼증	0.0	0.0	0.0	3.3	1.3	0.0	0.0	0.6
무릎,다리통증 (관절염제외)	0.0	0.0	0.0	4.2	3.9	0.0	3.5	2.4
두통	0.0	0.0	0.0	0.0	0.0	1.7	0.6	0.7
기타	0.0	0.0	0.0	3.4	2.5	5.2	7.1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2)	(8)	(17)	(45)	(74)	(129)	(156)	(429)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58〉 활동제한 원인 질환 (복수응답):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계
<b>골절, 관절부상</b>	<b>20.7</b>	<b>19.4</b>	<b>13.3</b>	<b>29.8</b>	<b>16.6</b>	<b>26.6</b>	<b>23.4</b>	<b>21.6</b>
기타손상	5.5	3.3	1.9	13.2	2.5	5.8	0.0	5.1
관절염, 류마티즘	8.1	7.4	29.2	5.3	17.8	8.8	18.6	11.3
심장질환	3.5	5.3	3.8	8.3	0.0	6.7	0.0	4.8
호흡문제, 폐질환, 천식	3.5	7.2	1.8	0.0	5.8	2.8	0.0	3.8
뇌졸중	4.7	1.7	3.9	0.0	2.5	2.5	0.0	2.5
당뇨병	14.8	8.9	2.0	5.5	7.5	9.1	0.0	8.5
고혈압	5.7	7.0	7.1	3.7	7.9	4.8	6.6	6.0
등, 목의 문제	2.3	8.5	0.0	1.6	0.0	0.0	3.8	3.0
암	1.2	0.0	7.4	5.0	4.8	4.1	0.0	2.9
치아 및 구강질환	1.1	5.1	7.2	0.0	8.0	2.7	7.1	3.8
시력문제	2.0	6.1	1.9	1.8	0.0	0.0	7.6	2.7
청각문제	0.0	0.8	1.1	0.0	5.8	0.0	0.0	0.8
<b>우울/불안/정서상문제</b>	<b>17.6</b>	<b>10.2</b>	<b>8.4</b>	<b>14.7</b>	<b>12.3</b>	<b>15.5</b>	<b>22.9</b>	<b>13.6</b>
정신지체	1.1	0.0	0.0	0.0	0.0	0.0	0.0	0.2
노령	1.8	0.0	3.3	2.5	0.0	0.0	0.0	1.0
어지럼증	0.0	0.0	0.0	0.0	0.0	1.1	10.1	0.6
무릎, 다리통증 (관절염제외)	1.2	2.8	5.7	0.0	2.6	2.9	0.0	2.4
두통	0.0	0.8	0.0	0.0	0.0	2.6	0.0	0.7
기타	5.2	5.3	1.8	8.6	5.8	3.9	0.0	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82)	(111)	(48)	(53)	(37)	(84)	(15)	(429)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10.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정신건강

□ 지난 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이며, 50대의 경우 7.2%가 알코올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4-59〉 지난 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있음	5.6	6.3	5.1	5.8	6.6	7.2	5.3	4.4	5.9
없음	94.4	93.7	94.9	94.2	93.4	92.8	94.7	95.6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0〉 지난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있음	28.2	10.3	13.0	9.9	5.9	4.9	5.2	5.9
없음	71.8	89.7	87.0	90.1	94.1	95.1	94.8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1〉 지난1년간 알코올 상담 경험 여부: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있음	7.9	4.5	4.5	8.7	3.7	7.4	1.6	5.9
없음	92.1	95.5	95.5	91.3	96.3	92.6	98.4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이며 남성 5.6%, 여성 6.3%로 여성의 응답률이 높았음.

〈표 4-62〉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있음	5.6	6.3	5.1	5.8	6.6	7.2	5.3	4.4	5.9
없음	94.4	93.7	94.9	94.2	93.4	92.8	94.7	95.6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3〉 지난 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있음	28.2	10.3	13.0	9.9	5.9	4.9	5.2	5.9
없음	71.8	89.7	87.0	90.1	94.1	95.1	94.8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4〉 지난1년간 정신적 문제로 인한 상담 경험 여부: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있음	7.9	4.5	4.5	8.7	3.7	7.4	1.6	5.9
없음	92.1	95.5	95.5	91.3	96.3	92.6	98.4	9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지난 1년간 자살계획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8.5%이었으며,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4%이었음.

〈표 4-65〉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 시도 경험: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자살계획									
- 있음	18.0	19.3	20.7	15.4	17.8	20.4	20.8	13.7	18.5
- 없음	82.0	80.7	79.3	84.6	82.2	79.6	79.2	86.3	81.5
자살시도									
- 있음	6.2	6.7	8.0	4.9	7.1	7.2	7.2	3.3	6.4
- 없음	93.8	93.3	92.0	95.1	92.9	92.8	92.8	96.7	9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6〉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경험: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자살계획								
- 있음	64.7	56.6	49.6	32.5	23.0	17.4	12.1	18.5
- 없음	35.3	43.4	50.4	67.5	77.0	82.6	87.9	81.5
자살시도								
- 있음	64.7	35.1	30.5	14.2	7.5	5.0	3.2	6.4
- 없음	35.3	64.9	69.5	85.8	92.5	95.0	96.8	9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7〉 지난 1년간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 경험: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자살계획								
- 있음	24.9	18.7	15.9	22.4	11.0	17.1	9.0	18.5
- 없음	75.1	81.3	84.1	77.6	89.0	82.9	91.0	81.5
자살시도								
- 있음	8.8	6.0	4.5	7.2	2.8	7.8	4.5	6.4
- 없음	91.2	94.0	95.5	92.8	97.2	92.2	95.5	9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11.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경제수준 변화

□ 1년전 대비 소득 변화를 설문한 결과, '약간 감소했다'가 16.4%, '크게 감소했다'가 20.0%이었고 '크게 증가했다' 1.2%, '약간 증가했다'가 14.9%이었음.

〈표 4-68〉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크게 증가했다	1.3	1.0	2.9	1.4	1.4	0.9	1.2	0.0	1.2
약간 증가했다	16.2	12.8	32.2	29.4	17.6	11.0	8.4	4.5	14.9
동일하다	44.6	52.1	33.3	41.3	41.6	43.1	50.9	71.7	47.5
약간 감소했다	17.6	14.6	19.8	10.5	15.6	19.7	17.3	13.7	16.4
크게 감소했다	20.3	19.6	11.8	17.4	23.8	25.4	22.2	10.2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69〉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크게 증가했다	0.0	0.0	0.0	1.2	0.8	1.3	1.3	1.2
약간 증가했다	0.0	8.5	6.0	9.8	11.3	13.4	18.9	14.9
동일하다	0.0	43.3	41.1	44.9	45.0	50.6	47.4	47.5
약간 감소했다	0.0	15.7	18.6	12.4	18.6	18.6	14.7	16.4
크게 감소했다	100.0	32.5	34.3	31.7	24.3	16.1	17.7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0〉 1년전 대비 소득 변화: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크게 증가했다	1.2	1.6	0.8	0.0	1.3	1.6	0.0	1.2
약간 증가했다	15.8	17.7	14.1	12.6	13.9	11.5	16.5	14.9
동일하다	45.7	44.0	51.5	49.4	52.1	47.6	52.8	47.5
약간 감소했다	15.7	13.7	15.7	17.5	17.0	21.3	14.6	16.4
크게 감소했다	21.6	23.0	17.9	20.6	15.7	17.9	16.1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1년전 대비 부채 변화를 설문한 결과, ‘크게 증가했다’ 17.0%, ‘약간 증가했다’가 19.4%이었으나, ‘약간 감소했다’가 9.6%, ‘크게 감소했다’가 3.1%이었음.

〈표 4-71〉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크게 증가했다	19.2	13.6	17.5	22.5	25.8	20.9	11.0	4.5	17.0
약간 증가했다	19.9	18.6	21.4	18.2	24.3	22.6	18.2	10.1	19.4
동일하다	47.5	56.1	51.4	44.7	35.4	41.3	56.3	82.3	50.9
약간 감소했다	10.3	8.4	7.4	11.9	11.3	11.4	9.8	3.0	9.6
크게 감소했다	3.0	3.3	2.3	2.7	3.2	3.8	4.7	0.0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2〉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크게 증가했다	100.0	56.7	30.4	23.4	23.4	15.4	12.7	17.0
약간 증가했다	0.0	11.0	15.0	22.7	20.8	20.1	18.4	19.4
동일하다	0.0	21.7	36.8	44.1	41.8	52.1	56.3	50.9
약간 감소했다	0.0	10.6	10.5	6.4	10.0	10.5	9.3	9.6
크게 감소했다	0.0	0.0	7.3	3.4	4.0	2.0	3.3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3〉 1년전 대비 부채 변화: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크게 증가했다	17.3	19.6	14.7	13.3	17.0	17.0	14.8	17.0
약간 증가했다	19.4	18.2	20.0	22.7	19.3	20.3	12.6	19.4
동일하다	52.4	46.6	52.8	51.1	54.0	51.4	60.4	50.9
약간 감소했다	7.8	11.4	10.3	10.3	6.9	9.0	9.1	9.6
크게 감소했다	3.1	4.3	2.1	2.7	2.8	2.3	3.0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부채상환의 가능성에 대해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0.5%이었음.

〈표 4-74〉 부채상환 가능성: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부채 없음	29.8	42.3	41.1	25.5	20.6	25.3	35.7	71.1	34.7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26.1	18.5	35.5	37.4	33.2	22.3	16.0	3.5	23.1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대출기한 이후 수 년 이내로는 갚을 수 있다	23.0	19.4	16.7	23.7	27.3	27.5	18.4	11.0	21.6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21.0	19.8	6.7	13.4	18.9	25.0	30.0	14.3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5〉 부채상환 가능성: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부채 없음	0.0	5.4	23.4	18.5	25.2	37.6	40.6	34.7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0.0	5.7	11.9	23.8	21.6	22.5	25.2	23.1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대출기한 이후 수 년 이내로는 갚을 수 있다	0.0	35.6	16.6	26.2	26.1	22.2	18.8	21.6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100.0	53.4	48.0	31.4	27.1	17.7	15.5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6〉 부채상환 가능성: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 세종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계
부채 없음	35.8	31.1	34.3	38.1	39.7	32.7	44.9	34.7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25.5	24.2	26.9	22.9	16.3	20.6	22.6	23.1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대출기한 이후 수 년 이내로는 갚을 수 있다	20.7	23.3	20.3	21.0	21.1	21.9	18.8	21.6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18.0	21.4	18.6	18.0	22.9	24.7	13.7	2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12. 고독사 심층조사 대상 위험군의 공과금 연체 현황

□ 공과금 연체 현황을 보면, 미납이 지속되는 경우는 3.8%, 일시적 미납 상태는 18.0%이었음.

〈표 4-77〉 공과금 연체 현황: 성별·연령별

(단위: 명, %)

구분	남	여	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미납 지속	3.6	4.0	3.7	1.7	4.4	5.8	3.6	1.8	3.8
미납이 있지만 일시적	19.8	15.3	24.2	20.8	22.6	22.1	14.5	5.0	18.0
없음	76.6	80.7	72.0	77.4	73.1	72.1	81.9	93.1	7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1,232)	(792)	(176)	(270)	(327)	(497)	(473)	(280)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8〉 공과금 연체 현황: 위험군 판정점수별

(단위: 명, %)

구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40점	계
미납 지속	36.6	10.4	13.0	5.6	4.7	3.5	2.5	3.8
미납이 있지만 일시적	63.4	48.4	37.0	31.5	19.4	17.5	13.5	18.0
없음	0.0	41.2	50.0	62.9	76.0	79.0	84.1	7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	(18)	(56)	(161)	(314)	(614)	(859)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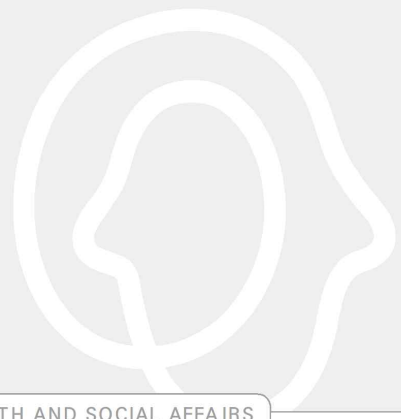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표 4-79〉 공과금 연체 현황: 지역별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계
미납 지속	2.9	4.0	5.0	3.3	2.0	5.2	1.6	3.8
미납이 있지만 일시적	17.4	18.3	13.3	22.8	16.8	18.7	19.8	18.0
없음	79.7	77.7	81.7	73.9	81.2	76.1	78.6	78.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명)	(360)	(575)	(237)	(231)	(203)	(350)	(68)	2,023

주: 조사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임.



# 제5장

##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제1절 고독사 인식조사 개요

제2절 고독사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 제 5 장 고독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 제1절 고독사 인식조사 개요

### 1. 조사 개요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 조사표본 : 1,000명
- 표본추출 : 2022년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한 17개 시도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  $\pm$  3.1%)
- 조사방법 :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CAWI/CAMI)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 □ 표본설계

- 모집단: 2022년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 표집틀
  - 한국리서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풀(Pool)인 마스터 샘플(Master Sample) 활용
  - 마스터 샘플은 전국의 국민을 지역, 성-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73만 명의 응답자 패널임.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은 대면 면접, 집전화 면접, 휴대전화 면접, e-mail 설문응답, 집단 면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집된 점, 타 기관 제공 없이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만 활용되는 국내 유일의 폐쇄형 패널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표 5-3〉 고독사 인식조사의 주요 설문내용

구분	설문문항
주관적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li> <li>•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 거라 여기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li> <li>• 혼자 살고 계신다면,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 거라 여기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li> </ul>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십니까?</li> <li>• 가족이 있어도 고독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고 여기십니까?</li> </ul>
고독사 정의에 대한 주관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사망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li> </ul>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li> <li>•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이다</li> <li>• 고독사는 사회적인 문제이다</li> <li>• 고독사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겪는 것이다</li> <li>• 고독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다</li> <li>• 고독사는 인근, 이웃에 폐를 끼친다</li> <li>•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한다</li> <li>•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li> <li>• 심각한 고독,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 생각한다</li> </ul>
고독사 정책 중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65세이상)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중장년층(40-64세)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청년층(20-39세)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li>•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현 수준보다 강화한다면 어느 연령층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선택하면 무엇입니까?</li> <li>• 동네 주민 중에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이장, 통장 등에게 신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국가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2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입니까?</li> <li>• 1인 가구에 응급알람장치 및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플랫폼 설치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십니까?</li> <li>•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지지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li> <li>•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li> </ul>
고독사 예방 지원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웃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령 고독사가 발생하더라도 유품정리, 공영장례 등 사후 지원체계를 마련해 고인의 죽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 귀하께서 매월 1천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li> </ul>

주: 설문지는 [부록 2]를 참조

## 2.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00명을 무작위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성별에 따른 인구 구성은 남성이 49.6%, 여성이 50.4%임.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0.7%로 가장 많고, 50~59세 19.7%, 40~49세 48.7%, 19~29세 15.9%, 30~39세 15.0% 순임.
-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52.6%, 대학교 졸업 이상이 43.0%, 중학교 졸업 이하 4.4%임.
- 거주지역은 인천/경기가 31.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 18.6%, 부산/울산/경남 15.0% 순임.
- 가구원 수는 4인 이상 가구가 29.1%, 3인 28.3%, 2인 26.6%, 1인 16.0%임.
- 주거 소유 형태는 자가 60%, 월세 20.3%, 전세 17.5%, 무상 1.9% 임.
- 응답자 중 기혼자가 56.9%, 미혼이면서 연인이 없는 경우가 17.8%, 미혼이면서 연인이 있는 경우가 13.3%. 별거/이혼/사별이 12.0%임.
- 종사상지위는 정규직 근로자가 49.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임시직 근로자 24.3%, 일용직 근로자 10.5%, 무급가족종사자 5.9%,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8.3%.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0% 순임.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36.3%로 가장 많고, 200만원 미만 23.2%,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2.2%, 600만원 이상이 18.3% 순임.

〈표 5-4〉 고독사 인식조사 응답자 분포: 일반현황

(단위: 명, %)

구분	항목	응답자수(명)	(%)
성별	남	496	49.6
	여	504	50.4
연령별	19-29세	159	15.9
	30대	150	15.0
	40대	187	18.7
	50대	197	19.7
	60대 이상	307	30.7
지역	서울	186	18.6
	인천/경기	317	31.7
	대전/충청/세종	110	11.0
	광주/전라/제주	111	11.1
	대구/경북	96	9.6
	부산/울산/경남	150	15.0
	강원	30	3.0
최종학력	중졸이하	44	4.4
	고졸	526	52.6
	대졸이상	430	43.0
가구원수	1인	160	16.0
	2인	266	26.6
	3인	283	28.3
	4인 이상	291	29.1
주거소유형태	자가	603	60.3
	전세	175	17.5
	월세	203	20.3
	무상	19	1.9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133	13.3
	미혼(연인 없음)	178	17.8
	결혼	569	56.9
	별거/이혼/사별	120	12.0
종사상지위	정규직	350	49.1
	임시직	173	24.3
	일용직	75	10.5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	2.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59	8.3
	무급가족종사자	42	5.9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2	23.2
	200-400만원 미만	363	36.3
	400-600만원 미만	222	22.2
	600만원 이상	183	18.3
계		1,000	100.0

## 제2절 고독사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

### 1. 주관적 외로움 수준

-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8.7%, 그렇지 않다(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34.1%임.
-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남성은 37.3%로 여성(37.1%)보다 약간 더 많음.
- 연령대가 낮은 집단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바, 특히 50세 미만 성인의 약 1/3 이상이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군별로 30대가 36.0%로 외로움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19~29세가 35.8%, 40대 32.1%, 50대 27.4%, 60대 이상 20.2% 순임.
-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1인 가구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별거/이혼/사별한 경우가 40.0%로 가장 많음.
  - 가구원 수별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1인 가구 44.4%, 3인 가구 30.0%, 2인 가구 25.9%, 4인 이상 가구 21.3% 순임.
  -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별거/이혼/사별 40.0%, 미혼(연인 있음) 36.8%, 미혼(연인 없음) 36.5%, 결혼 22.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함.
-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주관적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이 28.1%, 600만원 이상이 26.8%,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이 21.2%임.

〈표 5-5〉 주관적 외로움 수준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성별	남	10.7	16.1	37.3	26.4	9.5	100.0
	여	10.1	20.4	37.1	24.2	8.1	100.0
연령별	19-29세	11.9	23.9	34.0	19.5	10.7	100.0
	30대	16.7	19.3	38.0	20.0	6.0	100.0
	40대	11.8	20.3	40.1	20.3	7.5	100.0
	50대	8.6	18.8	35.0	29.9	7.6	100.0
	60대 이상	6.8	13.4	38.1	30.9	10.7	100.0
가구원수	1인	20.6	23.8	35.0	15.6	5.0	100.0
	2인	8.6	17.3	35.0	29.3	9.8	100.0
	3인	10.2	19.8	36.7	24.7	8.5	100.0
	4인 이상	6.5	14.8	40.9	27.5	10.3	100.0
결혼 상태	미혼(연인 있음)	12.0	24.8	30.1	24.8	8.3	100.0
	미혼(연인 없음)	18.0	18.5	40.4	16.3	6.7	100.0
	결혼	6.2	15.8	37.1	30.1	10.9	100.0
	별거/이혼/사별	17.5	22.5	40.8	16.7	2.5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9.4	34.1	19.4	8.2	100.0	3.22
	200-400만원 미만	19.3	41.3	23.7	6.9	100.0	2.99
	400-600만원 미만	14.9	37.8	31.1	9.9	100.0	2.77
	600만원 이상	19.1	32.2	29.0	12.0	100.0	2.81
전체		10.4	18.3	37.2	25.3	8.8	100.0

## 2. 혼자 살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 응답자 1,000명 중 동거 가족이 있는 840명과 동거가족이 없는 1인 가구 160명을 분리하여 혼자 살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함.

### 가. 혼자 살게 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는 사람이 만약 혼자 살게 될 때 겪을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51.8%)으로 응답했음.

- 그다음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18.8%, ‘가사활동의 어려움’ 9.5%,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9.3%, ‘건강증진 어려움’ 7.6%,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3.0% 순임.

〈표 5-6〉 혼자 살게 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단위: %, 응답자 수=840명)

구분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가사활동(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비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계
성별	남	48.9	22.7	15.1	5.8	7.3	0.3	100.0
	여	54.4	15.3	4.5	12.4	7.9	5.4	100.0
연령별	19-29세	41.3	18.2	15.7	5.8	12.4	6.6	100.0
	30대	41.9	26.5	10.3	7.7	9.4	4.3	100.0
	40대	46.9	26.5	8.6	10.5	6.2	1.2	100.0
	50대	61.8	14.5	3.6	10.3	8.5	1.2	100.0
	60대 이상	57.5	13.8	10.5	10.2	5.1	2.9	100.0
전체		51.8	18.8	9.5	9.3	7.6	3.0	100.0

〈표 5-7〉 혼자 살게 될 경우의 가장 큰 어려움: 1순위+2순위

(단위: %, 응답자 수=840명)

구분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가사활동(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비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기타
성별	남	73.3	39.0	20.9	29.0	33.0	3.5	1.3
	여	80.1	28.0	33.6	23.3	12.9	21.7	0.5
연령별	19-29세	66.1	28.9	11.6	38.8	33.1	19.0	2.5
	30대	62.4	39.3	24.8	29.9	22.2	21.4	0.0
	40대	83.3	37.7	31.5	19.8	18.5	9.3	0.0
	50대	81.8	33.9	33.9	22.4	15.8	11.5	0.6
	60대 이상	81.1	29.5	29.8	24.4	24.0	10.2	1.1
전체		76.9	33.2	27.6	26.0	22.4	13.1	0.8

**나. 혼자 살 때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동거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55.6%)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동거가족이 있는 사람의 응답률(51.8%)보다 높음.

○ 그다음으로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18.1%,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11.9%, ‘건강증진 어려움’ 6.9%,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4.4%, ‘가사활동의 어려움’ 3.1% 순임.

〈표 5-8〉 혼자 살 때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 1순위

(단위: %, 응답자 수=160명)

구분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가사활동(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보기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계
성별	남	51.5	24.2	10.1	8.1	2.0	4.0	100.0
	여	62.3	8.2	14.8	4.9	8.2	1.6	100.0
연령별	19-29세	44.7	28.9	7.9	7.9	7.9	2.6	100.0
	30대	48.5	24.2	9.1	9.1	6.1	3.0	100.0
	40대	48.0	16.0	20.0	8.0	8.0	0.0	100.0
	50대	71.9	3.1	15.6	3.1	0.0	6.3	100.0
	60대 이상	65.6	15.6	9.4	6.3	0.0	3.1	100.0
전체		55.6	18.1	11.9	6.9	4.4	3.1	100.0

〈표 5-9〉 혼자 살 때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 1순위+2순위

(단위: %, 응답자 수=160명)

구분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가사활동(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보기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기타
성별	남	79.8	29.3	36.4	35.4	5.1	12.1	2.0
	여	75.4	42.6	16.4	14.8	37.7	9.8	3.3
연령별	19-29세	65.8	23.7	34.2	36.8	28.9	10.5	0.0
	30대	72.7	33.3	18.2	36.4	21.2	12.1	6.1
	40대	72.0	44.0	36.0	24.0	16.0	4.0	4.0
	50대	93.8	46.9	31.3	12.5	6.3	9.4	0.0
	60대 이상	87.5	28.1	25.0	25.0	12.5	18.8	3.1
전체		78.1	34.4	28.8	27.5	17.5	11.3	2.5

### 3. 고독사 가능성

#### 가.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봄.
  
- 본인이 여기는 고독사 가능성은 전체 평균 32.3%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0.21%, 여성은 34.35%로 여성의 주관적 고독사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 주관적인 고독사 가능성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평균 39.53%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독사 가능성이 낮았음.
  - 30대 평균 39.53%, 40대 33.16%, 50대 32.01%, 60대 이상 29.84%, 19~29세 29.58% 순임.
- 최종학력별 고독사 가능성의 평균은 중졸 이하 42.11%, 고졸 34.16%, 대졸 이상 29.01% 순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고독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 소유형태별 고독사 가능성은 월세인 경우가 평균 43.27%로 가장 높았고, 전세인 경우 31.22%, 자가인 경우 29.12% 순으로 높았음.
-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았음.
  - 1인 가구의 고독사 가능성의 평균 45.05%, 2인 가구 33.84%, 3인 가구 30.72%, 4인 이상 가구 25.40%임.
  - 별거/이혼/사별한 경우 고독사 가능성의 평균이 45.17%로 가장 높았으며, 미혼(연인 없음) 42.80%, 미혼(연인 있음) 33.83%, 결혼 25.94%임.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서는 종사상 지위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고독사 가능성의 평균을 41.71%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44.94%로 높게 응답함.



〈표 5-10〉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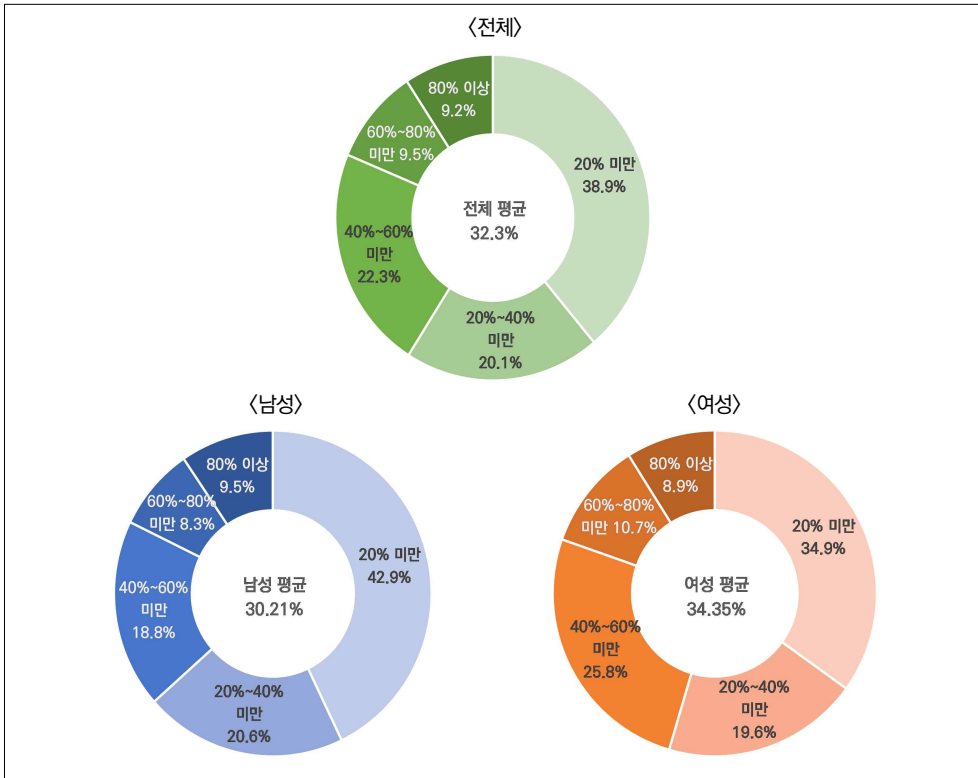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이상	계	평균
성별	남	42.9	20.6	18.8	8.3	9.5	100.0	30.21
	여	34.9	19.6	25.8	10.7	8.9	100.0	34.35
연령별	19~29세	45.3	12.6	22.6	15.1	4.4	100.0	29.58
	30대	30.0	20.7	24.0	8.0	17.3	100.0	39.53
	40대	37.4	19.8	23.0	9.6	10.2	100.0	33.16
	50대	42.1	16.2	23.4	9.1	9.1	100.0	32.01
	60대 이상	38.8	26.4	20.2	7.5	7.2	100.0	29.84
지역	서울	40.3	18.3	20.4	9.1	11.8	100.0	33.53
	인천/경기	37.9	18.9	23.3	11.4	8.5	100.0	32.93
	대전/충청/세종	31.8	26.4	23.6	10.0	8.2	100.0	33.71
	광주/전라/제주	39.6	18.0	25.2	11.7	5.4	100.0	30.98
	대구/경북	42.7	19.8	22.9	5.2	9.4	100.0	29.71
	부산/울산/경남	40.7	20.7	19.3	8.0	11.3	100.0	32.15
최종 학력	강원	43.3	26.7	20.0	3.3	6.7	100.0	26.63
	중졸이하	22.7	22.7	25.0	11.4	18.2	100.0	42.11
가구원 수	고졸	36.1	20.7	23.0	9.1	11.0	100.0	34.16
	대졸이상	44.0	19.1	21.2	9.8	6.0	100.0	29.01
	1인	24.4	13.8	31.3	12.5	18.1	100.0	45.05
	2인	35.0	22.6	23.3	8.6	10.5	100.0	33.84
주거 소유 형태	3인	39.9	22.3	18.4	12.0	7.4	100.0	30.72
	4인 이상	49.5	19.2	20.3	6.2	4.8	100.0	25.40
	자가	43.1	20.9	20.7	8.1	7.1	100.0	29.12
	전세	42.9	14.3	25.1	10.9	6.9	100.0	31.22
결혼 상태	월세	22.7	21.7	25.1	12.8	17.7	100.0	43.27
	무상	42.1	31.6	15.8	5.3	5.3	100.0	25.74
	미혼(연인 있음)	42.9	12.8	19.5	13.5	11.3	100.0	33.83
	미혼(연인 없음)	24.7	14.0	32.0	14.6	14.6	100.0	42.80
종사상 지위	결혼	46.0	23.7	19.7	5.3	5.3	100.0	25.94
	별거/이혼/사별	21.7	20.0	23.3	17.5	17.5	100.0	45.17
	정규직	46.0	19.1	17.4	9.1	8.3	100.0	28.64
	임시직	37.6	16.8	25.4	9.8	10.4	100.0	34.17
	일용직	24.0	24.0	22.7	13.3	16.0	100.0	41.71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8.6	35.7	14.3	7.1	14.3	100.0	34.64
월평균 가구 소득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	28.8	18.6	5.1	6.8	100.0	28.03
	무급가족종사자	35.7	19.0	26.2	11.9	7.1	100.0	33.17
	200만원 미만	23.3	15.9	28.4	13.4	19.0	100.0	44.94
	200~400만원 미만	35.8	24.0	24.2	8.5	7.4	100.0	32.04
계	400~600만원 미만	51.8	19.4	16.7	5.4	6.8	100.0	24.90
	600만원 이상	49.2	18.6	17.5	11.5	3.3	100.0	25.76
	계	38.9	20.1	22.3	9.5	9.2	100.0	32.30

□ 고독사 가능성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40%~60% 미만 22.3%, 20%~40% 미만 20.1%, 60%~80% 미만 9.5%, 80% 이상 9.2%임.

[그림 5-1] 본인 고독사 가능성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 나. 가족이 있는 경우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

□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8.3%이며, 여성의 고독사 가능성(63.9%)이 남성(52.6%)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19~29세가 64.2%로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30대 62.7%, 50대 61.9%, 40대 59.4%, 60대 이상 50.2% 순임.

- 가구원 수에서는 1인 가구 중 71.9%가, 주거 소유형태에서는 월세인 경우의 70.9%가, 결혼상태에서는 별거/이혼/사별인 경우의 66.7%가 가족이 있음에도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음
-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종사상지위가 임시직인 경우 63.0%가,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의 67.2%가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5-11〉 가족이 있는 경우의 고독사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성별	남	9.3	43.3	36.7	10.7	100.0
	여	12.9	51.0	31.2	5.0	100.0
연령별	19-29세	8.2	56.0	25.2	10.7	100.0
	30대	20.0	42.7	28.7	8.7	100.0
	40대	11.2	48.1	32.1	8.6	100.0
	50대	11.7	50.3	32.5	5.6	100.0
	60대 이상	7.8	42.3	43.0	6.8	100.0
가구원수	1인	23.1	48.8	24.4	3.8	100.0
	2인	7.1	47.0	38.3	7.5	100.0
	3인	12.4	46.3	32.5	8.8	100.0
	4인 이상	6.9	47.4	36.4	9.3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9.3	44.8	38.0	8.0	100.0
	전세	10.3	49.1	33.7	6.9	100.0
	월세	17.7	53.2	22.2	6.9	100.0
결혼여부	무상	5.3	42.1	31.6	21.1	100.0
	미혼(연인 있음)	17.3	48.1	24.8	9.8	100.0
	미혼(연인 없음)	12.9	50.6	29.8	6.7	100.0
	결혼	7.6	45.7	38.0	8.8	100.0
종사상지 위	별거/이혼/사별	18.3	48.3	30.8	2.5	100.0
	정규직	10.0	46.9	33.7	9.4	100.0
	임시직	11.6	51.4	30.1	6.9	100.0
	일용직	14.7	46.7	33.3	5.3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7.1	42.9	42.9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0.2	44.1	39.0	6.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무급가족종사자	19.0	42.9	35.7	2.4	100.0
	200만원 미만	13.4	53.9	26.7	6.0	100.0
	200-400만원 미만	13.5	44.9	33.1	8.5	100.0
	400-600만원 미만	5.9	45.5	39.6	9.0	100.0
	600만원 이상	9.8	45.4	37.7	7.1	100.0
계		11.1	47.2	33.9	7.8	100.0

- 동거가족 여부에 따른 고독사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57.7%로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인식(28.8%)보다 높음.
- 고독사가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는 인식은 남성(28.8%)이 여성(27.6%)보다 다소 높았고, 2명 이상 함께 살더라도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은 여성(61.5%)이 남성(53.8%)보다 다소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19~29세(32.7%)와 30대(32.7%)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한편, 40대 64.7%, 50대 60.9%, 60대 60.3% 순서로 함께 사는 사람이 있더라도 고독사가 발생 가능하다고 응답함.
-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인식은 가구원 수가 1인 가구(38.8%)에서, 주거 소유형태가 전세(34.3%)인 경우, 결혼 상태가 미혼(36.5%)인 경우,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는 정규직(32.3%)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30.1%)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음.
- 동거가족이 있어도 고독사할 수 있다는 인식은 가구원 수별로 2인 가구(61.3%)인 경우, 결혼상태별로 기혼(61.2%) 또는 별거/이혼/사별(61.7%)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2〉 1인가구에서만 고독사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	2명 이상 함께 살더라도 발생 가능	모름/생각해본적 없음	계
성별	남	28.8	53.8	17.3	100.0
	여	27.6	61.5	10.9	100.0
연령별	19~29세	32.7	49.1	18.2	100.0
	30대	32.7	48.7	18.7	100.0
	40대	28.3	64.7	7.0	100.0
	50대	28.9	60.9	10.2	100.0
	60대 이상	23.1	60.3	16.6	100.0
가구원수	1인	38.8	51.3	10.0	100.0
	2인	25.6	61.3	13.2	100.0
	3인	25.8	56.2	18.0	100.0
	4인 이상	27.1	59.5	13.4	100.0

구분	항목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	2명 이상 함께 살더라도 발생 가능	모름/생각해본적 없음	계
주거소유형태	자가	26.9	59.5	13.6	100.0
	전세	34.3	54.3	11.4	100.0
	월세	28.1	55.2	16.7	100.0
	무상	15.8	57.9	26.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31.6	54.9	13.5	100.0
	미혼(연인 없음)	36.5	46.1	17.4	100.0
	결혼	24.6	61.2	14.2	100.0
	별거/이혼/사별	29.2	61.7	9.2	100.0
종사상지위	정규직	32.3	54.3	13.4	100.0
	임시직	28.9	57.2	13.9	100.0
	일용직	22.7	64.0	13.3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3	64.3	21.4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22.0	69.5	8.5	100.0
	무급가족종사자	16.7	69.0	14.3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7.6	58.2	14.2	100.0
	200~400만원 미만	27.3	58.4	14.3	100.0
	400~600만원 미만	28.8	56.3	14.9	100.0
	600만원 이상	30.1	57.4	12.6	100.0
계		28.2	57.7	14.1	100.0

#### 4. 고독사 정의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사망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사망 후 1주일 이후 발견이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망 후 1~2일 후 발견 23.0%, 3일 이후 발견 21.8%, 한 달 이후 발견 11.9%, 2주 이후 발견 7.8% 순이었음.

〈표 5-13〉 고독사 정의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홀로 사망 후 1~2일 이후 발견	홀로 사망 후 3일 이후 발견	홀로 사망 후 1주일 이후 발견	홀로 사망 후 2주일 이후 발견	홀로 사망 후 한달 이후 발견	계
성별	남	21.2	22.0	36.1	9.1	11.7	100.0
	여	24.8	21.6	34.9	6.5	12.1	100.0
연령별	19~29세	19.5	25.2	41.5	4.4	9.4	100.0
	30대	19.3	20.7	35.3	8.0	16.7	100.0
	40대	18.2	23.5	33.2	10.7	14.4	100.0
	50대	23.4	20.3	36.0	7.1	13.2	100.0
	60대 이상	29.3	20.5	33.6	8.1	8.5	100.0
가구원수	1인	16.9	20.0	43.1	7.5	12.5	100.0
	2인	25.6	19.5	34.2	8.6	12.0	100.0
	3인	24.0	21.2	36.0	5.7	13.1	100.0
	4인 이상	23.0	25.4	32.0	9.3	10.3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23.7	23.2	34.8	7.6	10.6	100.0
	전세	22.9	19.4	36.6	8.0	13.1	100.0
	월세	19.2	18.7	37.9	8.9	15.3	100.0
	무상	42.1	31.6	21.1	0.0	5.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21.8	25.6	33.8	6.0	12.8	100.0
	미혼(연인 없음)	18.0	18.5	42.1	6.2	15.2	100.0
	결혼	25.7	22.1	31.5	8.8	12.0	100.0
	별거/이혼/사별	19.2	20.8	46.7	7.5	5.8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17.7	22.6	40.6	7.1	12.0	100.0
	임시직	24.9	23.1	31.8	6.9	13.3	100.0
	일용직	17.3	20.0	45.3	9.3	8.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8.6	28.6	21.4	7.1	14.3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28.8	18.6	27.1	15.3	10.2	100.0
	무급가족종사자	28.6	16.7	35.7	7.1	11.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5.9	18.5	33.6	9.1	12.9	100.0
	200~400만원 미만	25.9	20.4	33.9	6.6	13.2	100.0
	400~600만원 미만	17.1	27.5	35.6	9.0	10.8	100.0
	600만원 이상	20.8	21.9	41.0	7.1	9.3	100.0
계		23.0	21.8	35.5	7.8	11.9	100.0

## 5.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 또는 생각

### 가. 고독사의 모든 연령대 발생 가능성

- 고독사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84.3%임.
- 고독사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여성(87.9%)이 남성(80.6%)보다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30대(90.0%)와 19~29세(89.9%)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고독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50대 82.7%, 60대 이상 81.4%, 40대 81.3%의 순서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독사가 발생 가능하다고 응답함.
-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88.1%)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89.2%),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연인 없음)(88.2%), 종사상지위별로 무급가족 종사자(92.9%),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86.2%)인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고독사가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4〉 고독사의 모든 연령대 발생 가능성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성별	남	27.6	53.0	17.7	1.6	100.0
	여	34.3	53.6	11.3	0.8	100.0
연령별	19-29세	50.9	39.0	7.5	2.5	100.0
	30대	51.3	38.7	9.3	0.7	100.0
	40대	33.2	48.1	17.6	1.1	100.0
	50대	22.8	59.9	16.2	1.0	100.0
	60대 이상	14.7	66.8	17.6	1.0	100.0
가구원수	1인	41.9	46.3	9.4	2.5	100.0
	2인	21.4	59.0	18.4	1.1	100.0
	3인	31.1	53.4	14.5	1.1	100.0
	4인 이상	33.7	51.9	13.7	0.7	100.0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주거소유 형태	자가	28.9	55.2	14.9	1.0	100.0
	전세	33.7	45.7	19.4	1.1	100.0
	월세	35.0	54.2	8.9	2.0	100.0
	무상	31.6	52.6	15.8	0.0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45.9	39.1	12.8	2.3	100.0
	미혼(연인 없음)	47.2	41.0	10.1	1.7	100.0
	결혼	23.7	59.4	16.2	0.7	100.0
	별거/이혼/사별	25.0	58.3	15.0	1.7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34.9	50.3	14.3	0.6	100.0
	임시직	36.4	46.8	14.5	2.3	100.0
	일용직	28.0	60.0	12.0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0.0	71.4	21.4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5.3	66.1	18.6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31.0	61.9	7.1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4.1	52.2	12.1	1.7	100.0
	200-400만원 미만	33.1	51.5	14.3	1.1	100.0
	400-600만원 미만	25.2	57.2	16.7	0.9	100.0
	600만원 이상	30.1	53.6	15.3	1.1	100.0
	계	31.0	53.3	14.5	1.2	100.0

#### 나. 고독사의 개인적 문제 vs.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이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23.5%이며, 사회적인 문제이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82.1%임.
- 고독사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남성(28.0%)은 여성(19.0%)보다 높았으며, 사회적인 문제로의 인식은 남녀에 따라 차이가 없었음(82.1%).
- 고독사를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이 30.9%로 가장 많았고, 30대 27.3%, 19~29세 24.5%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0대 85.3%, 19~29세 84.9%, 40대 82.9%, 60대 이상 81.8%, 50대 77.2% 순이었음.
- 고독사를 개인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가구원 수가 4인 이상(24.4%), 주거 소유형태가 무상(26.3%), 결혼 여부가 미혼(연인 있음)(28.6%), 종사상지위별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28.6%),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31.9%)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고독사를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가구원 수가 4인 이상(83.2%)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84.7%), 결혼 여부가 미혼(연인 없음)(88.2%), 종사상지위별 무급가족종사자(88.1%),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85.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5〉 고독사의 개인적 문제 vs. 사회적 문제로의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개인적 문제			사회적 문제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성별	남	5.0	23.0	28.0	30.0	52.0	82.1
	여	2.8	16.3	19.0	29.6	52.6	82.1
연령별	19-29세	5.0	19.5	24.5	30.8	54.1	84.9
	30대	5.3	22.0	27.3	36.0	49.3	85.3
	40대	2.1	16.6	18.7	29.4	53.5	82.9
	50대	2.0	10.7	12.7	30.5	46.7	77.2
	60대 이상	4.9	26.1	30.9	26.1	55.7	81.8
가구원수	1인	5.0	18.8	23.8	36.3	45.0	81.3
	2인	2.3	19.9	22.2	27.1	56.0	83.1
	3인	2.8	20.8	23.7	31.1	49.5	80.6
	4인 이상	5.8	18.6	24.4	27.5	55.7	83.2
주거소유 형태	자가	4.0	18.4	22.4	27.7	53.2	80.9
	전세	3.4	21.7	25.1	32.0	51.4	83.4
	월세	4.4	20.7	25.1	34.0	50.7	84.7
	무상	0.0	26.3	26.3	31.6	47.4	78.9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6.0	22.6	28.6	29.3	52.6	82.0
	미혼(연인 없음)	5.1	17.4	22.5	36.5	51.7	88.2
	결혼	3.2	18.6	21.8	27.6	52.5	80.1
	별거/이혼/사별	3.3	24.2	27.5	30.8	51.7	82.5
종사상 지위	정규직	4.9	17.7	22.6	30.0	52.6	82.6
	임시직	2.9	22.5	25.4	32.4	45.7	78.0
	일용직	5.3	18.7	24.0	20.0	66.7	86.7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7.1	21.4	28.6	21.4	50.0	71.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3.4	20.3	23.7	35.6	47.5	83.1
	무급가족종사자	2.4	14.3	16.7	40.5	47.6	88.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0	25.9	31.9	30.6	54.7	85.3
	200-400만원 미만	3.0	17.6	20.7	32.0	48.5	80.4
	400-600만원 미만	2.7	17.1	19.8	26.6	55.0	81.5
	600만원 이상	4.4	18.6	23.0	28.4	53.6	82.0
계	3.9	19.6	23.5	29.8	52.3	82.1	

#### 다. 고독사의 경제적 취약계층 문제 vs. 소득에 관계없는 문제로의 인식

-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고독사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겪는 것이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5.9%이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8.9%임.
- 고독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겪는 문제라고 인식하는 남성(51.8%)은 여성(40.1%)보다 많았으며, 경제 수준과 관련 없는 문제라는 인식은 여성(80.6%)이 남성(77.2%)보다 많았음.
- 고독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은 연령대별로 30대(53.3%)가 가장 높았고, 19~29세 48.4%, 40대 46.5%, 60대 이상 44.3%, 50대 40.1% 순이었음.
  - 한편, 고독사가 경제적 상황과 관련 없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19~29세 81.8%, 30대 81.3%, 60대 이상 79.8%, 40대 79.1%, 50대 73.1% 순으로 높았음.
- 고독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은 가구원 수가 1인 가구(56.3%), 주거 소유형태가 무상(63.2%), 결혼 상태가 별거/이혼/사별(56.7%),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57.1%),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57.3%)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음.
- 반면 고독사가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은 가구원 수가 4인 이상(81.8%)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80.3%), 결혼 상태가 결혼(80.3%)인 경우, 종사상지위가 임시직(79.2%),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80.2%)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5-16〉 고독사의 경제적 취약계층 문제 vs. 소득에 관계없는 문제로의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제①			소득과 관계없는 문제②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소계
성별	남	12.3	39.5	51.8	19.2	58.1	77.2
	여	7.5	32.5	40.1	22.0	58.5	80.6
연령별	19-29세	10.1	38.4	48.4	28.3	53.5	81.8
	30대	17.3	36.0	53.3	30.7	50.7	81.3
	40대	6.4	40.1	46.5	20.3	58.8	79.1
	50대	11.2	28.9	40.1	15.7	57.4	73.1
	60대 이상	7.5	36.8	44.3	15.0	64.8	79.8
가구원수	1인	13.8	42.5	56.3	21.9	51.9	73.8
	2인	9.0	37.6	46.6	16.2	61.7	77.8
	3인	8.8	36.0	44.9	22.3	57.6	79.9
	4인 이상	9.6	30.9	40.5	22.3	59.5	81.8
주거소유형태	자가	7.1	32.8	40.0	21.6	58.7	80.3
	전세	12.6	39.4	52.0	19.4	60.0	79.4
	월세	14.8	41.9	56.7	18.7	55.7	74.4
	무상	21.1	42.1	63.2	21.1	57.9	78.9
결혼상태	미혼(연인 있음)	10.5	34.6	45.1	24.8	52.6	77.4
	미혼(연인 없음)	14.6	40.4	55.1	27.0	51.1	78.1
	결혼	7.7	33.2	40.9	18.1	62.2	80.3
	별거/이혼/사별	12.5	44.2	56.7	18.3	56.7	75.0
종사상 지위	정규직	10.0	35.4	45.4	24.0	54.9	78.9
	임시직	9.2	41.6	50.9	21.4	57.8	79.2
	일용직	12.0	40.0	52.0	14.7	61.3	76.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0.0	21.4	21.4	0.0	64.3	64.3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1.9	28.8	40.7	20.3	57.6	78.0
	무급가족종사자	7.1	50.0	57.1	11.9	61.9	73.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4	40.9	57.3	22.8	55.6	78.4
	200-400만원 미만	9.6	35.3	44.9	19.0	59.0	78.0
	400-600만원 미만	5.0	33.8	38.7	18.5	61.7	80.2
	600만원 이상	8.2	33.9	42.1	23.5	56.3	79.8
계	9.9	36.0	45.9	20.6	58.3	78.9	

주: 설문문항① 고독사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겪는 것이다.  
 설문문항② 고독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다

**라. 고독사로 인해 주변 이웃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

- 고독사는 주변 이웃에 폐를 끼친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40.4%이며, 여성의 부정적 인식(40.9%)이 남성(39.9%)보다 약간 높았음.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46.3%)에서 고독사가 주변에 폐를 끼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 40.6%, 30대 40.0%, 40대 35.3%, 19~29세 35.2%였음.
-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2인 가구(45.9%), 주거 소유 형태가 월세(41.4%), 결혼 상태가 결혼(43.2%)한 경우, 종사상지위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44.1%),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43.7%)인 경우 고독사가 주변 이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7〉 고독사로 인해 주변 이웃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성별	남	4.6	35.3	45.6	14.5	100.0
	여	4.2	36.7	45.2	13.9	100.0
연령별	19~29세	3.1	32.1	39.6	25.2	100.0
	30대	6.0	34.0	39.3	20.7	100.0
	40대	5.3	29.9	46.5	18.2	100.0
	50대	4.1	36.5	49.2	10.2	100.0
	60대 이상	3.9	42.3	48.2	5.5	100.0
가구원수	1인	3.8	31.9	46.3	18.1	100.0
	2인	4.5	41.4	47.0	7.1	100.0
	3인	4.6	32.9	45.9	16.6	100.0
	4인 이상	4.5	36.4	43.0	16.2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3.6	37.1	45.1	14.1	100.0
	전세	6.3	32.0	47.4	14.3	100.0
	월세	4.9	36.5	45.3	13.3	100.0
	무상	5.3	31.6	36.8	26.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3.0	32.3	36.8	27.8	100.0
	미혼(연인 없음)	5.6	29.8	42.7	21.9	100.0
	결혼	4.6	38.7	47.5	9.3	100.0
	별거/이혼/사별	3.3	36.7	49.2	10.8	100.0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종사상 지위	정규직	3.4	37.1	42.6	16.9	100.0
	임시직	7.5	32.4	45.7	14.5	100.0
	일용직	5.3	37.3	52.0	5.3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0.0	28.6	57.1	14.3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5.1	39.0	45.8	10.2	100.0
	무급가족종사자	2.4	38.1	47.6	11.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5	34.5	43.5	15.5	100.0
	200-400만원 미만	3.9	35.0	46.3	14.9	100.0
	400-600만원 미만	2.7	41.0	45.9	10.4	100.0
	600만원 이상	4.9	33.9	45.4	15.8	100.0
계		4.4	36.0	45.4	14.2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는 인근, 이웃에 폐를 끼친다

#### 마. 고독사 발생 예방의 이웃에 대한 관심의 역할

-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78.2%이며, 남성(78.0%)과 여성(78.4%)의 인식이 유사함.
-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81.1%가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대 80.2%, 30대 78.0%, 50대 77.2%, 19세~29세 71.7% 순으로 높았음.
- 가구원 수별로는 4인 이상 가구(82.5%), 주거 소유형태는 무상(89.5%)인 경우, 결혼상태가 별거/이혼/사별(82.5%)한 경우, 종사상지위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89.8%)인 경우,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79.7%) 또는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79.7%)인 경우 고독사가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18〉 고독사 발생 예방의 이웃에 대한 관심의 역할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성별	남	22.8	55.2	19.0	3.0	100.0
	여	20.2	58.1	19.6	2.0	100.0
연령별	19-29세	16.4	55.3	25.2	3.1	100.0
	30대	28.0	50.0	19.3	2.7	100.0
	40대	28.9	51.3	17.6	2.1	100.0
	50대	21.8	55.3	19.8	3.0	100.0
	60대 이상	16.3	64.8	16.9	2.0	100.0
가구원수	1인	21.9	50.6	24.4	3.1	100.0
	2인	17.3	63.2	17.7	1.9	100.0
	3인	21.9	53.0	21.9	3.2	100.0
	4인 이상	24.7	57.7	15.5	2.1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20.1	57.4	19.6	3.0	100.0
	전세	26.3	52.6	19.4	1.7	100.0
	월세	21.7	57.1	19.2	2.0	100.0
	무상	21.1	68.4	10.5	0.0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12.8	54.9	25.6	6.8	100.0
	미혼(연인 없음)	26.4	50.0	20.8	2.8	100.0
	결혼	22.7	57.6	17.9	1.8	100.0
	별거/이혼/사별	18.3	64.2	16.7	0.8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21.1	58.9	17.4	2.6	100.0
	임시직	23.1	50.9	23.1	2.9	100.0
	일용직	18.7	57.3	21.3	2.7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3	50.0	35.7	0.0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23.7	66.1	8.5	1.7	100.0
	무급가족종사자	28.6	47.6	21.4	2.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23.3	56.5	16.8	3.4	100.0
	200-400만원 미만	24.2	54.3	19.3	2.2	100.0
	400만원-600만원 미만	18.9	60.8	18.0	2.3	100.0
	600만원 이상	16.9	56.8	24.0	2.2	100.0
계		21.5	56.7	19.3	2.5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한다

**바.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전체 응답자의 91.3%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여성의 응답 비율(94.4%)이 남성 응답자(88.1%)보다 높았음.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음.
  - 60대 이상 응답자의 93.8%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 93.4%, 40대 91.4%, 30대 90.0%, 19~29세 84.9% 순이었음.
-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
  -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경우 92.4%로 가장 높았으며, 3인 91.9%, 2인 91.4%, 1인 88.1%였음.
  -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93.5%,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1.2%,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91.4%, 600만원 이상 88.5% 순으로 높았음.
- 주택 소유형태가 자가(92.2%)인 경우, 결혼 상태가 별거/이혼/사별(95.8%)인 경우, 종사상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95.2%)인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표 5-19〉 고독사 발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계
성별	남	39.9	48.2	8.9	3.0	100.0
	여	40.1	54.4	4.6	1.0	100.0
연령별	19-29세	32.7	52.2	10.1	5.0	100.0
	30대	41.3	48.7	8.0	2.0	100.0
	40대	41.2	50.3	7.0	1.6	100.0
	50대	42.6	50.8	5.1	1.5	100.0
	60대 이상	40.7	53.1	5.2	1.0	100.0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가구원수	1인	44.4	43.8	8.1	3.8	100.0
	2인	38.0	53.4	6.8	1.9	100.0
	3인	39.2	52.7	6.0	2.1	100.0
	4인 이상	40.2	52.2	6.5	1.0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37.8	54.4	6.5	1.3	100.0
	전세	40.6	48.0	7.4	4.0	100.0
	월세	44.3	46.8	6.9	2.0	100.0
결혼여부	무상	57.9	31.6	5.3	5.3	100.0
	미혼(연인 있음)	35.3	49.6	9.8	5.3	100.0
	미혼(연인 없음)	41.6	48.9	5.1	4.5	100.0
	결혼	39.9	52.2	7.0	0.9	100.0
종사상 지위	별거/이혼/사별	43.3	52.5	4.2	0.0	100.0
	정규직	41.1	49.7	7.7	1.4	100.0
	임시직	41.6	48.6	6.9	2.9	100.0
	일용직	36.0	57.3	5.3	1.3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3	50.0	28.6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39.0	50.8	8.5	1.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무급가족종사자	52.4	42.9	4.8	0.0	100.0
	200만원 미만	46.6	47.0	4.3	2.2	100.0
	200-400만원 미만	42.4	48.8	6.9	1.9	100.0
	400-600만원 미만	36.9	54.5	5.4	3.2	100.0
계	600만원 이상	30.6	57.9	10.9	0.5	100.0
	계	40.0	51.3	6.7	2.0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사. 고독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

□ 심각한 고독과 외로움은 치료해야할 질병으로 생각한다(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86.0%이며, 고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여성(87.7%)의 비율이 남성(84.3%)보다 높았음.

○ 연령대 중 50대 집단(88.3%)이 고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 87.2%, 19~29세 85.5%, 30대 85.3%, 60대 이상 84.4% 순서로 나타났음.



-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 소유형태가 무상(94.7%)인 경우, 결혼 상태가 별거/이혼/사별(88.3%)한 경우, 종사상지위가 일용직 근로자(94.7%)인 경우, 가구소득이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고독을 질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20〉 고독을 질병으로 보는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성별	남	33.7	50.6	13.7	2.0	100.0
	여	35.5	52.2	11.3	1.0	100.0
연령별	19-29세	36.5	49.1	11.9	2.5	100.0
	30대	36.0	49.3	12.7	2.0	100.0
	40대	42.8	44.4	11.2	1.6	100.0
	50대	32.5	55.8	10.7	1.0	100.0
	60대 이상	29.3	55.0	14.7	1.0	100.0
가구원수	1인	34.4	49.4	13.8	2.5	100.0
	2인	33.5	51.1	14.7	0.8	100.0
	3인	32.2	53.4	12.4	2.1	100.0
	4인 이상	38.1	50.9	10.0	1.0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32.7	52.6	13.4	1.3	100.0
	전세	36.0	53.1	9.1	1.7	100.0
	월세	38.4	46.3	13.8	1.5	100.0
	무상	42.1	52.6	0.0	5.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36.1	51.1	9.8	3.0	100.0
	미혼(연인 없음)	38.8	44.9	14.0	2.2	100.0
	결혼	33.6	52.4	12.8	1.2	100.0
	별거/이혼/사별	31.7	56.7	11.7	0.0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34.9	51.1	12.3	1.7	100.0
	임시직	34.7	50.3	13.3	1.7	100.0
	일용직	36.0	58.7	4.0	1.3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1.4	57.1	21.4	0.0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4.1	47.5	6.8	1.7	100.0
	무급가족종사자	26.2	59.5	14.3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1	49.1	12.5	1.3	100.0
	200-400만원 미만	33.9	51.0	13.8	1.4	100.0
	400-600만원 미만	34.2	50.9	12.6	2.3	100.0
	600만원 이상	33.3	55.7	9.8	1.1	100.0
	계	34.6	51.4	12.5	1.5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6. 고독사 예방 정책

### 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충분성

- 청년(20~39세), 중장년(40~64세), 노인(65세 이상)의 연령대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음.
  
- 노인(65세 이상) 대상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충분하지 못한 편이자,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8.5%이며, 남성의 불충분 응답 비율(87.7%)이 여성(89.3%)보다 낮음.
  - 연령대별로는 40대(90.9%)와 60대(90.6%)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인 대상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2인 가구(90.6%)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90.6%)인 경우, 결혼 상태가 별거/이혼/사별(91.7%)한 경우,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95.2%)인 경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90.2%)인 경우 노인 대상 고독사 예방정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중장년(40~64세) 대상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9.5%이며, 남성의 불충분 응답 비율(88.3%)이 여성(90.7%)보다 낮았음.
  - 연령대별로는 40대(93.0%)가 현재 중장년 대상 고독사 예방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2인 가구(92.5%)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월세(90.6%)인 경우, 결혼상태가 별거/이혼/사별(92.5%)한 경우,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95.2%)인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92.3%)인 경우 중장년 대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청년(20~39세) 대상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7.1%이며, 남성의 불충분 응답 비율(85.3%)이 여성(88.9%)보다 낮았음.
- 연령대별로는 19~29세(89.9%)와 40대(89.8%)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원 수가 1인 가구(87.5%)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전세(91.4%)인 경우, 결혼상태가 별거/이혼/사별(92.5%)한 경우,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95.2%)인 경우,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88.7%)인 경우 청년 대상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21〉 고독사 예방 정책의 충분성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노인(65세 이상)	중장년층(40-64세)	청년층(20-39세)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성별	남	12.3	11.7	14.7
	여	10.7	9.3	11.1
연령별	19-29세	15.1	15.7	10.1
	30대	14.0	12.0	12.7
	40대	9.1	7.0	10.2
	50대	12.2	9.6	15.2
	60대 이상	9.4	9.8	14.7
가구원수	1인	10.6	10.0	12.5
	2인	9.4	7.5	14.7
	3인	13.1	12.7	11.7
	4인 이상	12.4	11.3	12.7
주거소유 형태	자가	12.1	10.8	13.8
	전세	12.0	11.4	8.6
	월세	9.4	9.4	14.3
	무상	10.5	5.3	10.5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16.5	13.5	15.8
	미혼(연인 없음)	10.7	11.2	12.9
	결혼	11.2	10.2	13.4
	별거/이혼/사별	8.3	7.5	7.5

구분	항목	노인(65세 이상)	중장년층(40-64세)	청년층(20-39세)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충분하지 못한편이다 + 매우부족하다
총사상 지위	정규직	10.6	9.1	13.1
	임시직	12.1	11.0	10.4
	일용직	14.7	18.7	16.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14.3	28.6	28.6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5.3	10.2	13.6
	무급가족종사자	4.8	4.8	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2.9	12.1	16.4
	200-400만원 미만	10.7	11.6	11.8
	400-600만원 미만	12.6	7.7	11.3
	600만원 이상	9.8	9.8	12.6
계		11.5	10.5	12.9

주: 설문문항: 노인층(65세이상)/중장년층(40-64세)/청년층(20-39세)을 위한 고독사 예방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나. 고독사 예방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 연령층

□ 거주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기 위한 우선 지원 대상은 노인층(71.1%), 중장년층(21.6%), 청년층(1.3%)순으로 나타남.

○ 노인층과 중장년층 대상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한다는 비율은 남성(각각 71.2%, 22.4%)이 여성(각각 71.0%, 20.8%)보다 높았음. 반면 청년층 대상 정책을 먼저 강화해야한다는 비율은 여성(6.7%)이 남성(5.2%)보다 높았음.

○ 전 연령층에서 예방 대책의 우선 순위를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한편 고독사 예방 대책의 우선 순위 검토 대상은 각각 응답자가 속한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인층 대상 우선 강화 비율은 60대 이상(78.2%)에서 가장 높고, 중장년층 대상 우선 강화 비율을 40대(24.6%)와 50대(24.9%)에서, 그리고 청년층 대상 우선 강화 비율은 19~29세(13.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2〉 고독사 예방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 연령층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층	기타	계
성별	남	71.2	22.4	5.2	1.2	100.0
	여	71.0	20.8	6.7	1.4	100.0
연령별	19-29세	66.0	20.8	13.2	0.0	100.0
	30대	65.3	22.0	9.3	3.3	100.0
	40대	69.0	24.6	4.8	1.6	100.0
	50대	70.6	24.9	3.6	1.0	100.0
	60대 이상	78.2	17.9	2.9	1.0	100.0
가구원수	1인	63.1	23.8	10.6	2.5	100.0
	2인	74.4	21.1	3.4	1.1	100.0
	3인	71.7	21.9	5.7	0.7	100.0
	4인 이상	71.8	20.6	6.2	1.4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72.6	20.6	5.6	1.2	100.0
	전세	71.4	21.1	7.4	0.0	100.0
	월세	67.0	25.1	5.4	2.5	100.0
	무상	63.2	21.1	10.5	5.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72.2	18.8	9.0	0.0	100.0
	미혼(연인 없음)	66.3	20.8	10.1	2.8	100.0
	결혼	74.7	20.6	4.2	0.5	100.0
	별거/이혼/사별	60.0	30.8	5.0	4.2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74.0	19.7	5.1	1.1	100.0
	임시직	73.4	18.5	7.5	0.6	100.0
	일용직	62.7	30.7	6.7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71.4	21.4	0.0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71.2	20.3	8.5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59.5	31.0	9.5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65.9	25.4	6.0	2.6	100.0
	200-400만원 미만	73.0	20.7	5.5	0.8	100.0
	400-600만원 미만	74.3	19.8	5.0	0.9	100.0
	600만원 이상	69.9	20.8	8.2	1.1	100.0
계		71.1	21.6	6.0	1.3	100.0

주: 설문문항: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현 수준보다 강화한다면 어느 연령층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 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 자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으로 '평소 가족, 지인과 연락을 자주한다'가 42.2%로 가장 많고, '긴급 연락처 또는 서로 도와줄 친구를 확보한다' 25.5%,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낸다' 16.3%, '집에 긴급대처장비 또는 모니터 TV를 설치한다' 1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평소에 주변인들과 자주 연락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남성은 여성보다 평소에 가족, 지인 등 주변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긴급 연락처 또는 장비 확보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남성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가족, 지인과 연락을 자주한다' 47.0%, '긴급 연락처 또는 서로 도와줄 친구를 확보한다' 21.4%,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낸다' 18.5%, '집에 긴급대처장비 또는 모니터 TV를 설치한다' 15.4% 순서로 응답하였음.

- 여성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 가족, 지인과 연락을 자주한다' 37.0%, '긴급 연락처 또는 서로 도와줄 친구를 확보한다' 29.6%, '집에 긴급대처장비 또는 모니터 TV를 설치한다' 18.7%,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낸다' 14.1% 순서로 응답하였음.

〈표 5-23〉 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평소 가족, 지인과 연락을 자주한다	긴급 연락처 또는 서로 도와줄 친구를 확보한다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낸다	집에 긴급대처 장비 또는 모니터 TV를 설치한다	기타	계
성별	남	47.0	21.4	18.5	12.1	1.0	100.0
	여	37.5	29.6	14.1	18.7	0.2	100.0
연령별	19-29세	52.2	23.9	11.3	12.6	0.0	100.0
	30대	34.0	22.7	21.3	20.0	2.0	100.0
	40대	42.8	25.1	15.0	17.1	0.0	100.0
	50대	44.2	28.9	15.7	11.2	0.0	100.0
	60대 이상	39.4	25.7	17.6	16.3	1.0	100.0
가구원수	1인	39.4	25.0	13.1	21.3	1.3	100.0
	2인	41.7	26.3	14.7	16.9	0.4	100.0
	3인	40.6	26.9	17.3	14.1	1.1	100.0
	4인 이상	45.7	23.7	18.6	12.0	0.0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41.3	26.4	15.9	15.6	0.8	100.0
	전세	44.0	24.6	17.1	14.3	0.0	100.0
	월세	42.9	23.2	17.2	16.3	0.5	100.0
	무상	47.4	31.6	10.5	10.5	0.0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42.1	26.3	15.0	15.8	0.8	100.0
	미혼(연인 없음)	46.1	21.9	14.0	16.9	1.1	100.0
	결혼	40.8	27.2	17.8	13.9	0.4	100.0
	별거/이혼/사별	43.3	21.7	14.2	20.0	0.8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44.3	22.6	18.3	14.6	0.3	100.0
	임시직	38.2	27.7	17.3	16.2	0.6	100.0
	일용직	41.3	25.3	16.0	17.3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42.9	35.7	7.1	0.0	14.3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2.4	25.4	20.3	10.2	1.7	100.0
	무급가족종사자	42.9	23.8	11.9	21.4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35.8	28.4	15.9	19.8	0.0	100.0
	200-400만원미만	44.6	23.7	14.6	16.3	0.8	100.0
	400-600만원미만	42.8	26.6	19.4	11.3	0.0	100.0
	600만원이상	44.8	24.0	16.4	13.1	1.6	100.0
계		42.2	25.5	16.3	15.4	0.6	100.0

주: 설문문항: 자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선택하면 무엇입니까?

## 라.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향

□ 동네 주민 중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민센터 등에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9.2%이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89.9% 여성은 88.5%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50대(94.9%), 가구원 수별로는 2인 가구(91.7%), 주거 소유형태가 무상(94.7%)인 경우, 결혼상태가 별거/이혼/사별(95.8%)한 경우, 종사상지위가 일용직 근로자(93.3%)인 경우, 가구소득별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91.0%)인 경우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신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4〉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향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있음	없음	계
성별	남	89.9	10.1	100.0
	여	88.5	11.5	100.0
연령별	19-29세	73.6	26.4	100.0
	30대	84.7	15.3	100.0
	40대	92.5	7.5	100.0
	50대	94.9	5.1	100.0
	60대 이상	93.8	6.2	100.0
가구원수	1인	85.6	14.4	100.0
	2인	91.7	8.3	100.0
	3인	89.0	11.0	100.0
	4인 이상	89.0	11.0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90.7	9.3	100.0
	전세	85.1	14.9	100.0
	월세	87.7	12.3	100.0
	무상	94.7	5.3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81.2	18.8	100.0
	미혼(연인 없음)	78.7	21.3	100.0
	결혼	93.0	7.0	100.0
	별거/이혼/사별	95.8	4.2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92.6	7.4	100.0
	임시직	86.1	13.9	100.0
	일용직	93.3	6.7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78.6	21.4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88.1	11.9	100.0
	무급가족종사자	90.5	9.5	100.0



구분	항목	있음	없음	계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86.2	13.8	100.0
	200-400만원미만	89.8	10.2	100.0
	400-600만원미만	91.0	9.0	100.0
	600만원이상	89.6	10.4	100.0
계		89.2	10.8	100.0

주: 설문문항: 동네 주민 중에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이장, 통장 등에게 신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신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0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가 3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24%,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18.5%, ‘관심 없어서’ 10.2%, ‘기타’ 8.2% 순이었음.

○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미신고 이유는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가 가장 많았으나, 두 번째로 많은 미신고 사유로 남성은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26.0%), 여성은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25.9%)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남성의 미신고 사유는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 40.0%,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26.0%, ‘관심 없어서’ 14.0%,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10.0%, ‘기타’ 10.0% 순으로 많았음.
- 여성의 미신고 사유는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 37.9%,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25.9%,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22.4%, ‘관심 없어서’ 6.9%, ‘기타’ 6.9% 순으로 많았음.

〈표 5-25〉 고독사 위험 대상자 발견시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응답자 수=108명)

구분	항목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관심 없어서	기타	계
성별	남	40.0	26.0	10.0	14.0	10.0	100.0
	여	37.9	22.4	25.9	6.9	6.9	100.0
연령별	19-29세	33.3	16.7	28.6	11.9	9.5	100.0
	30대	52.2	21.7	13.0	4.3	8.7	100.0
	40대	42.9	14.3	21.4	7.1	14.3	100.0
	50대	50.0	20.0	10.0	20.0	0.0	100.0
	60대 이상	26.3	52.6	5.3	10.5	5.3	100.0
가구원수	1인	34.8	21.7	21.7	8.7	13.0	100.0
	2인	13.6	50.0	18.2	13.6	4.5	100.0
	3인	41.9	16.1	19.4	9.7	12.9	100.0
	4인 이상	56.3	15.6	15.6	9.4	3.1	100.0
주거소유 형태	자가	48.2	23.2	8.9	10.7	8.9	100.0
	전세	30.8	34.6	15.4	11.5	7.7	100.0
	월세	28.0	16.0	40.0	8.0	8.0	100.0
	무상	0.0	0.0	100.0	0.0	0.0	100.0
결혼여부	미혼(연인 있음)	36.0	16.0	28.0	8.0	12.0	100.0
	미혼(연인 없음)	42.1	18.4	23.7	7.9	7.9	100.0
	결혼	37.5	35.0	10.0	10.0	7.5	100.0
	별거/이혼/사별	40.0	20.0	0.0	40.0	0.0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34.6	19.2	26.9	11.5	7.7	100.0
	임시직	33.3	25.0	16.7	8.3	16.7	100.0
	일용직	60.0	0.0	40.0	0.0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66.7	0.0	0.0	33.3	0.0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4.3	42.9	0.0	28.6	14.3	100.0
	무급가족종사자	75.0	0.0	25.0	0.0	0.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43.8	21.9	25.0	6.3	3.1	100.0
	200-400만원미만	29.7	35.1	21.6	8.1	5.4	100.0
	400-600만원미만	35.0	20.0	15.0	15.0	15.0	100.0
	600만원이상	52.6	10.5	5.3	15.8	15.8	100.0
계		38.9	24.1	18.5	10.2	8.3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 위험군 발견시 신고의향 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국가 정책 1순위로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가 31.3%로 가장 많았고,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25.8%,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19.1% 순으로 높았음.

○ 다음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9.5%,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설비(IoT) 보급 확대’ 9.4%,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 4.7%, ‘기타’ 0.2% 순으로 나타났음.

〈표 5-26〉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순위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 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확인 스마트 설비보급 확대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 마련	기타	계
성별	남	31.3	29.2	19.6	8.7	7.3	3.8	0.2	100.0
	여	31.3	22.4	18.7	10.3	11.5	5.6	0.2	100.0
연령별	19-29세	27.0	32.1	18.9	10.1	8.2	3.8	0.0	100.0
	30대	26.7	30.7	16.7	12.0	9.3	4.7	0.0	100.0
	40대	32.6	26.7	16.6	8.0	8.6	7.0	0.5	100.0
	50대	35.5	20.3	21.3	10.7	7.1	5.1	0.0	100.0
	60대 이상	32.2	23.1	20.5	8.1	12.1	3.6	0.3	100.0
가구원 수	1인	27.5	25.0	16.9	10.6	13.1	5.6	1.3	100.0
	2인	32.7	24.8	18.4	9.8	11.3	3.0	0.0	100.0
	3인	31.4	25.4	21.2	8.5	8.8	4.6	0.0	100.0
	4인 이상	32.0	27.5	18.9	9.6	6.2	5.8	0.0	100.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31.8	25.2	20.4	8.5	10.1	3.8	0.2	100.0
	전세	24.0	32.0	18.9	12.0	8.6	4.6	0.0	100.0
	월세	34.5	22.7	15.8	9.9	8.9	7.9	0.5	100.0
	무상	47.4	21.1	15.8	15.8	0.0	0.0	0.0	100.0
결혼 여부	미혼(연인 있음)	35.3	24.8	18.8	10.5	4.5	6.0	0.0	100.0
	미혼(연인 없음)	27.5	33.7	14.0	9.0	10.7	4.5	0.6	100.0
	결혼	32.0	24.6	20.7	9.5	9.8	3.3	0.0	100.0
	별거/이혼/사별	29.2	20.8	19.2	9.2	10.8	10.0	0.8	100.0

구분	항목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 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확인 스마트 설비보급 확대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창구 마련	기타	계
총사상 지위	정규직	28.9	28.6	20.9	8.6	10.0	3.1	0.0	100.0
	임시직	32.4	27.2	17.3	10.4	8.7	4.0	0.0	100.0
	일용직	28.0	22.7	24.0	14.7	6.7	4.0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1.4	28.6	14.3	7.1	21.4	0.0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37.3	22.0	15.3	5.1	11.9	8.5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31.0	28.6	19.0	7.1	7.1	7.1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9.3	19.4	21.1	12.9	9.9	6.9	0.4	100.0
	200-400만원미만	32.2	25.9	18.2	8.8	9.9	5.0	0.0	100.0
	400-600만원미만	31.1	29.3	22.1	8.1	6.8	2.7	0.0	100.0
	600만원이상	32.2	29.5	14.8	8.2	10.9	3.8	0.5	100.0
계		31.3	25.8	19.1	9.5	9.4	4.7	0.2	100.0

주: 설문문항: 국가정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2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입니까?

□ 국가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2가지를 선택한 결과,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가 60.9%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설비(IoT) 보급 확대’ 39.0%,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34.1%,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32.0%,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 17.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16.1% 순이었음.

〈표 5-27〉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1순위+2순위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봄미 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확인 스마트 설비보급 확대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주인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마련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기타
성별	남	60.5	34.7	37.7	33.3	18.8	14.7	0.4
	여	61.3	43.3	30.6	30.8	16.5	17.5	0.2
연령별	19-29세	62.3	32.7	43.4	32.1	14.5	15.1	0.0
	30대	54.0	39.3	37.3	29.3	18.0	21.3	0.7
	40대	61.0	39.0	34.2	29.4	21.9	13.9	0.5
	50대	58.9	40.1	27.4	33.5	20.3	19.8	0.0
	60대 이상	64.8	41.4	31.9	33.9	14.7	13.0	0.3
가구원 수	1인	44.4	41.9	33.8	32.5	23.1	23.1	1.3
	2인	62.8	42.5	32.7	28.9	16.5	16.5	0.0
	3인	64.3	36.7	35.0	32.5	17.0	14.1	0.4
	4인 이상	64.9	36.4	34.7	34.0	16.2	13.7	0.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61.9	40.8	32.8	33.8	16.1	14.3	0.3
	전세	55.4	32.6	40.6	30.9	18.3	22.3	0.0
	월세	60.6	40.4	33.0	28.6	20.7	16.3	0.5
	무상	84.2	26.3	26.3	21.1	26.3	15.8	0.0
결혼 여부	미혼(연인 있음)	58.6	31.6	32.3	33.8	24.1	19.5	0.0
	미혼(연인 없음)	56.7	39.9	43.3	29.2	15.7	14.0	1.1
	결혼	64.1	39.9	32.0	33.2	15.3	15.5	0.0
	별거/이혼/사별	54.2	41.7	32.5	28.3	24.2	18.3	0.8
종사상 지위	정규직	58.0	38.9	34.9	34.3	18.0	16.0	0.0
	임시직	60.1	38.2	38.7	31.8	13.9	16.8	0.6
	일용직	57.3	30.7	33.3	29.3	26.7	22.7	0.0
	중요한미 있는 고용주	35.7	28.6	28.6	35.7	35.7	28.6	7.1
	중요한미 없는 자영업자	67.8	47.5	27.1	28.8	15.3	13.6	0.0
	무급가족종사자	66.7	33.3	40.5	31.0	21.4	7.1	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58.2	37.9	28.0	33.6	22.0	19.8	0.4
	200-400만원미만	60.1	43.0	35.5	29.2	16.3	15.7	0.3
	400-600만원미만	62.6	36.0	32.9	36.0	17.1	15.3	0.0
	600만원이상	63.9	36.1	40.4	30.6	15.3	13.1	0.5
계		60.9	39.0	34.1	32.0	17.6	16.1	0.3

주: 설문문항: 국가정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2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입니까?

□ 1인 가구에 응급알림장치 및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플랫폼 설치가 고독사를 예방기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매우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87.7%이며, 성별에 따라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여성(89.3%)의 비율이 남성(84.9%)보다 높았음.

○ 스마트플랫폼이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연령대별로 50대(92.4%)인 경우, 가구원 수가 4인 이상(90.0%)인 경우, 주거 소유형태가 무상(89.5%)인 경우, 결혼상태가 결혼(89.4%)인 경우, 종사상지위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93.2%)인 경우, 가구소득이 월평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89.5%)인 경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8〉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랫폼의 효과성 인식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
성별	남	20.8	64.1	14.3	0.8	100.0
	여	23.0	66.3	10.5	0.2	100.0
연령별	19-29세	18.9	65.4	15.7	0.0	100.0
	30대	17.3	62.0	19.3	1.3	100.0
	40대	23.0	62.6	13.9	0.5	100.0
	50대	24.4	68.0	6.6	1.0	100.0
	60대 이상	23.5	66.4	10.1	0.0	100.0
가구원 수	1인	21.9	56.3	20.6	1.3	100.0
	2인	28.2	60.9	10.9	0.0	100.0
	3인	19.1	68.2	12.0	0.7	100.0
	4인 이상	18.9	71.1	9.6	0.3	100.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20.9	67.3	11.3	0.5	100.0
	전세	24.6	60.6	14.3	0.6	100.0
	월세	22.2	63.1	14.3	0.5	100.0
	무상	26.3	63.2	10.5	0.0	100.0
결혼 여부	미혼(연인 있음)	18.0	65.4	16.5	0.0	100.0
	미혼(연인 없음)	19.1	62.9	16.9	1.1	100.0
	결혼	22.8	66.6	10.0	0.5	100.0
	별거/이혼/사별	25.8	61.7	12.5	0.0	100.0

구분	항목	매우 도움이 됨	대체로 도움이 됨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계
종사상 지위	정규직	21.1	64.3	13.4	1.1	100.0
	임시직	23.1	62.4	14.5	0.0	100.0
	일용직	21.3	66.7	12.0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21.4	50.0	28.6	0.0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5.3	78.0	6.8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19.0	59.5	21.4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22.0	61.2	16.4	0.4	100.0
	200~400만원미만	24.2	65.3	10.5	0.0	100.0
	400~600만원미만	23.0	65.8	10.4	0.9	100.0
	600만원이상	15.8	69.4	13.7	1.1	100.0
계		21.9	65.2	12.4	0.5	100.0

주: 설문문항: 1인 가구에 응급알람장치 및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플랫폼 설치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십니까?

□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공공(지자체)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로 ‘공영장례 지원’을 고른 사람이 42.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료’ 18.7%, ‘가족 치유회복 지원’ 16.6%, ‘특수청소 지원’ 13.2%, ‘유품정리 지원’ 8.8%, ‘기타’ 0.2% 순으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성별에 따라 공공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의 비율에 차이가 있었음.

- 남성은 ‘공영장례 지원’ 45.2%, ‘가족 치유회복 지원’ 19.0%,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료’ 18.3%, ‘특수청소 지원’ 9.7%, ‘유품정리 지원’ 7.7%, ‘기타’ 0.2%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은 ‘공영장례 지원’ 39.9%,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료’ 19.0%, ‘특수청소 지원’ 16.7%, ‘가족 치유회복 지원’ 14.3%, ‘유품정리 지원’ 9.9%, ‘기타’ 0.2% 순임.

〈표 5-29〉 고독사 발생시 우선적 지원 정책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공영장례 지원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료	가족 치유회복 지원	특수청소 지원	유품정리 지원	기타	계
성별	남	45.2	18.3	19.0	9.7	7.7	0.2	100.0
	여	39.9	19.0	14.3	16.7	9.9	0.2	100.0
연령별	19-29세	24.5	22.6	15.1	27.0	10.7	0.0	100.0
	30대	36.0	21.3	13.3	14.7	14.7	0.0	100.0
	40대	43.9	19.8	18.2	9.6	8.0	0.5	100.0
	50대	46.7	17.8	17.3	11.7	6.6	0.0	100.0
	60대 이상	51.5	15.3	17.6	8.5	6.8	0.3	100.0
가구원 수	1인	46.9	13.1	14.4	17.5	8.1	0.0	100.0
	2인	48.1	15.4	14.7	12.4	9.4	0.0	100.0
	3인	38.9	20.5	19.8	11.3	8.8	0.7	100.0
	4인 이상	38.5	23.0	16.5	13.4	8.6	0.0	100.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42.3	18.7	18.6	12.1	8.1	0.2	100.0
	전세	41.1	22.3	15.4	13.7	6.9	0.6	100.0
	월세	43.8	16.3	12.3	15.8	11.8	0.0	100.0
	무상	47.4	10.5	10.5	15.8	15.8	0.0	100.0
결혼 여부	미혼(연인 있음)	36.8	18.8	14.3	21.1	9.0	0.0	100.0
	미혼(연인 없음)	38.2	17.4	14.6	20.2	9.6	0.0	100.0
	결혼	44.5	19.5	17.8	9.1	8.8	0.4	100.0
	별거/이혼/사별	45.8	16.7	16.7	13.3	7.5	0.0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43.4	16.6	19.4	12.0	8.3	0.3	100.0
	임시직	38.7	22.5	12.7	14.5	11.6	0.0	100.0
	일용직	52.0	12.0	9.3	14.7	12.0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57.1	7.1	7.1	7.1	14.3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2.4	20.3	22.0	11.9	3.4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45.2	26.2	7.1	21.4	0.0	0.0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44.4	15.5	15.1	17.7	7.3	0.0	100.0
	200-400만원미만	42.4	19.0	17.9	11.8	8.8	0.0	100.0
	400-600만원미만	45.0	17.1	16.2	12.2	9.5	0.0	100.0
	600만원이상	37.2	24.0	16.4	11.5	9.8	1.1	100.0
계		42.5	18.7	16.6	13.2	8.8	0.2	100.0

주: 설문문항: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지자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고 생각하는 사람은 93.3%임.

〈표 5-30〉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

(단위: %, 응답자 수=1,000명)

구분	항목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필요 없음	모름/생각해본적 없음	계
성별	남	38.1	55.4	5.0	1.4	100.0
	여	38.3	54.8	3.6	3.4	100.0
연령별	19-29세	28.3	64.2	5.0	2.5	100.0
	30대	33.3	60.0	3.3	3.3	100.0
	40대	42.8	51.3	3.7	2.1	100.0
	50대	43.1	49.7	5.6	1.5	100.0
	60대 이상	39.7	53.7	3.9	2.6	100.0
가구원 수	1인	45.6	46.9	5.0	2.5	100.0
	2인	35.7	57.9	2.6	3.8	100.0
	3인	35.7	57.2	4.9	2.1	100.0
	4인 이상	38.8	55.0	4.8	1.4	100.0
주거 소유 형태	자가	37.5	55.9	4.3	2.3	100.0
	전세	38.9	55.4	3.4	2.3	100.0
	월세	41.4	51.2	5.4	2.0	100.0
	무상	21.1	68.4	0.0	10.5	100.0
결혼 여부	미혼(연인 있음)	32.3	57.9	8.3	1.5	100.0
	미혼(연인 없음)	37.6	54.5	3.4	4.5	100.0
	결혼	39.7	54.8	3.9	1.6	100.0
	별거/이혼/사별	38.3	54.2	3.3	4.2	100.0
종사상 지위	정규직	37.7	56.3	4.3	1.7	100.0
	임시직	38.2	54.3	4.6	2.9	100.0
	일용직	41.3	57.3	1.3	0.0	100.0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42.9	35.7	14.3	7.1	100.0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42.4	47.5	8.5	1.7	100.0
	무급가족종사자	40.5	52.4	4.8	2.4	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미만	44.0	50.9	2.6	2.6	100.0
	200-400만원미만	39.1	53.4	4.1	3.3	100.0
	400-600만원미만	35.6	59.0	4.5	0.9	100.0
	600만원이상	32.2	59.0	6.6	2.2	100.0
계		38.2	55.1	4.3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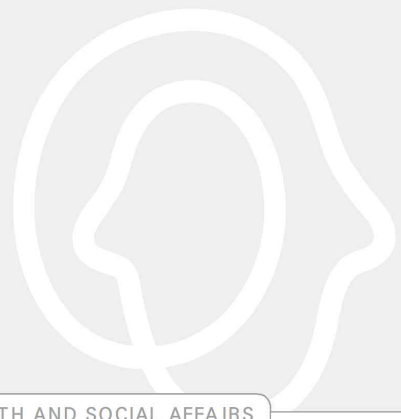
주: 설문문항: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지자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결론

제1절 정책과제

제2절 기대효과



# 제 6 장      결론

## 제1절 정책과제

- 인구·사회·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위협의 발생
  -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생
  - 공공(公共)의 역할 속에서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투자 필요

[그림 6-1] 신취약계층의 발생

전통적 취약계층	⇒	신(新) 취약계층 (새로운 사회적 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자산 중심의 취약계층 선정</li> <li>· 취약계층 발생에 대한 대응 중심</li> <li>·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기반의 빈곤층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발생</li> <li>· 새로운 형태의 취약계층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고립형 청년</li> <li>→ 성인의 사회적 고립과 이로 인한 고독사</li> <li>→ 영케어러(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및 청년)</li> <li>→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성소수자 등</li> </ul> </li> <li>· 사회경제구조 변환기의 새로운 사회위험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IoT전환, 기후변화, 돌봄부재, 사회위험, 불안</li> </ul> </li> </ul>

###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

- 앞서 살펴본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함.

[그림 6-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

<p>사회전체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독사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 변화로 당사자가 고립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li> <li>- 자조적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사회전체가 대응</li> </ul>
<p>예방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 은둔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문제의 예방 관점</li> <li>- 사회적 지지와 연계 사회를 기반으로 예방의 관점에서 대책 마련</li> <li>- 예방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의 지원</li> </ul>
<p>당사자, 가족,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와 가족이 처한 환경이 다양하며, 당사자의 문제나 요구, 지역환경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li> <li>- 형식적 연결이 아닌 당사자나 가족, 주민이 체감, 신뢰할 수 있는 사회관계자본 형성과 웰빙의 기여</li> </ul>
<p>읍면동 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자원의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읍면동 위기대응 체계 구축</li> <li>- 연결을 위해 행정기관 뿐아니라, 민간 등의 자원 활용</li> </ul>

□ 요구도 기반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소득 및 자산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험 계층을 서비스 요구도(필요도)를 기반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고독사 사망자 중(미연계 제외) 사망 전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전체의 44.3%에 불과하였음.
- 이와 같이, 고독사와 같은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고립과 은둔 문제가 저소득층이 아닌 모든 소득계층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구도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 필요
-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된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상담, 서비스 의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전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고독사, 사회적 고립, 은둔 문제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적 신뢰 감소, 사회참여 감소, 1인가구 증가, 개인주의 성향, 전통적 기능 약화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연령대로 보면 50대 1,001명, 60대 981명, 40대 526명의 순으로,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연령대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고령자 뿐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예방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임.
-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위험증가, 사회적 고립 증가될 경우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임. 이에 개별 부처별로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 연령층이 아닌 청년, 노인을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생애주기별로 고독사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누락되어 있는 서비스 및 대상 범위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고독사 위험군 선정 지표 개발

- 본 연구에서는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하여 위험군 판별과 관련한 5개 지표를 활용하였고, 고독사 위험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 대해 심층설문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였음.
- 본 연구에서 적용한 위험군 판별지표에 대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를 만들어 고독사 예방정책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독사 위험군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고독사 위험군 지표의 개발 필요
  - 고독사 위험군을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으로 분류하여 위험도 수준과 개인이 처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예방과 서비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고립과 은둔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미래생산성 손실, 질병(치매,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발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고립 발생의 생애사적 특성 및 원인 도출

[그림 6-3]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생애주기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
아동·청소년기	- 학교적응 - 가정환경 - 친구관계 - 방과 후 활동
청장년기	- 실업과 퇴직 - 결혼, 이혼, 사별 등 - 경제환경 - 친구관계
노년기	- 은퇴후 적응 - 자녀, 배우자 - 경제환경 - 건강상태

자료: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 적시 대응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및 지원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
  - 사회적 고립이 만성화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정보가 포괄된 포털사이트 구축
  -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SNS에 의한 지속적·중앙 집중식 정보 발행하고, 24시간 대응의 상담 체제의 정비, 각종 지원 시책이 있는 윈스톱의 상담 창구의 정비, 푸시형의 정보 발신
  - 여러 부처의 각종 상담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담지원체계를 구축
- 신청주의 지원체계 하에서 보다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 사각지대 발굴체계를 구축
  - 지원 시스템을 알 수 있도록 정보 발신, 홍보 및 보급 계발, 제도의 검증, 아동·청소년기 부서의 교육 추진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뿐 아니라, 사각지대의 발굴을 통한 대응 체계 마련 필요
    -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 제도이므로,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가 낮을 수 있음.
  - IoT, AI를 활용한 민관협력의 발굴체계 마련
- 지역에서의 포괄적 지원 체제의 추진
-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있거나 외로움과 고립에 이르기 쉬운 당사자와 가족 등에 대응하여 지역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 및 필요시 긴급 지원
  -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지역 커뮤니티에 연결하는 지원 (종합 상담, 취업 지원, 보호종료아동지원, 출소자 지원 등)이나 커뮤니티(직장·가구)간 이동의 지원(전직 지원, 직업 훈련, 피해자 지원, 여성 지원 등) 등을 실시
- 연결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
- 사람과의 「연결」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 라이프 스테이지의 단계와 속성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있는 당사자에게 지역의 사람과의 "연결"이나 상담 등의 장소,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유지
  - 사회적 고립 대책에서 다양한 "연결"장을 만들기를 지자체 성과지표로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그 효과적인 운용을 추진
- 건강생활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처방의 활용
- 사회적 약자의 건강 및 사회 생활면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소위 「사회적 처방」의 활용)을 추진
  - 우리나라는 보편적 의료체제와 건강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건강생활과 관련한 접근성이 높은 측면이 있음. 이에 건강이나 사회 생활면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중증화 예방에 필요한 건강생활상담 및 지원 실시나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음건강 상담 지원 등의 활용

□ 인재 육성 등의 지원

-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에게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등 지원
- 사회적 고립의 문제를 지닌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시의 심리적 부담에 유의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충실한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고독·고립에 관한 상담 지원에 해당하는 인재 확보 (취업 환경 개선 포함), 육성 및 역량 향상을 추진
- 복지, 보건,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여러 분야의 자격 취득 포함) 필요

□ 법, 제도의 지원

- 지속적인 현실진단과 국제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지원방안 및 제도 개선안 마련
- 비제도권에 있는 고립·은둔 계층의 지원방안 마련

## 2. 고독사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을 위한 정책 과제

□ 고독사 통계 생산 주기 단축

- 현행법에서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고독사를 모니터링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5년 주기보다는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고독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임.

□ 고독사 통계 산출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 기반 마련 필요

- 고독사 통계 산출을 위한 행정데이터를 확보하여 개인별 연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변사자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독사의 정의에 부합하는 요건을 추출하고 고독사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업무협조 및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 지자체의 고독사 동향보고 등과 같은 행정보고체계 마련 필요
- 고독사 위험군 판별기준 마련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심층 분석 필요
  - 통계생산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선별 도구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사회적 심리부검 등을 통하여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독사의 원인을 질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제2절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고독사 위험집단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및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독사 위험 사망자에 대한 통계 산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국민인식 조사를 통한 고독사 예방 정책 기반 조성
  - 고독사 통계, 실증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정책 수립에 기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로서 고독사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고독사 통계를 생산하고 향후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제공
  -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하여 생애주기별, 개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





- 고숙자, 이아영, 황남희, 장익현, 안영, 정영호.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석호, 변미리, 정병은, 구서정. (2018). 인구특성별 1인가구 현황 및 정책대응 연구. 여성가족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복지재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9호, 2021.3.30., 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43호, 2023.6.13., 부개정]
-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15115](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60300&bid=219&act=view&list_no=415115)에서 인출.
-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2143&ref\\_bid=](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tag=&act=view&list_no=422143&ref_bid=)에서 인출.
-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한준. (2019). 한국의 사회동향: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통계청 통계개발원.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 Perissinotto, C. M., Cenzer, I. S., & Covinsky, K. E. (2012). Loneliness in older persons: a predictor of functional decline and death.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72(14), 1078-1084.
- Rico-Uribe, L. A., Caballero, F. F., Martín-María, N., Cabello, M., Ayuso-Mateos, J. L., & Miret, M. (2018). Association of loneliness with all-cause mortality: A meta-analysis. *PloS one*, 13(1).

Russell, D.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0-40.



## [부록 1] 설문지: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 고독사 위험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고독사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고독사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A 응답자 일반사항

##### A1. 당신이 현재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

- ① 1명(혼자 산다)
- ② 2명 -> 설문종료
- ③ 3명 이상 -> 설문종료

##### A2. 당신의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 A3. 당신의 나이 (만 나이)

만 \_\_\_\_\_ 세

##### A3-1. 연령대 (A3와 연계하여 자동체크)

- ① 18세 이하 -> 설문종료
- ② 19-29세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 ⑦ 70대 이상

##### A4. 당신이 현재 살고 계신 지역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SKT에만 제시, A3-1=5,6,7에게만 제시//

AA1. 귀하는 조사대상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총13개 문항(5분 소요)입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입력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한국리서치에서 전화를 드려서 전화조사로도 가능합니다.

1. 지금 바로 참여하겠습니다.
2. 전화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 귀하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구 삽입, 이름/휴대전화 번호 받기)

A5. 혼자 살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년 ※ 1년 미만일 경우 1년

A6. 혼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만 선택)

- ①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의 이동 (이혼/별거, 가족의 사망, 이민, 학업·직장 이동 등)
- ② 나의 학업 또는 경제활동 때문에 (시험/구직 준비, 학업, 직장 등)
- ③ 나의 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등)
- ④ 독립하여 혼자 살고 싶어서
- ⑤ 기타( )

A7.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있음)
- ② 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
- ③ 결혼(재혼, 동거 포함)
- ④ 별거
- ⑤ 이혼
- ⑥ 사별

A8. 귀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

- ① 부/모 있음
- ② 배우자 있음 (A7=3은 필수응답, A7=1,2,4,5,6은 응답불가)
- ③ 자녀 있음
- ④ 형제 있음
- ⑤ 기타 친인척 있음
- ⑥ 가족이 전혀 없다 //1~5 응답불가//



## B 고독사 위험군 판별

### [실패와 상실감 누적]

B1. 최근 10년 동안 다음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음 1	없음 2
1. 이별(사별, 이혼, 결별)		
2. 자녀사망		
3. 실직		
4. 실패(시험, 사업)		
5. 동업자 배신		
6. 수급 탈락		
7. 노숙		
8. 폭행/폭력		

(기준) 1번 응답이 2개 이상 (10점), 2개 미만 (0점)

### [고립적 일상]

B2. 지난 1주일 평균적으로 하루 식사 횟수는 몇 회입니까? (과자 등의 간식은 식사횟수에서 제외)

- ① 1회 (10점)
- ② 2회 (0점)
- ③ 3회 이상 (0점)

B3. 필수목적(생필품 구입, 병원진료 등) 외에 지난 1주간 외출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모임, 쇼핑, 산책, 운동 등)

- ① 없음 (10점)
- ② 1회 (10점)
- ③ 2회 (0점)
- ④ 3회 이상 (0점)

B4. 지난 1주일 동안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없음 (10점)
- ② 1회 (10점)
- ③ 2회 (0점)
- ④ 3회 이상 (0점)

B5.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없음 (0점)
- ② 1회 (10점)
- ③ 2회 이상 (10점)

[사회적 고립]

B6. 귀하는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10점)
- ② 1명 (0점)
- ③ 2명 이상 (0점)

B7.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10점)
- ② 1명 (0점)
- ③ 2명 이상 (0점)

B8.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없음 (10점)
- ② 1명 (0점)
- ③ 2명 이상 (0점)

[이동성 높은 생애]

B9-1. 지난 10년간 이사를 몇 번정도 하셨습니까?

- ① 없음    ② 1회-4회    ③ 5-7회                      ④ 8-9회                      ⑤ 10회 이상

B9-2. 지난 10년동안 직장 이직 횟수(아르바이트 및 단기직 포함)

- ① 없음 (한 개의 직장만 다님)
- ② 1회-2회
- ③ 3-4회
- ④ 5-7회
- ⑤ 8-9회
- ⑥ 10회 이상
- ⑦ 취업경험 없음

(기준) B9-1) 또는 B9-2)에서 10회 이상(10점)

[돌봄과 지원 중단]

B10. 복지서비스나 돌봄(간병)서비스를 받던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질병 치료를 중단(퇴원)하거나, 치료를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10점)    ② 없음 (0점)

(총계 기준)

**BB1. 고독사 위험군 구분**

1. 고위험군(70~100점) ☞ C파트 응답 후 위험군 심층조사 실시
2. 중위험군(40~60점) ☞ C파트 응답 후 위험군 심층조사 실시
3. 저위험군(10~30점)
4. 해당없음(0점)

**C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상태****C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주택 등)
- ②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③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텔 포함)
- ④ 오피스텔
- ⑤ 준주거 시설(고시원)
- ⑥ 기타()

**C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
- ⑤ 무상

**C3.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 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 휴직 중이신 분도 '하였다'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일을 하였다 → C3-1
2. 일을 하지 않았다 → C3-2

**C3-1. 현 직장(일자리) 종사상지위**

- ① 정규직(상용직)
- ② 임시직(계약직)
- ③ 일용직
- ④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 C4

**C3-2. 지난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학교생활
- ② 취업 준비
- ③ 창업 준비
- ④ 휴식과 여가 활동(여행 등)
- ⑤ 상급학교 진학 준비(편입, 재수, 반수 포함)
- ⑥ 가사, 가족 돌봄
- ⑦ 은퇴
- ⑧ 기타(구체적으로:                    )

**C4. 귀댁의 소득 원천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 ① 근로소득 (임금 및 사업소득)
- ② 재산소득 (임대수익, 배당금, 은행 이자 등)
- ③ 연금 (민간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④ 기초연금,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수당, 양육수당 등의 공적이전소득
- ⑤ 실업급여
- ⑥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받는 용돈(사적이전 소득)
- ⑦ 소득이 전혀 없음 [중복응답불가]

**C4-1. (C4=1~6) 그렇다면 위 소득 원천을 다 합친 귀댁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공제 전)**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⑦ 600-699만원
- ⑧ 700-799만원
- ⑨ 800만원 이상

**C5.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학교 다닌 적 없음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 고독사 실태조사 설문종료.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심층 설문 //B 파트 40점 이상만 진행//**
**<주요 당면 문제, 복지 요구>**
**D1. 최근 6개월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없음
- ② 실직/파산
- ③ 경제적 문제(생계곤란, 부채 등)
- ④ 주거 문제(임대료 체납, 퇴거위기, 주거환경 불량 등)
- ⑤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 ⑥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건강(질병)문제
- ⑦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 ⑧ 사회적 관계 문제(가족 사망, 이혼, 별거, 가족관계 단절 등)
- ⑨ 안전문제(폭력, 범죄노출 등)
- ⑩ 기타(구체적으로 :     )

**D2. 집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는 서비스를 모두 골라 주세요.**

- ①요양보호사(장기요양)      ②방문간호사      ③간병인      ④노인돌봄서비스
- ⑤기타 서비스제공인력 방문(구체적으로 기입 :     )
- ⑥도시락배달      ⑦쌀, 과일 등 제공      ⑧응급알람설치      ⑨기타(     )
- ⑩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음 [중복응답불가]

**D2-1. (D2=1~9) 한달에 몇 회 정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으십니까?**

- ① 1회 또는 1회미만(2~3달에 1번)
- ② 한달에 2~3회
- ③ 일주일에 1회
- ④ 일주일에 2~3회
- ⑤ 일주일에 4~5회
- ⑥ 일주일에 6회 이상

**D2-2. (D2=10)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도움이 필요 없어서(아직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서)
- ②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 ③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 ④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⑤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 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 ⑥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D3. 의도적으로 복지상담사나 공공기관 등의 방문을 거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음
- ②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음
- ③ 방문한 적이 없음

**D4. 지금 받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또는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십니까? (모두)**

- ① 식사준비(도시락)
- ② 청소세탁
- ③ 간병/수발/돌봄/목욕
- ④ 외출(병의원)동행
- ⑤ 친구만들기
- ⑥ 일자리상담
- ⑦ 병원치료
- ⑧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 ⑨ 운동문화여가서비스
- ⑩ 기타( )

**D5.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D6. 현재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습니까?**

- ① 장기요양등급자이며 이용중
- ② 장기요양등급자이나 이용하지 않음
- ③ 아님

**D7. 귀하께서는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7-1. (D7=1) 귀하의 주된 장애유형**

\*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에는 2개 중에 정도가 심한 것을 하나만 체크

- ①지체장애 ②뇌병변장애 ③시각장애 ④청각장애 ⑤언어장애 ⑥지적장애 ⑦자폐성장애 ⑧정신장애 ⑨신장장애
- ⑩심장장애 ⑪호흡기장애 ⑫간장애 ⑬안면장애 ⑭장루·요루장애 ⑮뇌전증장애

## D7-2. (D7=1) 주된 장애의 장애 정도

- ① 심한장애인(1-3급)
- ②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건강수준〉

D8.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이나 그 외 병·의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입원하셨다면, 지난 1년간 전체 입원 일수는 며칠입니까? 입원 한 시설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요양병원(입원 일수 : 일)
- ② 요양시설(입원 일수 : 일)
- ③ 그 외 의료기관(입원 일수 : 일)
- ④ 입원한 적 없음

D9. 현재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① 도움없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② 조금 도움을 받는다면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
- ③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움

D9-1. (D9=2,3의 경우) 일상 활동에 제한을 가져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

- ① 골절, 관절부상 ② 기타손상 ③ 관절염, 류마티즘 ④ 심장질환 ⑤ 호흡문제, 폐질환, 천식 ⑥ 뇌졸중 ⑦ 당뇨병
- ⑧ 고혈압 ⑨ 등, 목의 문제 ⑩ 암 ⑪ 치아 및 구강질환 ⑫ 시력문제 ⑬ 청각문제 ⑭ 치매 ⑮ 우울/불안/정서상문제
- ⑯ 정신지체 ⑰ 비만 ⑱ 노령 ⑲ 신부전 ⑳ 어지럼증 ㉑ 위장장애 ㉒ 무릎, 다리통증(관절염제외) ㉓ 두통 ㉔ 기타

D10. 최근 1년 동안 음주문제로 보건소, 일반의료기관, 알코올상담센터(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11. 최근 1년 동안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본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함
- ③ 아니오. 받을 필요가 없었음

D12. 최근 1년 동안 자살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D13.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경제 상태〉

D14.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댁의 소득의 변화 정도는 어떠합니까?

(※ 소득이 1년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경우는 '③ 동일하다'에 표시)

- ① 크게 증가했다                      ② 약간 증가했다                      ③ 동일하다
- ④ 약간 감소했다                      ⑤ 크게 감소했다

D15.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댁의 부채의 변화 정도는 어떠합니까?

(※ 부채가 1년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 경우는 '③ 동일하다'에 표시)

- ① 크게 증가했다                      ② 약간 증가했다                      ③ 동일하다
- ④ 약간 감소했다                      ⑤ 크게 감소했다

D16. 귀댁은 언제까지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습니까?

- ① 대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 ② 대출기한은 지나더라도 대출기한 이후 ( )년 이내로는 갚을 수 있다
- ③ 상황이 불가능할 것이다
- ④ 부채 없음

D17. 귀하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십니까?

- ① 납부한다
- ② 납부하지 않는다 → D18

D17-1. (D17=1) 건강보험료 부담 정도

- ① 매우 부담    ② 약간 부담    ③ 보통    ④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D18. 현재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요금 등) 등 미납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 ① 미납 지속
- ② 미납이 있지만 일시적
- ③ 없음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종료.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부록 2] 설문지: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고독사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적인 자료 취합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0 응답자 선정설문

선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선문2. 귀하의 만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선문2-1. 연령대 (선문2와 연계하여 자동체크)

- ① 18세 이하 -> 설문종료
- ② 19-29세
- ③ 30대
- ④ 40대
- ⑤ 50대
- ⑥ 60대 이상

선문3.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선문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졸업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학교 다닌 적 없음
- ② 초등학교 졸업
- ③ 중학교 졸업
- ④ 고등학교 졸업
- ⑤ 대학교 졸업
- ⑥ 대학원 이상

선문5. 현재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수(본인 포함)

- ① 1명(혼자 산다)
-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1 주관적 외로움

문1.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 ① 자주 그렇다                      ② 때때로 그렇다                      ③ 가끔 그렇다  
④ 거의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문2. (선문5=2~5) 만약 혼자 살게 된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 거라 여기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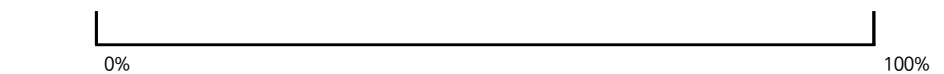
- ①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②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③ 가사활동 (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보기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④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⑤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⑥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⑦ 기타( )

문2-1. (선문5=1) 혼자 살고 계신다면, 앞으로 닥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 거라 여기십니까? 가장 어려운 순으로 2개를 선택해주세요

- ① 타인과의 교류가 없어 단절 및 고립 외로움  
②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처의 어려움  
③ 가사활동 (빨래, 청소 및 주거 관리, 장보기 및 식사준비)의 어려움  
④ 균형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등 건강 증진의 어려움  
⑤ 노동 능력 감소로 경제적으로 불안  
⑥ 방법 등 안전 문제의 취약성  
⑦ 기타( )

## 2 고독사 인식

문3. 고독사의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자신의 고독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여기십니까?



문4. 가족이 있어도 고독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문5.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한다고 여기십니까?

- ①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발생
- ② 2명 이상 함께 살더라도 발생 가능
- ③ 모름/생각해본적 없음

(고독사의 정의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6.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시간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사망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죽음을 고독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① 홀로 사망 후 1~2일 이후 발견
- ② 홀로 사망 후 3일 이후 발견
- ③ 홀로 사망 후 1주일 이후 발견
- ④ 홀로 사망 후 2주일 이후 발견
- ⑤ 홀로 사망 후 한달 이후 발견

(고독사에 대한 이미지/생각)

문7. 고독 또는 고독사와 관련된 다음 진술문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1. 고독사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이다				
3. 고독사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4. 고독사는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겪는 것이다				
5. 고독사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겪을 수 있다				
6. 고독사는 인근, 이웃에 폐를 끼친다				
7. 고독사는 주변 이웃의 무관심으로 발생한다				
8.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9. 심각한 고독,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 생각한다				

**3** 고독사 정책 중점 대상

---

문8. 노인(65세 이상)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대체로 충분하다 ③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문9. 중장년층(40-64세)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대체로 충분하다 ③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문10. 청년층(20-39세)을 위한 고독사 예방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대체로 충분하다 ③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④ 매우 부족하다

문11.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현 수준보다 강화한다면 어느 연령층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노인층 ② 중장년층 ③ 청년층 ④기타( )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

문12. 자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선택하면 무엇입니까?  
① 평소 가족, 지인과 연락을 자주한다  
② 가까운 이웃 사람들과 말을 걸거나 친하게 지낸다  
③ 긴급 연락처 또는 서로 도와줄 친구를 확보한다  
④ 집에 긴급대처장비 또는 모니터 TV를 설치한다  
⑤ 기타( )

문13. 동네 주민 중에 고독사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주민센터 또는 이장, 통장 등에게 신고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 문14  
② 없음 -> 문13-1

문13-1. 없다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② 개인적 일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또는 공무원의 역할이므로  
③ 관심없어서  
④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⑤ 기타( )

문14. 국가 정책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책 2가지를 선택하면 무엇입니까?

- ① 고독사 위험가구의 발굴
- ② 주민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지원
- ③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 ④ 공적 복지서비스 강화(노인돌봄,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 ⑤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
- ⑥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설비(IoT) 보급 확대
- ⑦ 기타( )

문15. 1인 가구에 응급알람장치 및 안전/안부 확인 스마트 플랫폼 설치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됨
- ② 대체로 도움이 됨
-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음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문16.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에 공공(지자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공영장례 지원
- ② 가족 치유회복 지원
- ③ 최초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료
- ④ 유품정리 지원
- ⑤ 특수청소 지원
- ⑥ 기타( )

문17.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 ① 매우 필요
- ② 대체로 필요
- ③ 필요 없음
- ④ 모름/생각해본적 없음

**5 고독사 예방 지원 의향**

문18.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고독사 위험에 처한 이웃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설령 고독사가 발생하더라도 유품정리, 공영장례 등 사후지원체계를 마련해 고인의 죽임이 외롭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위해 귀하께서 매월 1천원을 지불해야 한다면, 지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지불할 의향이 있다 → 문18-1
- ② 아니요, 지불할 의향이 없다 → 문18-2

문18-1.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매월 2천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지불할 의향이 있다
- ② 아니요, 지불할 의향이 없다

문18-2. (지불 의향이 없는 경우) 귀하께서는 매월 5백원은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지불할 의향이 있다
- ② 아니요, 지불할 의향이 없다

**6 일반사항**

배문1.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주택 등)
- ②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 ③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텔 포함)
- ④ 오피스텔
- ⑤ 준주거 시설(고시원)
- ⑥ 기타(구체적으로: )

배문2.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금 있는 월세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연세)
- ⑤ 무상

**배문3. 결혼 여부**

- ①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있음)
- ②미혼(이성친구나 연인 없음)
- ③결혼(재혼, 동거 포함)
- ④별거
- ⑤이혼
- ⑥사별

**배문4.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 분규,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등으로 일시 휴직 중이신 분도 '하였다'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일을 하였다 -> 배문4-1
- ② 일을 하지 않았다 -> 배문4-2

**배문4-1. 현 직장(일자리) 종사상지위**

- ① 정규직(상용직)
- ② 임시직(계약직)
- ③ 일용직
- ④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배문4-2. (일하지 않은 경우) 지난주 일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 ① 학교생활
- ② 취업 준비
- ③ 창업 준비
- ④ 휴식과 여가 활동(여행 등)
- ⑤ 상급학교 진학 준비(편입, 재수, 반수 포함)
- ⑥ 가사, 가족 돌봄
- ⑦ 은퇴
- ⑧ 기타(구체적으로: )

**배문5. 귀댁의 소득 원천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하는 것 모두 선택)**

- ① 근로소득 (임금 및 사업소득)
- ② 재산소득 (임대수익, 배당금, 은행 이자 등)

- ③ 연금 (민간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④ 기초연금,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수당, 양육수당 등의 공적이전소득
- ⑤ 실업급여
- ⑥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받는 용돈(사적이전 소득)
- ⑦ 소득이 전혀 없음 //1~6 응답 불가//

배문5-1. (배문5=1~6) 그렇다면 위 소득 원천을 다 합친 귀댁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공제 전)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99만원
- ③ 200-299만원
- ④ 300-399만원
- ⑤ 400-499만원
- ⑥ 500-599만원
- ⑦ 600-699만원
- ⑧ 700-799만원
- ⑨ 800만원 이상



## [부록 3]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설문 문항관련 참고자료

### 1. 사회적 고립 척도

#### □ 통계청 사회조사의 설문문항

설문문항: 사회적 고립
<p>●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p> <p>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있다( )명 ②없다</p> <p>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있다( )명 ②없다</p> <p>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있다( )명 ②없다</p>
<p>①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등), 전화 등으로 사람들과 교류하십니까? 교류한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p> <p>①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있다( )명 ②없다</p> <p>②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단순 업무상 관계는 제외) ①있다( )명 ②없다</p> <p>③ 지난 1년동안(조사시점 기준)의 하루 평균 교류하는 사람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였습니까? ①예 ②아니요</p> <p>④ 감소한 주된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요</p>

주: 통계청 사회조사

#### □ 지표 측정 방법

$$\text{사회적 관계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frac{\text{'있다'의 응답자 수}}{\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 □ 2021년 주요 연구결과

-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년전보다 감소함.

〈부표 1〉 사회적 관계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sup>1)</sup>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줄 사람 있음	사람 수	도움 줄 사람 있음	사람 수
2019년	79.6	2.3	51.4	2.2	83.3	2.9
2021년	72.8	2.3	50.1	2.2	79.6	2.9
도시(동부)	72.8	2.3	51.1	2.2	79.9	3.0
농어촌(읍면부)	72.9	2.3	45.3	2.2	78.3	2.7
남자	71.1	2.4	49.0	2.3	76.5	3.0
여자	74.5	2.3	51.1	2.1	82.7	2.9
13~18세	-	-	51.5	3.3	84.2	4.0
19~29세	77.5	2.8	60.0	2.7	85.4	3.7
30~39세	77.0	2.4	61.7	2.2	84.0	3.1
40~49세	74.4	2.3	57.0	2.1	82.4	2.8
50~59세	69.7	2.2	46.7	2.0	78.8	2.6
60세이상	68.9	2.1	35.4	1.9	71.6	2.3

주: 1) 19세 이상 대상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10명 중에 8명은 평소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음.

- 하루 평균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 또는 친척 2.9명과 교류하였고, 가족이  
나 친척을 제외한 타인 3.8명과 교류하였음.

〈부표 2〉 사회적 관계망: 일평균 교류

(단위: %, 명)

구분	가족 또는 친척(동거인 제외)		가족 또는 친척 외(업무상 접촉 제외)	
	교류자 있음	사람 수	교류자 있음	사람 수
2019년	74.5	2.9	76.9	3.9
2021년	77.3	2.9	77.2	3.8
도시(동부)	76.9	2.9	77.8	3.9
농어촌(읍면부)	79.0	2.9	74.0	3.5
남자	74.6	3.0	75.9	4.0
여자	79.9	2.8	78.4	3.6
13 ~ 18세	67.4	3.0	86.3	5.5
19 ~ 29세	73.4	3.0	86.9	4.5
30 ~ 39세	81.0	2.9	80.8	3.9
40 ~ 49세	81.7	3.0	79.2	3.5
50 ~ 59세	79.7	3.1	77.6	3.6
60세이상	75.3	2.7	65.9	3.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1.11.17.). 2021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 연구목적: 송인주·고선규·박선영(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고립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의 특성과 과정 분석
  
- 연구방법
  - (선행연구도출) 사회적 고립, 외로움, 우울, 인구 사회적 특성 도출
  - (질적 분석) 질적 분석에서 특성 도출
  - (양적 분석) 선행연구 및 질적 분석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
    - 1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분석
  
- 사회적 고립척도
  - OECD 국가별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척도 활용
    - ※ OECD의 사회적 고립 척도
    - 어려운 상황: 1)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경우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 연락 대상: (a) 가족 및 친척 (b) 친구 (c) 이웃 (d) 직장 동료
  -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수

〈부표 3〉 사회적 고립 척도

설문문항	
<p>㉠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p>	
<p>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p>	
가족 및 친척	①있다( )명 ②없다
친구	①있다( )명 ②없다
이웃	①있다( )명 ②없다
직장 동료	①있다( )명 ②없다
<p>②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p>	
가족 및 친척	①있다( )명 ②없다
친구	①있다( )명 ②없다
이웃	①있다( )명 ②없다
직장 동료	①있다( )명 ②없다
<p>③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p>	
가족 및 친척	①있다( )명 ②없다
친구	①있다( )명 ②없다
이웃	①있다( )명 ②없다
직장 동료	①있다( )명 ②없다

자료: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 다음은 귀하께서 주위 사람들(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과 연락하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며, 그 연락 방법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대상에 대해서 연락 방법별(문자연락, 전화연락, 직접만남)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문자 연락(카톡, SNS 등 인터넷 메시지 포함)

	거의매일	1주에 2-3회	1주에 1회	1개월에 2-3회	1개월에 1회	2-6개월에 1회	거의 연락 안함	해당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연인								
자녀								
기타 친족								
이웃주민								
취미모임 및 단체활동회원								
친구(동급생, 선후배등)								
소셜네트워크(SNS) 등								
직장동료 및 사업 파트너								
기타 지인								

**② 전화 연락(인터넷 화상 전화 포함)**

	거의매일	1주에 2~3회	1주에 1회	1개월에 2~3회	1개월에 1회	2~6개월 에 1회	거의 연락 안함	해당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연인								
자녀								
기타 친족								
이웃주민								
취미모임 및 단체활동회원								
친구(동급생, 선후배등)								
소셜네트워크(SNS) 등								
직장동료 및 사업 파트너								
기타 지인								

**③ 직접 만남**

	거의매일	1주에 2~3회	1주에 1회	1개월에 2~3회	1개월에 1회	2~6개월 에 1회	거의 연락 안함	해당없음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연인								
자녀								
기타 친족								
이웃주민								
취미모임 및 단체활동회원								
친구(동급생, 선후배등)								
소셜네트워크(SNS) 등								
직장동료 및 사업 파트너								
기타 지인								

주: ※ 일상적인 인사, 업무관련 소통 등도 포함하여 답변해 주세요.

※ 여러 사람과의 연락 빈도가 각각 몇 개월에 한번 정도인 경우는, 이를 합산한 빈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 4명을 각각 3개월에 1번 만나고 있는 경우는 월1회가 됩니다.

※ ⑧해당사항 없음'은 연락 대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 미혼이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자료: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p. 127.

## □ 지표 측정 방법

$$\frac{\text{주위 사람들과의 연락방법별 연락빈도}}{\text{'있다'의 응답자 수}} \times 100$$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실태조사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①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②일주일에 2-3회 ③일주일에 1회정도 ④한달에 1-2회정도 ⑤3개월에 1-2회정도 ⑥1년 1-2회정도 ⑦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1)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2)손자손녀/(3)친인척/(4)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①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②일주일에 2-3회 ③일주일에 1회정도 ④한달에 1-2회정도 ⑤3개월에 1-2회정도 ⑥1년 1-2회정도 ⑦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1)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2)손자손녀/(3)친인척/(4)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①거의 매일(주4회 이상) ②일주일에 2-3회 ③일주일에 1회정도 ④한달에 1-2회정도 ⑤3개월에 1-2회정도 ⑥1년 1-2회정도 ⑦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사도우미 등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 사회복지단체의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경우 /2)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경우

연락 대상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가족 및 친척	①있다 ( )명	②없다
친구	①있다 ( )명	②없다
이웃	①있다 ( )명	②없다
직장 동료	①있다 ( )명	②없다

구분	현재 함께 살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연락 및 왕래하는 주변 사람들의 유무 및 인원	연락 및 왕래 빈도 ①거의 매일 ②주1-2회 ③월1-2회 ④년4-6회 ⑤년1-3회	도움 및 의지되는 정도 ①매우도움/의지가된다 ②어느정도도움/의지가된다 ③그저그렇다 ④별로도움/의지가되지않는다 ⑤전혀도움/의지가되지않는다
배우자	①없다 ②있다 ( 명)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①없다 ②있다 ( 명)		
부모	①없다 ②있다 ( 명)		
손자녀 및 손자녀 배우자	①없다 ②있다 ( 명)		
형제 자매	①없다 ②있다 ( 명)		
친인척	①없다 ②있다 ( 명)		
친구	①없다 ②있다 ( 명)		
이웃	①없다 ②있다 ( 명)		
직장 동료(현재/과거포함)	①없다 ②있다 ( 명)		
기타	①없다 ②있다 ( 명)		

## 2. 외로움 척도

### □ 외로움 지표

- UCLA Loneliness Scales ver3.(Russell, 1996)를 번안하여 활용
- 이 척도는 1978년 개발된 Russell & Ferguson의 Loneliness Scales 첫 번째 버전에서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20개 문항의 질문으로 정리
- 20개의 외로움 관련 항목(외로움 척도: UCLA Loneliness scales version3)에 대한 동의정도

### 〈부표 4〉 외로움 척도

설문문항
<p>● 다음 각각의 문장을 읽고 귀하께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이와 같이 느끼시는지를 선택해주시시오. 너무 오래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떠오르시는 느낌을 선택해 주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때때로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껴진다</li> <li>2)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li> <li>3)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진다</li> <li>4) 나는 혼자라고 느껴진다</li> <li>5) 나는 친구들 안에 속해 있다고 느껴진다</li> <li>6) 나는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많다고 느껴진다</li> <li>7) 나는 더 이상 어느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고 느껴진다</li> <li>8) 나는 나의 관심사나 의견이 주위 사람들과 공유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li> <li>9) 나는 주위 사람에게 사교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느껴진다</li> <li>10) 나는 주위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껴진다</li> <li>11)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li> <li>12)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li> <li>13) 나는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진다</li> <li>14)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li> <li>15) 나는 내가 원할 때는 같이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껴진다</li> <li>16) 나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껴진다</li> <li>17) 나는 내가 수줍음을 잘 탄다고 느껴진다</li> <li>18) 나는 주위에 사람들은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사람은 없다고 느껴진다</li> <li>19)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li> <li>20) 나는 내가 의지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느껴진다</li> </ol>

자료: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 □ 지표 측정 방법

외로움 지표(4점척도) = (③때때로 그렇다 + ④자주 그렇다)의 평균

□ UCLA 외로움 3문항 간단 지표

외로움 (UCLA) - 아동
귀하는 얼마나 이와 같이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나는 나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느껴진다 ①전혀 없다/아주 가끔씩 있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①전혀 없다/아주 가끔씩 있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 나는 혼자라고 느껴진다 ①전혀 없다/아주 가끔씩 있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외로움의 직접 척도
귀하는 얼마나 이와 같이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①자주 그렇다 ②때때로 그렇다 ③가끔 그런 편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 외로움(loneliness) 지표 (4문항)

○ UCLA-3항목+외로움의 간접지표를 적용. 이는 영국 통계청에서도 생산

○ 외로움 4개 문항

- ①전혀 없다(1점)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2점) ③자주 있다(3점)

- 3점(min)~9점(max): 외로움의 절대기준 점수는 없음. 2문항 이상이 ③인 경우

외로움 (UCLA) - 성인
귀하는 얼마나 이와 같이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①거의 없는 편이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①거의 없는 편이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①거의 없는 편이다 ②때때로 있는 편이다 ③자주 있다
외로움의 직접 척도
귀하는 얼마나 이와 같이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귀하는 얼마나 자주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①자주 그렇다 ②때때로 그렇다 ③가끔 그런 편이다 ④거의 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Measures	Items	Response categories
The three-item UCLA Loneliness scale	1.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lack—companionship?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Often
	2.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Often
	3.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Often
The direct measure of loneliness	How often do you feel lonely?	Often/always, Some of the time, Occasionally,Hardlyever, Never

자료: UCLA refers to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The UCLA 3-Item Loneliness Scale.

#### □ 사회적 고립도 지표 (2문항)

○ 사회적 고립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

○ 사회적 고립도 지표 2개 문항

통계청 설문문항
<p>○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p> <p>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있다( )명 ②없다</p> <p>②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있다( )명 ②없다</p>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설문문항

#### □ 인구사회경제 영역 구성

○ (구성) 고독사의 위험요인은 크게 사회 전체 측면과 개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사회 전체 측면에서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기능의 축소/변화, 취업 및 미취업 관련 사회적 변화, 개인 측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질환, 사회관계의 단절

○ (영역) 고독사 위험요인 영역은 9개 영역으로 구성

[부그림 1] 고독사 위험요인 영역 체계



자료: 고숙자, 이아영, 황남희, 장익현, 안영, 정영호. (2021).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 연구.

### 3.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설문문항
㉠ 귀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약간 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만족한다 ⑤매우 불만족한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설문문항

설문문항	
㉠ 귀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 개인적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매우 만족한다 ②약간 만족한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불만족한다 ⑤매우 불만족한다	
항목내용	만족정도
① 가족과의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② 친척과의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③ 친구와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④ 이웃과의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⑤ 직장동료와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⑥ 전반적인 인간관계	①---②---③---④---⑤

자료: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 4. 우울감 척도

##### □ 우울감 척도

-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를 적용한 간이 우울 검사 도구를 활용

〈부표 5〉 우울감 척도

설문문항
<p>● 다음 각각의 문장을 읽고 귀하께서 지난 2주(보름)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얼마나 자주(많이) 겪었는지를 선택해주시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①전혀 없음 ②며칠 정도 ③1주일 정도 ④거의 매일)</p> <p>1)매사에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었다            2)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3)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잤다            4) 피곤하다고 느끼거나 기운이 거의 없었다            5) 식욕이 줄었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먹었다            6) 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껴졌다 (내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지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느껴졌다)            7) 신문이나 TV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8) 다른 사람들이 눈치 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리거나 반대로 너무 안절 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9)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나 자해하려는 충동이 있었다</p>
설문문항
<p>● 귀하께서는 앞선 문항에서의 문제들로 인해서 일을 하거나 가정 일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①전혀 어렵지 않았다 ②약간 어려웠다 ③많이 어려웠다 ④매우 많이 어려웠다</p>

자료: 송인주, 고선규, 박선영. (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 □ 지표 측정 방법

우울감 지표(4점척도) = 문제경험률(②며칠정도+③1주일정도+④거의매일)의 평균

□ 65세 이상 노인대상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의 생활이 아래 내용과 같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요즘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대체로 마음이즐거워 편이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기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자료: 노인실태조사